

| 2018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두드리,

응답자의 마음을 여는



통계청



두드리,

응답자의 마음을 여는



2018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두드림, 응답자의 마음을 여는

가계·기업·정부의 제반 의사 및 정책은 통계정보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경제와 사회발전을 좌우하므로, 통계정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자원입니다.

통계는 조사기획 및 설계, 샘플링, 현장조사, 에디팅, 추정 등 다양한 과정의 산물입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타 과정이 아무리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설계 및 수행돼도, 현장조사 결과가 부실하면 고품질의 통계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GIGO(Garbage In, Garbage Out) 즉, 입력자료가 부실하면 추정결과도 부실하다는 용어가 통계격언으로 통용되는 이유입니다.

현장조사는 조사자와 응답자 사이의 관계와 소통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 의식이 강화되고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여, 이러한 관계형성과 상호소통을 위한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계조사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는 국민들, 끊임없이 응답자의 마음을 열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조사담당자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들입니다.

이 사례집에는 신뢰받는 국가통계 생산을 위하여 오늘도 달리는 통계청 조사담당자와 응답자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담겨있습니다.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이러한 고귀하고 어려운 조사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며 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국가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조사담당 직원과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성실히 조사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통계청장 강 신 욱



CONTENTS

조사직원
부문

PART 1 ◆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작

공감으로 응답자에게 다가가기

대 상 박한선 ◆ 고민을 해결해드려요(feat. 아찔한 멧돼지의 습격) • 08

금 상 김성옥 ◆ 단맛, 쓴맛, 신맛 • 17

은 상 이미지 ◆ 나 임마! 오늘도 존버! • 27

동 상 김효선 ◆ 내 마음의 문을 열고 Go Go~ • 41

동 상 임미선 ◆ 나의 포지션은 통계 센터! • 52



PART 2 ◆ 지방청 장려상

신뢰감 형성으로 응답자에게 다가가기

장려 상 김영숙 ◆ 기쁨의 성장통 • 66

장려 상 김영미 ◆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 79

장려 상 오지선 ◆ 푹푹,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 92

장려 상 윤용복 ◆ 참깨 사용설명서 • 105

장려 상 강진희 ◆ 브레이크 없는 행복한 질주를 위하여 • 115

장려 상 김성은 ◆ 지금 흘린 눈물이 언젠가 진주가 되어 나에게 온다 • 126

장려 상 정유진 ◆ 통계청과 함께한 180일 • 140

장려 상 유해경 ◆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나는 통계조사 직원이다 • 153

장려 상 김정선 ◆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 161

장려 상 윤천광 ◆ 농어업표본 개편을 마치고(빛과 그림자) • 172





- 장려상 이정미 ◆ 인간극장 5부작 • 178
- 장려상 배은경 ◆ 우리 집은 이 조사에서 빼 주이소! • 192
- 장려상 주혜림 ◆ 쿠레레(currere), 내가 만들어가는 통계조사 체험기 • 207
- 장려상 김미리 ◆ 어서 와, 현장조사는 처음이지? • 216
- 장려상 맹성현 ◆ 팍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퍼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 225
- 장려상 심효신 ◆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 240
- 자체추천작 이영숙 ◆ 통계 베테랑의 새로운 시작 • 247
- 자체추천작 조은정 ◆ 조금 느려도 괜찮아 • 258
- 자체추천작 고병주 ◆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나아간다!!! • 271
- 자체추천작 광민정 ◆ 우연에서 필연을 거쳐 인연이 되기까지 • 281
- 자체추천작 최은호 ◆ 전통시장의 어느 멋진 날 • 287



응답자
부문

PART 3 ◆ 응답자 부문 특별상

이웃사촌처럼, 가족처럼

- 특별상 정순옥 ◆ 통계청,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다 • 300
- 특별상 문상진 ◆ “최형”이라고 불리는 조사관 • 304
- 특별상 서우선 ◆ 기다림 • 312



PART 1



• 2018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작

공감으로 응답자에게 다가가기

고민 끝에 응답자와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도출했다. 공감으로 다가가기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이 두 가지를 모토로 응답자들에게 어필 대작전에 들어갔다. 내가 응답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택한 첫 번째 응답자의 고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호소해도 ‘알겠다.’라고 말만 할 뿐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 어머님에게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대상작 「고민을 해결해드려요」 중에서 -

대 상

충청지방통계청
박 한 선

사례.
하나



고민을 해결해드려요 (부제. 아찔한 멧돼지의 습격)

8 '좋은 인연이란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록 시작이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특히나 통계청에서야말로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생면부지의 낯선 현장에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청주사무소 농업팀에 발령 받아 처음 맡은 업무는 농가경제 조사였다. 신입 공무원으로 떨리면서도 의욕에 찬 마음으로 근무한지 반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만남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장릉면허에 도시에서만 살아 마늘과 양파가 겨울작물인지도 몰랐던 어설픈 신입에게 농업 팀 업무는 너무



나 낯선 일이었다.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 매번 차를 대신 빼주시던 응답자도 있었고, 직접 자신의 창고를 데리고 다니며 농기계를 설명해주시던 상냥한 응답자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친절한 응답자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몇 번의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왔었고,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를 들려드리려 한다.



착각은 자유, 역시 녹록치 않은 첫 농가 어머니

내가 담당할 조사구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사는 농가 마을이었고 최근에 표본개편을 해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조사구에 인수 인계를 받으러 갔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점집도 겸업하는 농가를 방문했다. 점집 어머님께서 한참동안 나를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나서야 입을 떼고선 한마디 하신다.

“색시, 얼굴 보니 처음엔 고생이 많겠네. 근데 어디에서 일하든지 똑같은 걸?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털어버리고 버티는 게 좋을 거야.”

첫 대면에 “고생 많겠어.”라는 말씀에 어안이 병병했다. 내가 새내기에 도시에서만 자라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아셔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 편이 무거워졌다. 그러곤 어머니의 위로 말씀이 한 시간이나 이어졌다. 그래도 긴 대화 끝에 어머님만큼은 나에게 든든한 편이 되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첫 만남에서 나를 가장 걱정해주시던 어머니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응답자로 변해 버릴 줄은….



변해버린 응답자들, 집단불응 위기로 이어져

“어머님~ 이번에 여성 농업인들 대상으로 바우처 카드 나왔다는데 어머님도 받으셨어요?”

조사를 위해 던진 질문에 친절했던 어머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180도 변해버린 것이다. 이어서 화가 난 어투로 말을 쏟아 내셨다.

“카드는 무슨 놈의 카드야!! 그런 게 나오면 이장이 바로바로 쥐야 하는데 난 아직도 못 받았어. 나라는 왜 이장 같은 걸 뽑아서 수당으로 20만 원씩이나 주는 거야? 아니면 홍보라도 해서 알려주든지 해야지 세금만 가져가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10

그리고 어머님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계속됐다. 그 날 이후로, 어머님은 만날 때마다 불만들을 쏟아내셨다. 조사구를 방문하는 게 두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불응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수확량을 파악하러 갔을 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어머님~ 이번에 감자는 수확하셨어요??”

점집어머님은 이 말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수확은 무슨. 올해 감자 농사 다 망쳤어!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고 갔어!! 농협에 가서 말했는데 밭 보러 온다더니 한 번 보러오지도 않았어. 이런 거 백날 대답 해줘봐야 뭐 해,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됐고, 나 이거 조사 안 해. 앞으로 오지 마!!”

맏소사.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뉴스에서나 보



던 멧돼지가 어머님 밭을 다 망가뜨렸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불응을 선언하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동네의 마당밭이신 어머님의 부정적인 반응이 같은 마을의 다른 응답자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OO댁이 자기는 이제 응답 안 할 거라던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그런 거면 나도 좀 빼 줘.”

“바쁘는데 왜 맨날 귀찮게 와. 다들 안 한다니까 나도 이참에 같이 빼.”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신표본 조사구였는데 어머님의 강력한 입김까지 닿으니 응답자 분들은 너도 나도 조사에서 빼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잘못하면 집단불응까지 나올 수도 있는 위기의 사태! 응답자들의 마음을 하루빨리 돌리는 게 시급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고민 끝에 응답자와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도출했다. 공감으로 다가가기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이 두 가지를 모토로 응답자들에게 어필 대작전에 들어갔다.



어필 대작전 첫 번째, 응답자의 고민을 내 일처럼 생각하기

내가 응답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택한 첫 번째 응답자의 고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호소해도 ‘알겠다.’라고 말만 할 뿐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 어머님에게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단 ‘멧돼지 피해 신고를 했지만 아무도 보러 안 왔다는 사실’에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발에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타고 산 위에 있는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 올라가던 도중에 산 중턱에 차가 멈춰버렸다. 초보운전인 나는 전진도 해보고 후진도 해봤지만 차는 요지부동 헛바퀴만 돌더니 결국 타는 냄새까지 났다. 결국, 긴급 출동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했다.



선배들이 논두렁에 빠지는 게 신고식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고식을 하는 구나 싶었다. ‘잘 해 보려고 하는 일인데 진짜 되는 일이 없구나.’ 자책하며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요란한 굉음 소리가 들려 발에서 일하시다 내려오신 거라 하신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

“어머님ㅠㅠ 멧돼지 피해 입으신 거 걱정돼서 보려고 가다가 차가 그만 멈춰버렸어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어.”

며칠 전 불같이 화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비록 차는 살짝 망가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 움직인 것 같았다.



어필 대작전 두 번째, 전문성 키우기

어머니의 마음이 풀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다른 응답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다. 평소 대답하기를 번거로워하셨던 조사구 응답자들, 내 판에는 정



확히 조사하겠다고며 열심히 캐어묻기를 한 것이 노하우가 없던 티라 농번기에 바빴던 응답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먼저 내가 부족한 경험적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선배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파악했다. 그리고 자료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다. 방문하기 전에는 미리 작물 면적에 따른 예상수확량을 파악해 가고 많이 사용하는 비료나 농약은 필히 알아 두었다.

그 결과, 질문은 “이번에 수확은 얼마큼 하셨어요?”에서 “고추 00평 심으셨으니 00근 정도 수확하셨나요?”로, “비료는 뭐 뿌리셨어요?”에서 “이삭거름으로 NK비료 뿌리셨나요?”로 구체적으로 변했다. 응답자분들도 대답하기가 수월해지니 점점 나를 반겨주시기 시작했다.



어필大作전 세 번째, 응답자에게 필요한 정보통이 되어 드리기

내가 택한 세 번째 방법은 응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우선 여전히 멧돼지 피해로 고통 받던 점집 어머님을 위해 피해복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익숙지 않은 조례문도 찾아보고 관련 기사 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읽었다.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과 필요한 정보는 노트에 요약해 놓았다.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어머님을 다시 찾아뵈었다.

“어머님, 제가 찾아봤는데 멧돼지 피해복구 보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어떻게 해야 받는 건데?”

“일단 피해신고는 농협이 아니라 면사무소에서 접수하는 거래요. 현장 최대한 보존한 채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그리고 겨울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마감됐



당시 보냈던 문자와 사진들

지만 올 겨울에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이따가 문자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직접 알려주니 너무 좋네.”

이러한 나의 노력으로 어머님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대답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협조 안 하면 나한테 말해. 도와줄게.”라며 발 벗고 도와주신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다. 해당 조사구가 연령대가 높다보니 정보를 얻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내가 그 마을 응답자들의 정보통이 되어드리고자 하였다.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한다고 하니까 손녀 분들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 가서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이번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들은 휴대전화 요금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대요. 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은 꼼꼼히 챙겨 전해드렸다. 어느덧 조사구 마을의 조사 환경은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변했고, 집단 불응 소동은 자연스레 추억 속 이야기가 되었다.



끝이 좋은 인연

근무한 지 6개월, 끝을 운운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이지만 정기인사에 따라 농업팀에서 사회팀으로 담당업무를 옮기게 되면서 담당하던 농가들과의 이별의 순간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응답자 분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드리니 아쉬워하시며 한마디씩 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아버님 댁에서 완전 반대쪽이에요. OO군 맡았어요. 근처면 길 가다가 들들 수라도 있을 텐데...”

“어이구. 길치가 그 멀리 길 찾아갈 순 있겠어? 힘들면 말해, 내가 데려다줄게!”

전에 밭 위치를 헤맸다는 말에 직접 트럭을 타고 본인 논밭을 다 데려다 주



셨던 아버님은 본인 집에서 한 시간 반 거리를 데려다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버님 너무 아쉬워요. 여기 올 때마다 풍경이 좋아서 몸도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었는데...”

“공무원 일이 원래 그런 거야. 다른 데 가서도 잘 해야지.”

공무원 따님을 둔 아버님은 톰땀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아쉬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신다.

“벌써 가게?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가. 그리고 저기 옆에 펜션 좋으니까 한번 이쪽 놀러 와~ 놀러 오면 꼭 들르고! 맛있는 거 줄게.”

“사랑아(강아지), 이제 누나 못 봐서 어째. 사랑이가 많이 슬퍼한다.”며 애완 동물에 돌려서 슬픔을 표현하시던 어머니.

비록 중간에 위기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이번 만남들은 끝이 좋은 인연이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 응답자와 유대를 끈끈하게 유지했을 때 비로소 신뢰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앞으로도 나의 태도에 따라, 나의 노력에 따라 국가통계와 지역 통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이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금 상

동남지방통계청
김 성 욱

사례,
들

단맛, 쓴맛, 신맛



커피로 통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중에 진짜 좋은 커피는 어떤 맛을 내는 커피인지를 알아보았다. 좋은 맛을 내는 커피는 단맛, 쓴맛, 신맛이 조화를 깨 잘 어우러진 맛이 나는 커피라고 되어 있었다.

요즘 커피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내게는 있다. 머릿속 깊이 각인된 팔순의 어르신….

‘함부래 오지 마소!’란 말을 수도 없이 하셨고, ‘꼭 한 번 다시 오소!’란 말을 단 한 번 하신 분…, 자신을 어지간히 고약하고 억척같은 노인네로 비치게 포장했지만 소박하고 강직하게 소를 키우며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허리가 아픈





노부인에게 살뜰한 면까지 가진 어르신과의 인연, 그 인연의 고리가 지금 생각해도 마냥 흐뭇하다.

나를 볼 때마다 하는 문전박대는 어르신의 반갑다는 인사라 여기고 난 마당 한가운데 서서 미소를 머금고 조금만 버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키면 손을 휘이 저으며 방으로 들어오라 하신다.



방을 들어서면 언제나 방 가장자리에는 연아커피와 태희커피가 자리잡고 있는데 내가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어르신의 손놀림이 바빠지신다. 내가 커피를 타겠다고 하면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다. 태희가 웃고 있는 커피 1봉을

손에 잡고 이빨로 봉지를 뜯어서 종이컵에 커피를 넣고 그리고 커피물을 저을 때는 사용했던 태희커피 빈봉지가 아닌 사용하지 않은 연아커피 봉지로 정성스럽게 빙빙 저어주신다. 또 어떤 날은 연아커피를 타고 태희커피로 저어도 주시기도 한다. 커피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

18

군동내나는 어르신의 방에 앉아 한 모음 커피를 마실 때면 어김없이 녹음기처럼 되풀이되는 첫 마디 “축산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있나? 사룻값하고 약값제하고 나면 남는기 있는 줄 아나?”라는 어르신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송아지가 설사병이 나서 약 값이 많이 들어갔다. 애미소가 수정이 잘 되지 않아서 애먹는다... 책임수정이라고 들어봤나?” 등등...

이렇게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시작되었다.



서릿발보다 차가운 말에 상처받다

그 분과의 인연은 2017년 늦가을에 시작되었다. 지속적으로 조사하던 축산물생산비조사 대상 농가가 갑자기 소를 처분해서 표본대상 축산 농가를 대체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다.

처음 명부를 받고 보니 일반 전화번호만 있고 휴대폰 번호가 없어서 계속 주야간으로 일반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사전예약도 없이 방문하기로 하고 농장을 무작정 찾아 나섰다. 꼬불꼬불 농로를 지나 한참을 들어가니 인적이 드문 곳에 오래된 농장이 있었고 농장엔 한우가 10마리 정도 있었다.

‘애써 찾아온 보람이 있네’ 라고 안심하려는 순간 바로 옆으로 한 노인께서 다가오더니 “거기 누구요?”하며 경계심 강한 눈빛으로 날 보는 영감님이 한 분이 서 있었다. 어미소도 날 경계하는 눈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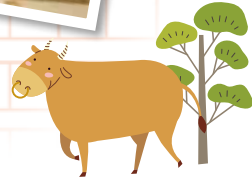
“아... 네, 저는 통계청 직원입니다. 이 농장의 소를 어르신께서 직접 사육하고 계십니까?”

“그렇소만... 무슨 일이요?”

그때부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방문목적과 조사목적, 그리고, 축산물생산 비조사 일계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아, 보소 보소.... 젊은 양반아! 다 늙은 영감이 촌구석에서 소 몇 마리를 키우는 걸 갖고, 이걸 갖고 뭐를 하겠단 말이요? 지금 내가 무식하다고 사기치는 기가? 뭐꼬? 내 고약하다는 소문 안들어봤는가베? 가소 마!!!” 하며 불호령을





내리셨다.

“어르신 오늘은 소 사육을 하시는지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수 일 내에 다시 올테니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전화 통화가 너무 안 되서요...”

“휴대폰 번호는 축협에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알려줘야 하는데 요? 일 없고 함부래 오지 마소!”

나의 예고 없는 방문이 어색하고 싫었겠다 싶어서 일보 후퇴를 결정하고 읍내 축협 사료 담당자를 찾아갔다. 사료담당자에게 그 사장님 잘 아시냐고 물었더니

“아, 그 영감님 만나보셨나요? 성격 장난 아니시죠? 낫선 사람이 자기 농장을 오면 그렇게 호통을 치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축협에 와서는 저희들한테 친절하게 잘 해 주십니다. 인정도 많으시구요. 하하하!!! 호된 신고식 하셨나 보네요.”

“휴대폰 번호 진짜 안 알려주시나요?”

“네. 휴대폰 번호를 저희 직원한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하하!!!”



그래!! 그래야 삽이지

25년의 현장조사 경험이 있는 나는 젊은 축협직원에게 친절하게 잘해주신다는 말에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열은 안도감을 안고 그렇게 노을 진 면 산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 후 며칠 뒤, “어르신 또 왔습니다. 엇그제 축협에 들렀다가 사료 담당하는 직원이 어르신께서는 성품은 강직하지만 인정 많고 아주 아주 좋으신 분이어서 앞으로 잘 도와주실꺼라고 카던데요. 하하하하하!!!!”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난 평소의 나답지 않는 너스레에 혹여나 연기가 좀 부족했나? 진심이 부족했나? 이런 저런 걱정을 잠시 할 무렵 “뭐시라고요? 말도 아닌 소릴하고 있네 그 양반이 그거 웃기는 양반아이가...” 하면서 실소 같은 미소를 띠우셨다.

“어르신, 축협 직원에게만 잘 해주시지 말고 통계청 직원에게도 잘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축협에 있는 그 젊은 친구는 참 싹싹하다 아니가?”라고 말씀하시자 마자 “어르신 저도 얼마나 싹싹한데요. 앞으로 계속 봐 주십시오. 자꾸 보다보면 이 친구 이거 진짜 싹싹하네 보통 싹싹한게 아니네... 아~ 내가 첨에 와 그랬을꼬? 하실겁니다. 하하하~~!!”

재차 너스레를 떨었더니 꺄꺄꺄 웃으면서 “그래, 도대체 나한테 뭐 해달란 말이고?” 하신다.

그렇게 나의 뻔뻔함에 걸려들어서 축산물 보조조사표를 작성해 주시기 시작했다. 매번 만날 때 마다 “아이고마 내가 한 두 번만 적어준다했지 계속 자꾸 이라끼가? 그 공책(보조 조사표) 그거 찢어뿌야 안 오겠네... 확 마 불태워빼야



안오겠네…” 하시면서도 계속 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적어 주셨다.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셨었지만, 늘 애쓰시는 필체며, 한문으로 휘갈겨 놓으셔서 나를 한참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나름 빼곡이 적어놓는 보드판에서 어르신들의 철저하고 꼼꼼함을 보는 재미 또한 쏠쏠했다. 나를 아랫목에 끌어 앉히시고는 커피도 주시고 직접 농사지으신 단감도 깎아 주신다. 열손가락 손톱 밑 가득 검은 때 테두리를 한 손으로 정성스레 단감을 깎아 주신다.

그 맛이 달콤 짭짤한데 난 그저 맛 좋다며 입이 터지게 밀어 넣는다.



평생 아물지 않을 촌로의 상처

그렇게 하루하루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하던 어느 늦 겨울날, 농장을 방문했다가 가슴이 쿵쾅거리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농장 주위에 경찰과 군인들이 왔다갔다하고 있었으며 입구에 ‘접근금지 수사중 POLICE LINE’이란 팻말과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막았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농장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니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말만 듣고 난 노부부의 안녕을 확인도 못 한 채 조금한 마음으로 한달음에 관할 면사무소를 달려가 물었더니 농장 바로 앞에서 군인이 어린 자식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식만 죽고 아버지는 살았으나 아들 시신을 버리고 도주를 해서 인근을 군관 합동으로 수색중이라는 말을 듣고 어르신 가족이 해를 입은 건 아니구나 싶어서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다시 방문한 날 다짜고짜 “김 주사! 니 앞으로 절대 오지 마라. 알구나? 다시는 오지 마라!”며 역정을 엄청나게 내셨다. 바로 그때 단감농사

를 짓는 이웃분이 찾아와서 안부를 걱정하며 대화하는 소리를 무심히 듣게 되었고, 허망한 충격과 상처로 얼룩져 동공이 마치 지진 난 것 마냥 흔들리는 어르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다 화가 좀 가라앉고 진정이 되셨는지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날 낮에 흰색차가 소 마굿간 앞에 있길래 김 주사가 왔나 생각했는데 이게 뭘 날벼락 같은 일이고… 김 주사야, 니 이 사진 한 번 봐 봐라. 당신 차하고 똑같다 아니가? 내가 이거보고 당신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줄 아나??”

정말이지 나랑 같은 흰색 SUV차였다. 그러시면서 그때부터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자살의 계획은 매우 용의주도했는데 착화탄을 실내에 피워 자살을 시도했고 혹시 자살시도가 실패로 돌아갈까봐 2차로 엔진 밑 바퀴쪽으로도 착화탄을 피워 차를 불태울 계획이었다고 했다. 한 겨울 추사 안 밖에는 바싹 마른 짚단들로 가득했고, 난방기구며 보온을 위한 이중, 삼중 덮개들로 추사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 계획대로 차에 불이 났다면 사람도 소도 꿈쩍없이 다 타죽을 게 뻔했다는 말을 하며 그 상상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몸을 부들부들 떠셨다.

어르신께서는 왜 하필 여기까지 들어와서 그랬는지? 왜 어린 자식은 죽고 자기는 살아서 도망쳤는가에 대한 분노가 컸고 혹시 사건의 주인공이 잠시나마 나인줄만 알고 그렇게 놀라다 못해 화가 나신 것이었다.

어르신께서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농장 근처에 웬스나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여러 번 관할 면사무소에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작년 추석 무렵에 사위가 외진 곳이라 위험할까봐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과학수사대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때 어르신도 옆에서 봤는데 끔찍해서 차마 눈뜨고 못 볼 장면을 보고 말았다 했다. 차에서 내려 세살짜리 죽은 아들을 앉고 오열하고 이내 시체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비정하고 어리석은 아버지 모습을...



어슴프레 내려 앉는 어둠의 끝

“오지 마라 제발, 당신 차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내 명줄 땡기고 싶나? 제발 오지 마라.”

눈두덩이가 며칠새 폭 꺼지고 핏발 선 어르신의 윽조림에 나도 모르게 말없이 뒷걸음을 치게 되었다.

이후 “어르신~ 어르신~”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 봐도 차갑디 차가운 무관심과 점금금지... 예전처럼 화내시고 방에 들어오나, 커피 무라... 이 말들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었다.

그 길을 수도 없이 허탕치고 돌아왔고, 그래서 응답불응으로 대체신청을 할 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었지만 아마도 내 마음 속에는 일을 떠나서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그 인연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농장에 가니 봄비를 맞으면서도 축사 일을 하시는 어르신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비오는 날 뭐하러 또 왔노? 인자 그만하고 안 올 때도 되었을텐데… 참 요령 없는 사람이네. 비 그만 맞고 인자 들어가자.”

그렇게 다시금 그때 그 방으로 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또 어르신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런 저런 많은 얘기도 나누었다.

“주말 밖에 집에 못 간다 했제? 주말에 집에 가면 두 딸들이 좋아하긔네”라고 말할 때 “애들 사춘기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 어찌면 좋은 아빠로 여겨지지 않을 줄 모릅니다.”라고 하니 “함부래 그런 생각 마라. 니 잘못 아니다. 집에 가서 언제 제대로 힘들 때 힘들다꼬 말이나 해봤나?”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가슴이 먹먹한 적도 있었다.



꼭 한번 다시 온나

무엇보다 그 사건 이후, 이 깊은 산 속 농장까지 가로등도 밝혀졌다.

최고의 폭염을 기록한 긴긴 여름의 끝자락에 지금의 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그래서 아쉽게도 업무인계를 위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었다.

어르신이 미간을 찌푸리며 서운함을 표현하시더니 이내, “집 가서 좋겠다, 따신밥 묵고 다녀 좋겠다”며 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곤 새로 담당하게 된 직원에게 평소 생각하시는 정부에 대한 생각, 축산 농가의 현실과 지원책을 거침없이 풀어놓으심에 역시 우리 어르신의 건재함과 팔십인생의 내공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왠지 걱정을 드는 기분이라 다행스럽기까지 했다.





어르신은 지그시 눈 감으시고 말씀해 주셨다.

“김주사, 꼭 한 번 다시 온나. 가을 한창일 때 겨울 오기 전 꼭 한 번 다시 온나.”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 속으로 뭔가가 올라오는 걸 꺽꾩 참았다. 축산물생산 비조사로 이어진 어르신과의 인연, 다른 업무에서 접하지 못했을 참 귀한 인연, 이권이 있는 기관과 사람들에게도 노출하지 않았던 휴대폰 번호까지 공유 해주신 각별함, 그리고 나를 고스란히 내려놓고 정으로 건네는 음식을 마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위를 가지게 된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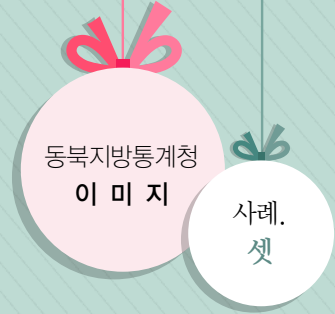
검고 고운 어르신의 손으로 타주신 어르신의 커피가 점점 더 많이도 그리워진다. 그때 그 커피 맛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로 커피였고 단맛, 쓴맛, 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명품 인생커피였다고 여겨진다.

제목은 단맛, 쓴맛, 신맛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통계조사 현장 속에도 그런 맛들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은 상



동북지방통계청
이 미 지

사례.
셋

나 임마! 오늘도 존버!

뜨거웠던 작년 여름, 드디어 바라고 바랐던 통계청의 일원이 되었다.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 하셨던 건 의사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아버지였다.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애가~ 딸들~ 하나여~ 맞지?”라고 엄마에게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셔서 저렇게 뜨문뜨문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건지는 알 수 있었다.

“공무원이 된 건 애가 딸들 중 유일이여~ 맞잖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공무원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셨는데 그 소원을 너무 늦게 들어드린 것 같아 마음 한 편으로 죄송하면서도 늦은 만큼 더욱 효도하며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





지 않으리라! 무조건 잘 버티리라! 그렇게 두 가지 다짐을 하며 난 통계인으로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악!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잘 버텼는데! 맏소사 결국 첫 번째 다짐이 무너졌다.



내겐 너무 짧았던 농어업통계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작물조사가 한창이던 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 출근을 하였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 다음날부터 바로 작물조사를 위해 정신없이 돌아다녔다. 선배와 함께 조사구에 도착해 차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눈앞에 목줄 없는 개떼들이 득실득실! 평소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이진 강아지가 아니다. 강아지라고 귀엽게 표현할 수 없었다. 개다. 그냥 너무 무서운 개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금방이라도 다리를 물어뜯을 것 같은 그 사나움에 난 기가 죽고 말았다. 선배가 하는 설명을 듣긴 들어야겠고 개는 달려들 틈만 노리고 있고,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 어찌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던지. 다행히 그때 선배가 노련하게 대처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었다. 다음부터 혼자 조사를 나와야 하는데 어찌면 좋담. 그러나 그런 걱정은 쓸데 없는 걱정이 되었다.

사무소 인력재배치로 인해 두 달 만에 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역시 여자라면 사회통계팀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내겐 너무 짧았던 농어업통계팀의 추억을 뒤로 하고 그렇게 난 사회통계팀이 되었다.



농어업통계팀의 업무를 고작 두 달 밖에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진 집에 가서 힘들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사실 왜 힘이 들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농가라고 해도 예전 같지 않은 인심에 냉담한 분들도 많았고, 뜨거운 해를 온 몸으로 받으며 작물조사를 다녀야 했고, 개떼들과 마주해야 했고, 여러 모로 힘든 점은 많았다. 그러나 몸이 힘들었지 마음이 힘들진 않았다. 그래서 비록 힘은 들었지만 부모님에게 힘들다 소리를 하지 않겠다던 첫 번째 다짐을 잘 지키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이 무너진 건 사회통계팀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였다.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잘 참았는데 결국 두 달 만에 무너지다니... 스스로에게 실망이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통계인으로 머물러 있는지 그동안 날 울고 웃겼던 응답자와의 일화를 함께하고자 한다.



응답자 간담회가 만들어준 뜻밖의 불응설득

팀을 옮겨 업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말로만 듣던 가계지출조사를 나가게 되었다. 행운의 아이콘 팀장님과 함께 해서였는지 성과가 좋았다. 첫날 하루 만에 다섯 집을 설득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밤늦게까지 기다려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고, 만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은 싸늘하기만 했다.

“아무리 돌아다녀봐요. 여기 사람들이 해줄 것 같아요? 헛고생 말고 가세요.”

“아, 어머니 그래도 이미 많은 분들이 조사 협조를 약속해 주셨고, 저희도 표본 안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을 확~닫고 들어가 버리는 가구, 그 이후 몇 번을 방문 드렸으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처음 하는 가계지출조



사여서 난 꼭 10집을 모두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말이며 밤이며 할 것 없이 조사구에서 사람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9가구 정도 설득이 되었을 시기에 사무실에서 응답자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난 나에게 배정된 응답자분들을 모시고 행사 장소로 이동했다. 도착하여 차에서 내렸는데, 팀장님께서 부르셨다.

“OO씨~ 이리로 와 봐! 내가 선물 줄게!”

“네? 선물이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 팀장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향했고, 그 앞에는 멋쩍게 한 분이 서 계셨다. 바로 가게지출 설득 당시 불응을 하셨던 분 중 한 분이셨다. 이 분이 왜 여기에 계시지? 알고 보니 친구 분이 놀러가자고 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그게 바로 통계청 응답자 간담회였던 것이다. 팀장님 차를 타고 이동하신 그 분은 본인이 얼마 전 통계청 조사 거절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 그때 방문한 직원이 있어서 너무 놀랐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팀장님은 그 직원이 나인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내게 기쁜 선물을 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응답자 간담회에서 다시 만난 그분은 멋쩍게 이야기 하셨다.

“그때 그렇게 거절해서 미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님~. 안 그래도 다시 찾아봐줘 했는데 이렇게 뵈게 되다니 이걸 필히 어머님이 가게부를 써주실 운명이셨나 봐요! 그럼 이제 가게부 써 주시는 거 맞지요?!”

“그래요, 자신 없지만 한번 써 볼게요~.”

그렇게 난 응답자 간담회 덕분에 의도치 않은 불응 설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10집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울며 소리를 지르다

뜻밖의 불응 설득으로 인해 그렇게 채워지지 않을 것 같던 10가구를 모두 채우고, 금요일 퇴근 후 그동안 조사 설득으로 인해 가지 못한 고향집을 향해서 룰루랄라~ 신나게 달리던 중이었다. 출발한 지 1시간 쯤 지났을 때였을까?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빠서 가계부 못 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설득 당시부터 조마조마 했던 가구에서 온 문자였다. 운전 중이라 바로 답문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떻게 다시 설득을 해야 하지? 뭐라고 말씀 드려야 다시 마음을 돌리실까?’ 문자를 받고 난 후 답문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걱정하다가 결국 난 길을 잘못 들어 서울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말았다. 온통 차로 가득한 서울 한복판으로 진입한 탓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조사 대상가구의 마음을 돌려볼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대상가구의 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다. 뭐가 이렇게 내 맘 같지 않은지... 속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서울 한복판 차 안에서 울며 소리를 짹! 질렀다. 그래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그 한통의 메시지로 인해 난 그 이후로도 2번의 길을 잘못 들어 원래 목적지인 대전에 도착하는데 6시간이나 걸리고 말았다. 다음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틈도 없이 급하게 인사를 하고 불응설득을 위해 다시 조사구로 향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더 이상 대체할 표본도 시간도 남아있질 않았다. 그렇게 난 첫 가계지출조사를 결국 9가구로 씩씩하게 마무리해야했다.



이모한테 써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 000입니다. 통계조사차 방문 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요~! 이거 왜 뭐 꼭 해야 돼요?”

“네 어머니~. 저희는 정해진 표본가구 안에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표본가구가신 어머니님 맥을 꼭 조사해야 해요. 그러니 꼭 좀 참여해 주세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어디 있어! 본인들이 마음대로 표본 뽑아놓고 왜 의무 인 것처럼 난리야! 민주주의 국가에 내가 내 마음대로 거절도 못 해?!”

이럴 땐 방도가 없다. 일단 말씀이 끝날 때 까지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한참 화를 내시던 어머니님 잠잠해 지셨다. 그 틈을 타서 다시 말씀을 드렸다.

“맞아요. 어머니님. 민주주의 국가인데 말이죠~ 그쵸? 그런데 어머니~ 저희도 하시겠다는 분들만 조사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만 정해진 표본 내에서 조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다시 한 번 만 생각해주세요. 네? 제발요~”

“대체 뭘 조사가 그래~ 참나, 일단 들어와 봐요.”

그 순간 속으로 아싸! 설득되었다 싶었다. 그러나 더 난감한 질문 들이 이어졌다.

“아니, 이거 내가 물건들을 사고 도 안 샀다고 했어. 그러면 어쩔 거 야?”



“네? 어머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신다 해도 어머님이 사실대로 잘 써주셨겠거나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어머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만약 이름이랑 번호를 안 알려줘, 그럼 그쪽 이모한테 가서 나 인척 가계부 써달라고 하면? 그럼 되잖아. 가서 그냥 이모한테 써달라고 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네? 아이고 그랬다간 큰일 나요! 저 쇠고랑 차요. 나름 어렵게 공부해서 취직한 건데~ 그리고 저 심장 떨려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아~~안 돼! 안 돼!~ 상상만 해도 심장 떨리네. 저 직장에서 쫓겨나기 싫어요. 어머님~.”

그 순간 대화 내내 매섭게 찌러보시던 어머님 눈이 반달이 되셨다. 내가 너무 오버를 해서 답변을 드린 탓에 웃음이 나왔나보다.

“그러니깐 제 이모 말고 대상자이신 어머니가 꼭 써주셔야 돼요. 써주실 거죠?”

“아 몰라요. 일단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요~”

그날은 할 수 없이 그렇게 발길을 돌려야 했고 다음 주가 되어 다시 방문 연락을 드렸다.

“오려면 지금 당장 와야 해요. 나 지금 나갈 거예요.”

“언제 외출 예정이세요? 지금 바로 출발해도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요~.”

“그럼 안 되겠네. 다음에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찾아뵙다고 해서 가계부를 써주시리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이대로 전화를 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계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기로 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머님~ 제가 조사 대상자 명부를 확정지어야 돼서요. 그럼 그냥 시원하게~ 가계부 딱 한 달만 써주세요~?! 네?!”



과연 뭐라고 하실지... 거절하시면 어쩌나 가슴이 두근두근 대서 혼났다.

“아~ 참나, 알겠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고, 일단 바쁘니깐 이만 끊어요.”

“앗! 진짜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가계부 들고 찾아뵙게요~!”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왔고, 난 종이가방에 선물과 가계부 등을 담아서 전달 드렸다. 종이가방 안에 가계부와 함께 담겨있던 물건들을 확인하시고는 매서웠던 어머님의 눈이 또 한 번 반달이 되셨다.



천연세제, 가계부, 풀, 볼펜을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귀를 붙인 종이가방에 담아 10가구 모두에게 전달 드렸다.

가계지출조사를 하다보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것 같다. 가계부를 대상 가구에 어떻게 드려야 그나마 기분 좋게 받아 주실지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종이가방이었다. 통계청 전용 종이가방에 ‘가계지출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뽑아서 붙이고 그 안에 가계부, 풀, 볼펜, 그리고 준비해둔 선물 등을 함께 넣어서 가계부를 마치 하나의 선물세트처럼 안겨드리는 것이다. 다행히 종이가방을 받은 대상가구들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매우 좋아하셨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좋은 가계부 전달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이다.



어서오세요 애기 손생님~

응답 가구 중 나를 애기 손생님(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사실 이 나이에 애기라니... 다소 민망하긴 하지만 할머니께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젠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

처음엔 나도 할머니께 다른 가구에 하듯 습관적으로 어머니~ 라고 했었다. 그랬다가 할머니께 엄청 혼이 났다.

“뻑! 어머니가 뭐야, 어머니야! 할머니라고 그케야지!”

“네? 아~ 네 죄송해요. 할머니~”

“그래~ 그케야지요. 그래야 착하지요~ 애기 손생님~”

그렇게 난 할머니의 애기 손생님이 되었다.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그런 할머니의 가계소득 조사를 할 때면 마음이 아프다.

“애기 손생님~ 나 이것 좀 봐 줘~ 통장인데 이게 얼마가 있는 거야 지금?”

통장을 보는 순간 울컥했다. 통장엔 단돈 570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할머니~ 음... 57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으잉? 570원? 언제 그렇게 돈이 다 빠져 나간거야?”

“그러게요. 겨울이라 그런지 공과금도 많이 나가고 그랬네요.”

“그래? 아... 그래도 애기 손생님이 상품권 줘서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손생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께 조사 답례품 외에는 금전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었다. 할머니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문하면, 직접 만드신 매실차를 내어 주시고, 배고프겠다며 라면을 끓여 주시고, 겨울엔 추울까봐 장갑도 내어주신다. 항상 그렇게 먼



저 마음을 써주시곤 한다. 그래서 나도 할머니 댁에 방문할 때에는 웬만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날도 라면과 딸기를 사가지고 할머니 댁을 방문했던 날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오세요. 애기 스승님~!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나 애기 스승님 엄청 기다렸어.”

무슨 일이 있으셨나 싶던 찰나에 휴대폰을 쓱~ 내미시는 할머니.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다는데 영 전화가 안 와~ 이거 좀 봐 줘~”

확인해 보니 수신차단으로 인해 전화가 오질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던 할머니는 고민만 하고 계신 채 마냥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이다.

그간 할머니께 받기만 하고 마땅히 도와드릴 것이 없어서 속상했는데 그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는 마음 따뜻한 OO조사구 할머니! 모쪼록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불러주세요. ‘어서오세요~ 애기스승님’이라고...



감사한 oo조사구 할머니



겨울에 할머니가
내어주신 장갑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외국인 응답자와 조사를 진행 한지 두 달 정도 되었을 때였다.

“똑똑똑, 계세요?”

안에서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아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조엘?! 저 통계청 직원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임 조엘!”

“지금 집에 와 있는데 없네요? 어디 갔어요?”

“아~ 나 지금 집 없어요. 지금 학교서 제주도 왔어요.”

“그래요? 그럼 같이 사는 파시픽은요? 집에 아무도 없네요?”

“아 파시픽? 음... 몰라요. 집 없어요? 그럼 아마 학교 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가려던 찰나에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누군가 나왔다. 순간, 난 어찌 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나온 사람이 누구지 몰랐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동양인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하듯이 내 눈에도 외국인들이 다 비슷하게 보였다. 지난번 조엘을 만나긴 했으나 조엘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방금 조엘은 분명 제주도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 친구가 아직 본적 없는 파시픽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다.

“음... 파시픽?” 그러나 내 예상은 틀렸다.

“노~ 아임 조엘!”

응? 뭐지? 순간 ‘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할 뻔 했다. 그러나 꼭 참고, 대신 나도 모르게 조엘의 어깨를 한 대 툭 치며 이야기했다.

“에이~ 뭐야~ 지금 제주도라면서~~”



거짓말 한 것이 머쓱했는지 웃음이 터진 조엘도 내 어깨를 한 대 툭 치며~

“아 몰라요~ 미안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웃으며 지난주의 경제활동 상태를 묻는 것으로 그날 조사를 마쳤다. 현재는 원룸이 철거되어 조엘은 이사를 간 상태다. 조엘이 있던 그 조사구는 전·출입이 잦아 나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조사구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때 조엘과의 일화로 인해, 그 조사구에 조사를 나갈 때면 아직도 웃음이 나오곤 한다.



동생 나 잘 했지?

“동생~ 나 방금 통계청에서 조사 나왔어! 막 이것, 저것 묻더니 상품권 만원 주고 갔어! 무슨 조사라고 했는데 그새 까먹었네. 여튼 요새 조사 다니는 거 맞지? 나 뭐 사기당한 거 아니지?”

“그렇게만 듣고는 뭘지 모르겠네~ 지금 기간엔 딱히 하는 거 없는데~.”

“그러? 몰라~ 맞겠지 며. 근데 귀찮아서 죽는 줄 알았네. 너무 상세히 물어봐서 중간에 대답해주기 싫었는데 너 생각나서 꼭 참고 다 말해줬음! 그리고 내가 조사 오신 분 들어오시라고 해서 음료수도 드렸어~ 나 잘했지? 전화하면 사람들이 안 만나 준다고 매번 울더니 아직도 그런 건 아니지? 힘내 동생~ 주말에 집 오면 맛난 거 먹으러 가자!”

“그러~ 잘했네~ 앞으로도 나다~ 생각하고 그렇게 잘 해주셔! 주말에 봐~”

통계조사에 참여했다며 칭찬해달라는 듯 전화한 언니. 내가 만약 통계청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언니 성격에 생년월일을 묻는 순간 바로 반감을 가지고 불응했을 것이다. 통계인의 가족은 그렇다. 본인 가족들 생각

에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 내가 통계청에 들어오기 전까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통계조사를 가볍게 생각했고, 꼭 참여해줘야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내가 통계조사 시 여러 고충들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본 뒤로, 통계조사 참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통계조사에 꼭 참여해줘야한다며 홍보 아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인의 가족은 통계청 최대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다.

이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 같다.



글을 마치며, 오늘도 준비!

통계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웠다. 그런데 통계인이 되고나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통계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들 만나는 게 썩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마주하기 싫어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도 했다. 언젠가 나에게 불응 대상자로 다가와 나를 마음 좋게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차가운 언어에, 반대로 너무 뜨거운 언어에 의해, 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으로 인해 그동안 마음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통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던 이유는 간혹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응답자', '어려움에도 먼저 남을 위해 본인 것을 내어주시는 감사한 응답자', '영똥한 거짓말로 웃게 했던 응답자' 등 힘든 시간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준 응답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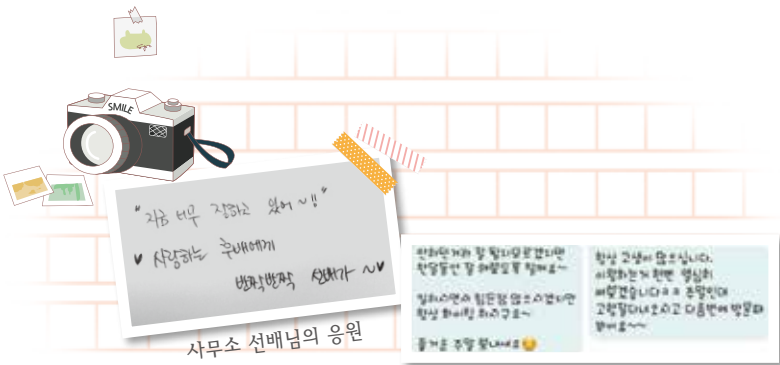
그리고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들과, 나보다 더 오랜 기간 마음에 상처가 쌓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친 후배를 먼저 다독여주는 사무소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힘들다 말하지 않겠다면 첫 번째 다짐은 무너뜨렸지만 잘 버티겠다는 두 번째 다짐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 솔직히 앞으로는 어떠한 반응들이 나올지 모를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조사주장이 다가오는 것이 여전히 두렵다. 그렇지만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잘 버티 볼 생각이다. 하루하루 버티다보면 언젠가 나도 지금의 선배들처럼 나와 같은 후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선배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를 꿈꾸며 오늘도 난 이외수 선생의 책을 읽은 뒤 나의 인생 모토가 된 단어를 외치며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끝까지 버티는 힘, 준비정신! 나 임마! 오늘도 준비*!’

*준비의 두 가지 뜻 :

- 어린인들이 물을 땀 -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는 뜻
- 어른들이 물을 땀 -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OOO 버티자는 뜻입니다.



이렇게 응답자들이 답이라도 주면 감사하다



등 상

호남지방통계청
김 효 선

사례.
넷

내 마음의 문을 열고 Go Go~



재취업의 설렘

“조사지원과입니다. ○○○님 맞나요?”

요즘엔 불합격을 해도 연락을 주나... 위로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아... 네에~ 선생님.”

한껏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부서에 합격하셨습니다.”

“네? 제가요...?”

봄 햇살이 따사롭기만 했던 '18년 5월, 대전에서 살다가 남편의 ○○발령으로 1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던 참에,





호남지방통계청 ○○○ 공개채용 공고를 보았다.
 통계청 임시조사원으로 일할 때의 기억이 났다.
 대상처에 방문할 때마다 웃으며 반갑게 맞아
 주던 어르신들이 생각나서 꿈을 꾸듯 면접
 을 보았었다. 간절히 원했던 합격이라는
 말을 막상 들으니 말문이 막히고 겁이
 났다.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찌지?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입고 나갈 옷도 없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하지? 신발도, 가방도...’

둘째를 임신하면서 경단녀*가 된 지 8년 만의 재취업이었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 결혼과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 된 여성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10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 두
 고 전업 주부가 되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육아보다 일 하는
 것이 쉽다는 어른들의 말대로 육아는 전쟁이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며 아이
 들이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부터 사회로 나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커져갔다.

때마침 통계청에서 임시조사원을 뽑는다는 것을 알았다.

임시조사원은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경제통계통합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사회조사, 농림어업조사, 유아사교육비시범조사, 나와 같은 처지의
 분들을 만나는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실태조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체조
 사, 인총, 경총 등 3년 동안 응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조사는 가리지 않고
 참여를 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통계조
 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사를 하며 육아의 스트레스 역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 풀리기도 했다.

아름다워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이들이라는 제약에 어떤 일도 선뜻 도전하지 못하며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통계청이 너무나도 좋았다. 통계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무렵 찾아 온 공무원직은 너무도 원했던 일이다. 그렇게 하고픈 일인데도 막상 출근을 앞두니 다시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소풍 가는 아이마냥 잠도 못자고 뒤척이다 두근거리는 맘을 진정시키지도 못한 채, 첫 출근 날 사방사방 원피스를 예쁘게 차려입고 갔다.

첫날이니 인사를 하고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게 하라는 생각에 몇 년 만에 차려입었는데 바로 현장조사 인수 차 현장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농가경제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농가경제조사가 뭐 지도 모르는 채 현장 인수라니….

‘그래!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현장조사는 내 전문인데~ 출동이다!’

정신없이 조사구를 돌며 조사하는 것을 보니 만만하게 느껴졌다. 전임자는 농사를 어떻게 지으며 무얼 수확하셨고 무얼 심으셨는지 묻고 있었다.

‘시골 이야기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어려울 게 없겠지….’

지금 와 생각해보니 아는 게 없으니 어려울 것도 없게 느꼈던 것 같다. 첫날은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퇴근하여 꿀잠까지 잤다.

“이번 달에 00 심으셨어요?”

“어, 쪼까 심었어.”



“00는 수확 하셨구요?”

“어, 짝까밖에 못 캐어.”

“그게 몇 키로나 될까요?”

“아따 우리 묵을 만큼 짝까여.”

“농약은요?”

“거시기 좀 뿌렸제~.”

간단한 질문에 더 간단한 답변을 받아왔는데 자료를 정리한다는 것은 조사 시스템에 농사를 짓는 것과도 같았다. 농사를 한 달만 짓는 게 아닌 것처럼 시스템에도 1월부터 작물을 심고 거름을 주고 농약도 치고 수확을 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며 1년 농사를 지어야 했다.

조사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짝까’부터 해결해야 했다.

‘짝까’를 숫자화하기 위해 대상처의 어머님들께 짝까에 대해 물어보면 ‘뭘, 그런 거까지 물어보냐’며 역정을 내셨다. 짝까를 도대체 어찌 해결해야 되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통계조사는 알면 알수록 어렵고 하면 할수록 헛갈린다더니 내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던 것이다.

그동안 일회적 조사만 했던 나는 농가경제조사 일지 한 줄을 정리하기 위해 1월분 일지부터 뒤져봐야 조금 이해가 났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다.

“일 년은 해봐야 아~ 하게 되는 거야. 급하게 생각 하지 마. 농사 1년 지을 것도 아니고 ”

선배님들의 조언이 조금은 힘이 되었다. 초보 농사꾼이 수확부터 하려했으니 너무 자만을 한 것이다. 귀농한 분들의 좌절감이 나와 같을 것만 같았다. 하나부터 배워야 하는데 수확부터 해서 맛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조급함이 일을 더 어렵게 했다.



첫 번째 시련

두 번째 담당 지역은 ○○이다. ○○은 시작도 전에 곡소리가 나왔다. ○○에서 ○○까지 왕복 두 시간이 걸렸다. 더욱이 폭염 속에 운전은 쉽지 않았다.

운전이 왕복 두 시간인데 왔을 때 꼭 만나 봐야 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다. 거기에 전임자가 인수 받을 때 또 바뀌느냐며 한소리씩 하셨다는 말에 인사드리러 다니는 발걸음까지 무거웠다.

거리가 먼만큼 조사자 마음도 멀리 있는 것일까. 일 년 인줄 알고 시작했으며 일 년만 하겠다는 딸기농가, 축산물생산비조사 대상처인데 다른 작물도 많이 재배하셔서 바쁘신 아버님, 표본 대체되어 이제 조사를 시작한 축산농가, 조사에 가장 비협조적인 40대 후반의 경영주는 만나 뵙지도 못했다.

정신이 멍해질 무렵 만난 000님은 농협을 다니며 논벼를 재배하는 농산물 생산비 농가였다. 겸업으로 농사를 짓는 경영주는 50대로 젊은 분이였다.

‘일하는데 찾아왔다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조사에 대해 불만이 있진 않을까? 정부에 대한 반감은 없을까? 담당자가 또 바뀌었다고 소리 지르지 않으려는지…….’

그것은 나만의 기우였던가?



온갖 걱정들을 안고 마주한 경영주님은 더운데 들어가자며 마트로 안내해주었다. 시골이라 마트가 제일 시원하다며 음료수 코너에서 음료를 권해주는데 오늘 하루 어깨에 쌓아둔 무거운 부담거리들이 툭툭 떨어져나가는 듯 했다. 옷



으며 반겨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을 터인데 멀리까지 와서 고생이라며 내밀어준 음료가 그리 시원할 수가 없었다. 담당자가 바뀐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전임자에게도 웃음으로 인사해 주고 잘 몰라서 많이 여쭙겠다는 나에게도 웃음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다른 일지와 다르게 손 댄 곳이 하나 없어 보이는 일지까지 내어주는데 너무 감사했다.

잘 정리된 일지부터 정리하면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돌아오자마자 일지정리를 시작했다. ‘옳게 적기’만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일지에 또 한 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끝낸 후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가 칭찬을 기대하듯 주위 선배님들께 보여드렸다.

“그래,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너무 뿌듯하고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밀려오는 저 너머로 “그런데 모를 이번 달만 심으셨어? 지난 달은? 재배 경지가 적네.”

원부에는 두 군데 경지가 논으로 되어 있어서 논벼 생산비 대상처인데 기입한 것을 보니 진짜 지목이 한 곳만 기입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면 경작지 미달로 표본을 대체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7월에 모를 심지는 않을 것이고 혹시 빠트린 건 아닐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벼 대체 작물을 심으면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해서 콩을 심었습니다.”



이제 알에서 나온 병아리가 걷는 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날아가야만 하는 일이 생겨버렸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시작한 나에게 단비와도 같던 대상처였는데 눈앞이 깜깜해졌다.



고난이 유익이다 (전화위복)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라고 그런가 보다. 이번에 대체하면 조사 맥락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어.”

2018년 표본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농가를 설득하면서 농가의 경작 토지를 지목별로 조사하고 로터리, 로우더, 이앙기 등 이름도 생소한 농기구들까지 농사에 필요한 농가의 모든 것을 조사한 선배님들은 정말 대단하기만 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영혼 없는 눈으로 대체 명단만 바라보고만 있는데 그게 잔해보였는지 선배님들이 지나가면서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주었다.

선배님의 노하우로 질문지를 만들고 대체 농가의 위치를 파악하니 첫 번째 농가는 읍내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사업체가 있으니 면접은 할 수 있겠구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에 있는 통계청입니다. 저희는 벼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를 찾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00님 벼농사를 지으시나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 그 대답에 어떤 말을 할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농사짓기가 힘들어 나무를 심으셨단다. 탈락이다. 조금 진정된 마음으로 두 번째 농가에 통화를 시도했다. 전화를 받은 분은 어머님이었다. 농사는 짓는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아버님이 계셔야 알 수 있다고 한다. 병원에 가서 오후에 온다고 하는데 조심히 여쭙었다.



“그러면 방문해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라는 답을 주신 어머니.

그렇게 격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선배님들 덕에 빠르게 대체 가구를 잡고 설득하러 가는 길. 오미자가 여러 맛이 있듯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곡성을 향했던 그 시간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는다.

“어머니, 아버님! 통제청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주무시는 것이었다. 첫 대면인데 문을 열고 들어 갈 수는 없고 마당에 앉아있다 다시 불러본다. 기척도 없이 곧히 주무신다. 기다려야지 어찌겠나... 기다리는 동안 마당에 쌓여져 있는 농약과 비료들을 적어두고 사진도 찍으며 한 시간여를 보내고 다시 불러보았다. 어머니의 기척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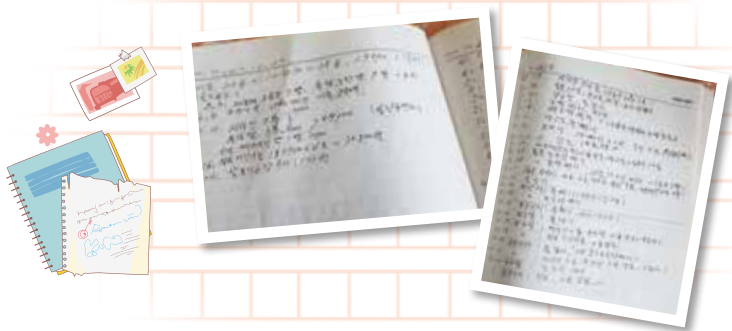
“어머니, 어머니!”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주무셨다는 어머니께서는 아버님이 깰까봐 더운 마당에서 땀을 닦아가며 조사에 응답을 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기본적인 조사는 얼추 했으나 농지 지변을 모른다고 아버님과 저녁에 통화해 보란다.

‘세 번째 대체 농가를 갈까... 어머니 말씀을 믿어야하나... 그래, 다시 오더라도 조사해 주기로 한 어머니를 믿자.’

퇴근도 미루고 아버님이 일어날 저녁시간에 맞추어 전화를 했다.

모든 분들의 걱정과 격려 덕분이었을까? 기존 대상처보다 더 꼼꼼한 아버님을 만나게 되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일지를 쓴다는 아버님은 공과금 영수증도 5년 동안은 모아둔다며 보여주었다. 대체농가도 1월부터 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감에 여기 저기 도움을 받아 조사 질문지까지 만들어갔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나의 감탄에 기분이 좋아진 아버님께서 이번 달은 농약 한 병, 한 병의 가격까지 따로 기입을 해주셨다.

“통계청이 어디 있을까?”

“아버지 시청 아세요? 거기 뒤에 있어요.”

“그믐 000추어탕 가봤어?”

“가봤죠. 사장님도 젊고 장사 겁나 잘 돼요. 주차할 자리가 없는데.”

“거가 우리 둘째여. 흐흐~”

“진짜요? 거기 잼피가루가 향이 겁나 좋은디요.”

“내가 국산만 쓰라 했어. 공계 향이 좋제. 내가 여기서 구해서 뽀사가꼬 보내는 거여.”

자녀분들, 손자들 사진까지 다 보여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체는 고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맘을 열어주고 정확한 자료까지



주는 어르신. 오히려 매달 찾아오는 걸 감사하다고 하는 아버님 어머니를 보며 나의 선입견으로 곡성을 멀고 먼 곳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하게 됐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Go Go~

매달 곡성과 담양의 18농가의 어르신을 만나고 있다.

일 년만 하겠다던 딸기 농가의 어머니께서는 사업을 실패하고 귀농하여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다. 가족의 빚보증으로 생긴 대출 액수까지 알려주며, 내년 봄에는 딸기 하우스로 찾아오라며 딸기잼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다.

무섭기만 했던 40대 후반의 축비농가의 경영주와는 우연찮게 낚시 이야기로 낮가림을 해결했다.

“낚시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신랑도 저번 주에 돌문어 잡아왔는데...”

“어디로 갔다요?”

“여수에서 배타고 가서 잡았는데 잘아도 많이 잡아서 잔치했어요.”

“나도 주말에 여수로 간디~ 지금이 잘아도 부드럽고 맛 나~.”

중학생 막내가 있는 어머니과는 어머니가 아닌 언니라고 불려야겠다고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다른 작물도 많이 경작하는 축산물 생산비조사 농가 아버님은 항상 “나 바빠~ 아고 나도 몰라~” 노래를 불렀다. 읍이며 남원이며 타 지역에 가셨을 때 마다 “바쁘시죠? 또 올게요~”하며 아버님을 이해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더



운 날 멀리서 오는 내가 짬해지셨는지 드디어 자료를 챙겨 주신다.

본인도 모르겠하던 자료는 축협에서 일하는 아드님을 소개해줘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석이조로 축협의 다른 자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보다 더 해맑은 미소로 기다려주는 아버님도 계시고, 더운 날 고생한다며 밥상까지 차려주는 어머님도 계신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이미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했구나!’

나는 조사에만 급급했고 자료에만 치중을 했었는데 그 분들은 나를 또 깨닫게 한다.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정[情]은 통계조사보다 더 큰 것이었다. 내가 위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오는 것을 느낀다.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상처 어르신들을 만나면 아무리 어려운 조사라 해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쌓아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지역 사회의 많은 분들과 정[情]도 쌓아가는 통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1등 상

경인지방통계청
임 미 선

사례.
다섯



나의 포지션은 통계 센터!

2월 업무 순환으로 몇 년 만에 가구 업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어떤 조사 업무가 주어지든지, 어떤 조사 대상을 만나든지,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는 나지만 주변 동료들 또한 베테랑임을 잘 아는지라~.

“사회조사가 점점 힘들어 진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위축이 드는 건 어찌지 못하겠다. 내가 담당하는 지역은
☆☆☆회사 주변에 고학력자가 밀집하고 있는 원룸, 대학 선호도
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000대학교 인근으로 외국인
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및 원룸주택이다. 전
에 가구 업무를 했던 기억을 총 동원해
지침서를 읽고 숙지 완료!!

현장조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야기보따리 하나!

☆☆☆회사 주변의 원룸은 주인 가구를 제외하고 낮 시간에 응답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과 같으니... 응답자와의 만남 자체가 첫 번째 커다란 관문이다. 시간을 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먼저 방문하는 날짜를 미리 문자로 보내고 가능한 날짜를 답장으로 받으면 다시 방문 시간을 정해 방문을 시작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있는 5월, 8월 그리고 조사 필수품이 나오는 달이면 핸드폰 문자에 불이 난다.

문자 하나 하나 세심히 챙겨 약속시간을 잡고 조사하러 출발~!

아이고! 언제 오시려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시간이 돼도 안 오신다. 그럼 심중팔구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 회살이 내게 마구 쏟아진다. 나를 만나 조사에 응답해주는 것보다 회사일이 먼저인 걸 너무도 잘 알면서도 잔뜩 낀 구름이 내 시야를 가리듯 허탈해지고 힘이 빠진다.

다시 약속 시간을 잡고 재방문하기를 여러 날.

저기 오시네~~ 드디어 조사 대상 가구주 등장!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반갑다. “안녕하세요. 응답자님!”

응답자들과 계속된 만남으로 친숙해질 무렵 ☆☆☆회사 인사이드동으로 고향력 원룸 조사구의 이사가 시작됐고 빈 집이 많이 생겼다. 주인 세대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세입자들이 이사를 자주 간다고 화를 내시며

“조사 못해요. 집에 방문하지 마세요!”



“조사 필수품 안 주셔도 되니까 오지 마세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회사 인사이동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통계청 때 문이라고 오해를 하신다. 잘 된 것은 내 덕이고 잘못된 것은 통계청 탓이라고. 흑흑!

한 거처는 6번의 전·출입이 발생하여 가구 번호가 2007번, 그런데 또 이사 계획이 있다고 하니 이를 어찌나? 이사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라고 붙잡고 싶다. 주인세대에게 어떻게 설명드리고 설득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현관문에 성당표시가 있는 게 아닌가! 무작정 초인종을 눌렀다.

“통계청 직원 임미선입니다. 너무 목이 마르네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으세요?”

내 목소리엔 상냥함이 가득 담겼다. 집안으로 들어섰다. 1차는 성공! 식탁의 자에 앉으라고 하시며 물을 건네주셨다. 더운 날씨에 주신 물은 꿀맛이다. 시원하게 물을 마시는데 내 손에 낀 목주 반지를 보시고 “성당 다니나보네?” 하신다. “네, 성당 다녀요~” 나는 모른척 하고 “성당 다니세요?”하며 그분과 나만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성당 일을 많이 해 낮에는 집에 자주 없는데 빈 집이 많아 집을 팔아야 하나 의논 중이라며 한숨을 크게 쉬셨다.

“그러게요. 빈 집이 많아 어찌면 좋아요?”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기도라도 해야 하나?”

“그럼 기도드릴까요?”

나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앞으로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줄 인연의 줄을 힘껏 당겼다.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기다리라고 하시며 안방으로 들어 가 기도 책을 가지고 나오셨다. 오~예!!

주인세대 사모님과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동안 기도를 드렸다. 기도에 효력이 있었나? 나의 기도발이 통했나? 아님 간절한 맘이 통했나? 그 다음 달에 방 두 개가 월세로 임대 나갔다.

나는 조사구에 가구주를 만나 신나서 땀 흘리며 쫓아다니고, 내 불펜은 조사표 작성하느라 신나게 땀 흘리며 나를 쫓아 다녔다. 그렇게 잠시의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7월 또 빈 집이 생겼다. 주인세대 사모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 빙그레 웃으시며 “그래, 시간 내서 집에 와” 흔쾌히 응답하신다. 손자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를 사가지고 방문 드렸다. 지난번처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고 빈 집에 학생이 8월에 이사를 왔다. 그 후로 주인세대 사모님과 나는 기도 친구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대화의 실격자요, 인생의 실격자라고 한다.

“지하가 이사 간데, 또 기도해 줄 거지?” 하신다.

“네~ 언제든지요. 함께 기도해요!”

이렇게 나의 인연의 끈은 빈 집이 생겨 조사가 어려울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주인세대와 나의 공통점을 찾은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에 함께 모여 앉은 가족 같은 맘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해 주었다.



이야기보따리 두울!

3층 주인세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소득조사를 한다. 업무 인계를 받을 때 가구주께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말을 듣고 사모님을 만나 조사를 시작했다. 가구주는 자영업자로 집에 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일 하러 나가신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집에 계시지 않는다고 들었다. 절대! 절대! 그날도 사모님을 만나 조사를 하는데...

“뭐여? 또 뭐냐고?” 등 뒤에서 거친 가구주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 시간에 가구주가 오실 시간이 아닌데? 무슨 일이지?’

“안녕하세요? 통계청 직원 임미선입니다.”

애써 부드럽게 인사드렸다.

“근데? 뭘 그렇게 자꾸 물어? 왜 사람 피곤하게 해?”

가구주의 말투는 점점 격양되고 있었다.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사모님의 대답은 기어들어갔다.

“네. 인사발령으로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가구주의 눈치를 살피가며 조심스럽게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 거의 끝나갑니다.”

“사모님 구경 때 혹시 손자 분들에게 세뱃돈 주셨어요?”

“응. 삼만원 주었어.”

“가계소득조사 항목 중에 가구 간 이전 지출에 설 용돈이 있어서요.”

“조사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조사 필수품을 드리고 나왔다.

한 달 후 가계소득조사로 다시 그 집을 방문했다. 사모님은 안 계시고 가구주가 계셨다. 가구주께서 들어오라고 하신다. 지난달 만남에서 까칠했던 상황이 떠올라 놀란 고양이가 털을 바짝 세운 것처럼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었다. ‘들어 가야 하나? 그냥 돌아서야 하나?’ 순간 망설이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가구주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통계조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셨다.

“아니, 통계청에서 내가 세뱃돈을 얼마를 주든 말든, 용돈을 받든 말든, 뭐 그런 걸 다 캐물어? 이 따위가 무슨 조사야? 이따위 거 조사한다고 내가 낸 세금 평평 쓰는 거야?”

쓸데없는 것 조사한다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다.

“가구주님, 가계소득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동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과 경상조세 등 이전지출을 조사합니다.”

이 따위 거라는 말에 고개 숙였던 나의 자존심이 또박또박 말쑥드릴 용기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내가 조사하러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 했는데, 나 몰래 마누라한테 조사를 해? 당장 가. 조사 못해! 이거 갖고 온 음료수 도로 가져가. 안 마셔!! 내가 거지야?”

하시며 음료수 박스를 현관 밖으로 던지고 나를 밀쳐내셨다. 박스 안에 있던 유리병은 깨지는 소리를 냈다. 이상한 거나 물어보는 통계청이 자신을 거지 취급했다며 샷대질과 고함치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끝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벌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은 요동을 쳐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크게 한숨을 쉬고 다시 한 번 설



명 드리려고 “가구주님~” 하고 입을 떼는 순간,

“가라고 했잖아. 가! 당장 꺼져!!!”

이미 가구주께서는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무섭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찾아뵙겠다고 한 후, 음료수 박스를 챙겼다. 음료수 병은 꺼져 있었고 음료수는 내가 걷는 대로 자국을 남기며, 숨죽인 채 나를 뒤따라 왔다.

안전지킴이로 함께 갔던 동료는 내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고 큰소리가 들리자 놀란 눈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다리가 후들 후들 떨려서 어떻게 계단을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동료의 부축으로 간신히 차를 탔다. 조금 전 가구주 앞에서 통계인이라는 직업정신으로 참아야했던 모멸감에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뿜어져 나오고 병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은 한없이 답답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일을 하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틀을 끙끙 앓았다.

조사하면서 힘든 사례가 어디 이번뿐이었겠는가? 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기기보다는 제대로 부딪히며 현장조사를 마쳤을 때의 성취감과 행복감으로 여기까지 온 나였다. 하지만 이번엔 많이 달랐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무릎이 꺾였다. 떨어진 자존감과 활기는 쉬이 회복되지 못했다. 항상 긍정적인 내가 힘들어하자 나의 키다리아저씨 같은 사회팀원들이 뭉쳤다.

“욕이라도 실컷 해주지? 그럼 덜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

가당치도 않은 설정으로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팀원들이 아는 모든 욕이 동원되었다. 팀원들은 욕을 열 두 번도 했을 상황이라며 모두 한 번씩 겪었던 지난 일들을 토로하며 그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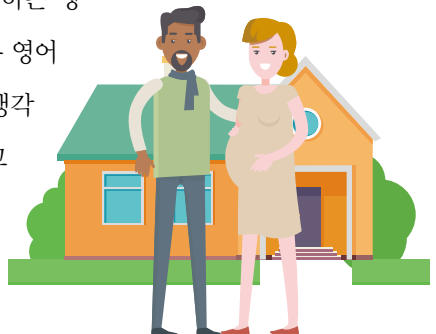
우리들만의 은어인 18색, 24색 크레파스를 찾으며 수원사무소라는 울타리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팀원들이 함께 웃고 격려해줘서 나는 예전의 긍정적이고 밝고 활기찬 「임미선」으로 돌아왔다. 그 사건이 있고 가구주는 더 이상 통계조사를 강력히 거부하며, 그 건물 세입자들의 조사까지 방해하기 위해 CCTV 3대를 설치하셨다.



이야기보따리 세엿!

또 다른 조사구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000대학교 근처다. 그러다보니 대학생, 유학생, 외국인 교수님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가구 및 원룸주택 조사구이다. 조사표도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 조사표가 필요한 곳이다. 인사말도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hi’, ‘hello’, ‘how are you’, ‘good morning’이다.

출산을 앞둔 A외국인 교수 사모님을 만날 때 일이다. 아이 출산일을 물어보려고 구글 텍스트에 입력을 하고 갔다. 그날따라 핸드폰에 이상이 생겼는지 번역이 잘 되지 않았다. 직접 물어 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어쩌나? 아기라는 영어 단어는 알겠고, ‘언제 태어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 교수님과 교수 사모님은 현관 입구에 서서 나를 뚫어저러 보고 계시는데, 출산이 영어로 뭐지? 뭐지?? 뭐지???





professor, teach, madam 단어를 말했는데 다음 영어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배를 풍선처럼 부풀리는 바다랭귀지를 했다.

“마담, 베이비 킴 온~~?”

흑흑~~!!! 어찌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대박~) 교수 사모님께서 알아보셨는지 7월 31일이라고 답하신다.

“Ok thank, thank you very much!”

준비된 조사만 끝내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로 응답자와 친밀감을 만들어 가는 내게 외국어가 장벽으로 다가왔다.

기존 가구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가구에 B외국인 교수님이 이사를 오셨다. 외국어 조사표로 조사하는 사이사이 구글 번역기, 구글 텍스트를 동원해 교수님과 일상적인 대화로 공감대 형성을 시도한다.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집 아이가 영어로 떠들며 나의 혼을 빼놓을 때가 있다.

이럴 땐 ㅎㅎㅎ....., 나만의 비장무기!! 강다니엘이 먹었던 곰돌이 젤리로 현혹시켜 조사를 마무리할 때도 있었다.

나는 통계조사가 단순히 조사표를 채우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응답자에게 통계조사에 대한 정책이나 그 정책의 쓰임 등을 설명해야 하고, 응답자의 궁금증에 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영어실력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유대관계와 공감을 위해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는 조사할 수는 없어! 나만의 오작교를 찾기로 결심했다. 교수님에게 학교로 방문드리겠다는 장문의 영어 문자를 보내고 약속시간을 잡아 000대학교를 방문했다. 신원 확인 절차 후 들어선 연구동 입구에서 교수님은 나를 맞이해 주셨다.

“Professor! Are you a close Korean student?”

“Yes!”

밥 사주는 예쁜 누나가 아니라 영어 잘하는 제자, 제일 친한 한국인 제자를 소개 받았다. 소개 받은 제자는 연구와 논문준비로 바쁘다며 통계조사를 위한 통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많은 일들로 마음의 여유 없이 바쁘다는 제자를 설득해야만 했다.



학교까지 찾아와서 조사를 부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 조사대상자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조사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단 한명의 외국인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신뢰성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더 밝은 내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조사에 응하는 게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여야 한다. 그래야 통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제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주력했다. 교수님의 소개가 있어서였는지 나의 언변에 녹아든 건지 진의는 알 수 없으나 제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나는 말 잘하는 「예쁜 통계인」이다. ㅋㅋ.

나의 첫 번째 영어 잘하는 코리안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 것이다.

내 제안을 받아들인 한국인 제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잘 전달해주었다. 『통계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상태(취업, 실업 등) 특성을 조사하여 정부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고용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중요



한 자료이며, 고용통계는 매우 중요한 통계로 모든 국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어 응답해주신 조사결과는 올바른 고용 정책 수립에 활용되어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드디어 교수님에게 통계조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수님은 제자의 설명을 듣고 통계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셨고 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로 하셨다.

OOO대학교 교수님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거처를 옮겨 조사 가구가 변동된다. 그때마다 나의 코리안 베스트 프렌드는 조사를 위해 새로운 외국인 교수님에게 성심껏 통역을 해준다.

또 조사기간에 외국인 교수님의 부재는 나를 무척 난감하게 한다. 문자나 전화 연결이 어렵고 교수님의 부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생긴다. 이럴 때 나의 코리안 베스트 프렌드는 교수님의 근황을 전해주며 그의 역할에 빛을 발한다. 내겐 천군만마와 같은 영어 잘하는 제자, 코리안 베스트 프렌드가 세 명이나 있다. 나는 종종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끝나면 나의 코리안 베스트 프렌드에게 별다방 기프티콘을 카톡으로 선물을 주면서 든든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의 코리안 베스트 프렌드 앞길이 탄탄대로이길 기원하며, 우리나라 통계조사에 단 한 명의 외국인도 빠짐없이 조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다른 코리안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의 힘은 『공감』이다.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 흔들리지 않고 중심적인 센터로써 일을 해 명실 상부한 국가데이터허브 통계로 거듭나는 중심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포지션은 통계 센터!

또한 내가 조사한 통계자료가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할 때 통계인으로써의 긍지와 자부심은 현장조사에 나가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통계는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고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래서 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현장으로 달려간다. 고고!!



PART 2



• 2018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지방청 장려상

신뢰감 형성으로 응답자에게 다가가기

남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이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조사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사람마다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응답자들의 성향은 각양각색이라 그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과의 신뢰감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무엇보다 조사업무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를 하여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에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주차장에 도착한 남자의 눈은 여러 생각들이 정리된 듯 자신감과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 자체특별상 「전통시장의 어느 멋진 날」 중에서 -

장려상

경인지방통계청
김영숙

사례,
여섯

기쁨의 성장통

66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통계조사 협조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부터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불순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고 먼저 생각하게 된다. 통계조사는 다른 사람을 불순한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하는 힘든 조사이다. 그런데도 2017년 12월 ○○일 △△통계청에서는 경상조사 및 연간·특별조사 전반을 수행할 사람을 찾는다는 채용계획 공고에 나는 얼른 접수했다. 나에게 꼭 맞는 일이 제 발로 걸어 다가와 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과거 통계청에서 한시임기제로 일했던 경험이 나에게겐 일종의 활력소 같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일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행복한 기분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께 기도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명단에 있는 내 이름을 본 뒤에도 한참이나 동명이인이 아닌지 몇 번씩 살펴보곤 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영숙”이기 때문이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친언니마저 “어떻게 네가 합격하겠니?” 라고 말했었는데 내 이름 석 자가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올라와 있었다. 실제로 그 기분을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도 벅찬 일이었다.

합격 후, 나는 통계청 △△사무소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과 잘해보자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았을 때, 오랜만에 돌아온 친정 같은 느낌이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일은 첫 출근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야 시작되었다. 그 일의 준비과정 시간이 길게 느끼면서도 또 하루하루 돌아올 통계청 조사원으로서의 생활이 두근거렸다.

인수인계를 위해 나는 전임자와 함께 표본 조사구를 방문했다. 내가 맡게 될 표본 조사구는 신축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젊은 층, 노년층, 단독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조사만 해당하던 곳이 2018년 1월부터는 가계소득조사도 포함되었다. 나는 ‘협’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잘 할 수 있다고 결심을 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또, 바뀌셨네요.”

“네. 인수인계가 있어 찾아뵙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초심을 잃지 말자고, 밝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응답자를 기억하며 힘을 내자고 다짐했다.

첫날은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밥 먹는 것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



가 생각나는 힘든 날이었다.

“저, 이제부터 댁에서 하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가계소득조사라는 것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네. 죄송해요. 바로 나가야 해서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날 오세요!”

처음엔 속상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1시간 20분을 꼬박 걸려 왔는데 문전박대라니. ‘초심은 개나 주라’며 집에 가서 맥주나 한 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굴복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을 일이었다. 나는 작전을 바꾸었다.

다음날부터 나는 빌라 계단 출입구에 쪼그리고 앉아 출입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잠시 양해를 구하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였다.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못 만나는 것보다 밖에서 사람들을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조사가 있어요, 말만 계속 반복하기 일쑤였다. 어째서 이 조사를 해야 하는지, 이것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등 설명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 버리었다. 2월의 날씨는 춥고 매서웠고, 가구 설득에 대한 나의 목표에 대한 이루지 못한 성과도 나를 더 춥게 했다.

나는 다시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불용 가구에 짧은 메모식의 편지를 남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편지도 내용이 길면 읽다 말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첫 번째 쪽지엔 가계소득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 쪽지엔 이 조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또 아이가 있는 집엔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인 가정에는 사회복지와 노인 일자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적어 각 집의 문고리에 행복 주머니를 걸어 조사 안내를 전달하였다.

계속 두 달간 편지를 남겼는데, 드디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차 방문하던 날이었다. 그런데 한 가구에서 가계소득조사가 대체 뭐냐는 질문을 해왔다. 나는 ‘지금이야 바로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아, 네! 그동안의 메모 글에 적힌 것과 같이 가계소득조사의 결과는 국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 및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실한 참여가 정말 소중한 답니다!”

“음. 그거 응답한 개인정보로 그 집만 세금 많이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세무서가 아닌걸요.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저희는 통계청. 말 그대로 통계를 내는 곳이에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 및 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그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답니다.”

“이야~, 그런 걸 외우고 다니세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는 그날 두 가구를 추가 설득하고 집에 돌아왔다. 분명 1시간 20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거리 임에도 불구하고 퇴근길은 어찌나 짧은지. 나는 마트에 들러 맥주와 안줏거리를 사서 아이들과 남편에게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은 내가 한턱 내야 하는 날이라며...



사례 1. 휴일에도 일하는 우리

빈 집이었던 가구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나는 이번에도 먼저 조사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응답을 받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짧은 메모와 명함을



현관문에 붙이고 돌아왔다.

그런데 일요일에 알지 못하는 번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네, 여보세요?”

“저 ○○빌라에 사는 ◎◎호입니다.

요 며칠 전에 이사 왔습니다.”

“아. 현관문에 붙여놓고 간 메모 보시고...”

“아 왜 자꾸 남의 집에 메모는 붙이고 가세요? 집에 사람 없는 거 광고합니까? 아무튼 그거 붙이지 마세요. 그 말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순식간에 몰아친 일에 나는 어안이 병병했다.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것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빈 집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 다음엔 전화를 드리고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독였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일요일 나는 그 집에 찾아가 벨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와 통화를 했던 것 같은 젊은 남자분이 나오셨다. 나는 정중히 내 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먼저 통화했던 적이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원 000입니다.”

그러자 응답자분은 통계청은 일요일에도 일하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맞벌이이신 경우가 많고 저녁 시간에도 집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서 휴일에 찾아뵙기도 합니다’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가구원과 이름을 여쭙보았는데 남자분은 그런 건 알아서 무엇 하나며 툭 쏘시곤 문을 팡 닫고 들어갔다. 나는 얼굴 보고 인사드린 것으로 만족하자며 다시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 후 다음 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간이 되어 그 집에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한번 현관문을 두드렸는데도 강아지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때 검은 승용차가 빌라 앞에 서는 것이 보였다. 내리는 사람을 보니 지난 일요일에 뵈었던 짧은 남자분이었다. 나는 다행이다 싶어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XX, 아줌마.”

나는 아무런 말도 쉽게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남자는 더 큰 목소리로 내게 화를 내었다.

“지금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진짜 힘들게 가진 애란 말이에요! 지금 저한테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치는 거 겨우 말리고 회사에서 조퇴하고 오는 길입니다. 통계청은 휴일도 없고, 퇴근도 안 합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 아기 잘못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아 진짜 XX. 이런 경우를 다 봤나.”

나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을 꼭 참고 “죄송합니다”만 계속 반복했다. 통계청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매우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날 나는 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모르는 번호가 하나 찍혀 있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아까 그 남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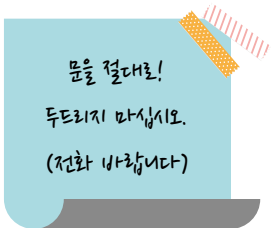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호 사람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아까는 저희가 힘들게 갖게 된 아이가 잘못될까 봐 제가 너무 흥분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경고문도 적어놓지 않았었고요. 눈에 띄는 것이 없



어 제가 너무 막말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오시면 냉커피라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해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냉커피는 괜찮고 조사에만 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남자분은 그동안의 메모와 팸플릿을 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해 안다며, 알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문은 절대로 두드리지 말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셨다. 문자나 전화를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는 문자와 전화로 열심히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

그 후 그 집 ◎◎호 앞에는 이런 문구가 크게 붙었다.
문을 절대로! 두드리지 마십시오. (전화 바랍니다)



사례 2. 손님으로 방문하기

“안녕하세요.”

“아, 네. 아까 전화하신 분 맞으시죠? 그러시면 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네. 먼 곳까지 머리 잘 만진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파마 좀 하려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부터 말씀해주세요.”

원장님의 목소리는 꽤 까칠했다. 하지만 그런 태도에 굴할 내가 아니었다. 주말에 그곳까지, 나 또한 마음을 먹고 찾아간 곳이었다. 나는 천천히 찾아온 용건을 말씀드렸다.

“사실 원장님 댁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이신데 계속 불응을 하셔서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미용실엔 정적이 흘렀다. 아마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원장님은 기분이 상한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들려오는 대답은

“그런 목적이 있으셨군요. 파마 안 해드리니 돌아가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단호한 원장님의 목소리에 나는 순간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상냥히 부탁드렸다.

“파마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서로 다른 일이잖아요. 파마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서 두 시간이 걸렸어요.”

그 후에도 한참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난 후 원장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내가 앉을 자리를 안내했다. 나는 웃으며 예쁘게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 후 파마를 하는 두 시간 동안 나는 원장님과 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그 일을 하는 어려움, 자식 이야기, 남편 뒷말, 요즘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든지 등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원장님은 마지막에 내 머리를 감겨주면서 물으셨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로가 나눈 진솔한 이야기가 원장님의 마음을 돌린 것 같았다.

“별로 어려운 것은 없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와서 묻는 말에 응답만 해주시면 되세요.”





“아, 그럼 힘든 일은 아니네요.”

“네! 힘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결국 통계라는 것도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모인 것인데, 딱딱한 ‘조사’라는 이름보다 ‘이야기를 모아요’라는 식의 생각이 들었다. 주말 하루를 완전히 반납한 것이 아깝지 않게 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를 위한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다.



사례 3. 나를 감동하게 하는 사람들

아마 중복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조사원의 임무를 다하러 조사 대상 가구들이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찾아갔다. 그곳에 들어서 자마자 들리는 것은 호호호, 거리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였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평상을 놓고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 세 분께서 이야기 한 마당을 펼치고 계셨다. 그중에는 조사 대상 가구 할머니도 한 분 있으셨다.

“할머니, 이렇게 더운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나는 웃으며 슬쩍 평상 가장자리 한 군데에 앉았다.

“그냥 더우니까 앉아 있으면.”

나는 미리 준비한 두유를 한 팩씩 꺼내 드리며 조사대상 가구 할머니께 여쭙었다.

“할머니, 할머니 맥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이신데 왜 안 하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아아, 그거.” 하신다.

“몰라, 나는 잘 몰라서 안 한다고 했는디? 그게 뭐디?”

나는 웃으며 그냥 간단한 질문에 응답만 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설명해 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잉? 그런 거여? 그런 거면 내가 해줄 수 있지. 난 아파서 아무 일도 못 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는구먼.”

생각보다 흔쾌하신 할머니의 대답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요란을 떠냐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 후 할머니께서는 내가 경제활동조사를 위하여 찾아갈 때마다 검은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들고 현관문 앞에서 계셨다. 매달 한 번이나 두 번씩 찾아가는 나를 친딸처럼 여기시면서 밥 좀 먹고 놀다 가라고 붙잡으셨다. 그러나 나는 다음 집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 댁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저녁인데 아무것도 못 먹었지? 집 냉장고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

나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 괜찮다고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내게 복숭아 한 개와 요구르트 두 개, 두유 두 팩을 가방에 꼭꼭 담아 주셨다.

“두었다가 할머니 드시라니까요.”

“됐어. 난 많이 먹었어요.”

할머니께서 끝까지 내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며 웃으신다. 아마 그건 할머니가 나를 위해 정성스레 챙겨주신 “정[情]”이었다. 나는 감동해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작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도 가끔 이런 조사업무는 힘들지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게 한다. 나는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쪽으로나, 마음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사례 4. 일자리 찾아드리기

나는 신규 업무분장을 받았다. 새로운 조사구는 20년쯤 되었지만, 깔끔한 25평형 서민 아파트단지였다. 그곳은 경제활동인구 조사만 하였던 곳이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가계소득조사가 추가된 것이다.

어느 날, 비경제활동 노인 부부의 응답 가구를 방문하였다. 할아버지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가계소득이 없으니 조사할 게 없다고 불응을 하셨다. 가계소득이 없으셔도 기초노령연금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우린 지금 죽지 못하여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76

나는 친정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여쭙어보았다. 할아버지는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 놓으셨다. 젊었을 때부터 중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다고 했다. 그 시절에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할아버지도 일시금으로 받아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큰아들 사업자금을 대주었던다.

할아버지 내외분은 아들에게서 오는 생활비로 그럭저럭 생활해 왔단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생활비가 끊겼다. 아들 사업이 부도가 난 것이다. 이젠 생활비를 한 푼도 못 받는다면 꿈쩍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라고 하셨더니 지금 사는 아파트가 자가 주택이라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큰아들이 집을 팔아서 다시 사업자금을 도와달라고 매달린단다.

나는 “절대로 집은 팔지 말고 꼭 지켜야 노후를 편안히 주택연금이라도 받아서 생활하실 수 있다”고 집만은 꼭 갖고 계시라고 당부드렸다. 그리고 주택



연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 지원해 보라고 말씀드렸다. 할아버지는 주민센터도 방문하여 일자리를 알아보셨는데 주택이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 나는 “할아버지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고 전화할게요.”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노인 일자를 찾아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문의도 해보았다.

마침 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어서 전화해보고 모집 시기와 모집 조건 등을 알아보고, 할아버지께 꼭 노인 일자리에 지원서를 접수하라고 전화번호, 접수장소, 접수일 등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할아버지 댁을 방문 드렸더니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셨다. 할아버지는 버스정류장 지킴이와 할머니는 어린이집 점심식사도우미로 일한다고 하시면서 통계청 조사원 덕분에 죽은 목숨이 살았다고 두 손을 꼭 잡아 주셨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소득조사하러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통계청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할아버지는 죽은 자식이 살아온 듯 주방으로 먼저 달려가신다. 그 투박한 손으로 손수 커피를 타주신다. 그러면



서 친절이라 생각하고 조사하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들면 언제라도 쉬었다 가라고 신신당부하신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다.

어느덧 내가 통계청 일에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도 7개월이 조금 넘어간다. 제법 일에 익숙해진 만큼 온몸이 쭈시고 다리도 아프지만, 이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자부한다. 통계조사 업무를 통해 많은 이들의 소중한 이웃이자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중요한 사람임을 느낀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 보다 나은 정부 정책과 대책, 서로의 인식이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난 믿는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처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라는 이야기가 모든 이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이 사회를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테니까 말이다.

나이 오십 후반에 이르러 나는 새로운 이웃들과 만나며 기쁨의 성장통을 앓고 있다. 내 업무 영역에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양분이 되어 주고 있다.





장려상

경인지방통계청
김영미

사례,
일곱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EP1. 뭣이 일케 비싸?

“여보세요? 통계청 직원이요?”

“네~에! *** 아버님이시죠?”

“그려. 아니 언제 이렇게 왔다 갔어? 나 좀 만나고 가야지.”

“하하! 아버님 그러게요. 꼭 뵙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맞았네요.”

“안 돼. 그럼 안 돼. 널 꼭 요쇼!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려니까. 아냐, 자네가 바쁘니까 지금 시간을 정합시다.”

“네~ 내일 그쪽으로 출장 가니까 꼭 전화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전





화 드릴게요.”

“어이 그래야지. 꼭 전화해 주고 널 보자고요.”

“네~.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정겨운 통화를 나누는 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가계소득조사에 응해주시는 소중한 분이십니다. 지난해 처음 “가계소득조사”를 위해 아버님댁을 방문했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완강해 보이는 분위기에 가계소득조사에 대한 설명과 조사목적 등을 말씀드릴 때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문을 닫고 며칠간 방문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방문하여 결국 면접을 하게 되었지만, 설득하면 할수록 아버님은 반대의 의견으로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아버님께 통계는 어느 특정한 사람, 즉, 젊은이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연세 드신 분들의 통계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면, 아버님은 노인들은 소득도 없고 지출은 더 말할 것도 없으니 당신 집 말고 옆집을 조사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총인구 5,142만 명 중 65세 이상은 전체 14.2%인 712만 명이 조사되었다는 조사결과도 설명해 드리면, 아버님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려면 젊은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반론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또 저 역시,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향후 2026년 되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에 아버님 연령의 소득 통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소득분배 및 구조개선을 위해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중요한 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달간 저와 아버님은 각자의 입장에서 설득과 조사에 응답할 수 없음에 대해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이야기, 아버님의 암 투병, 이곳에 정착하게 된 이유까지, 아버님이 말씀하시고픈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버님의 걱정은 단 하나, 자식들이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역시 소득이 줄었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대수명 때문에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간다는 것이었죠. 아버님의 경우 전체 소득의 35%가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연금이며, 나머지는 공공근로 등의 근로소득이었습니다.

전 일본은 고령사회이지만 노인분들의 소득구성 중 약 68%가 공적연금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부럽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인분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이런 가계소득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노령연금도 상향 조정된다고 계속 요구하는 소리도 있고 하니 아버님이 조사해주시는 가계소득조사가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조사가 벌써 8개월이 되었고, 지난 여러 개월 동안 가계소득 조사에 큰 도움을 주신 소중한 응답자가 되셨습니다.

“아버님 저 여기 도착했어요.”

“어! 그려 저기 보이네, 쪼그만한 그 차여?”

“네! 하하~ 쪼그만한 차 맞아요.”

“잘도 갖고 다니는구먼, 이 사람아 덩치에 맞게 살아야제~~.”

“네. 주차하고 들어갈게요.”

“요기 길 건너 카페로 와, 뭐 마실 거? 골라 봐! 여기 다 맛있대.”



“네 저는 연잎 차로 할게요.”

“아. 여기 연잎 차랑 뭐 시원한 것 좀 줘봐. 어? 뭐가 이렇게 비싸? 뭐? 6천 원, 아 이 사람들 왜 그래. 젊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물 쓰듯 써, 참 내, 휴~~ 하여튼 줘 봐.”

“아버님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 제가 계산할게요.”

“아녀 내버려 뒤 무슨 소리여, 나도 돈 벌자네~~ 내가 자네 이거 못 사주나. 자, 마셔~, 나도 자네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네! 허허.”

“아버님 다음 달 조사올 때는 제가 대접할게요, 일종의 주고 받기!”

“아 그려? 좋을 대로 허~, 난 케이크도 좋아혀!”

아버님과 저는 1시간 동안 이런 저런 이야기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요즘 아버님의 소득이 증가한 것이 대화의 포인트였습니다. 공공근로 중 낚시터 쓰레기 감시 업무가 근로시간이 늘자 소득이 증가해서, 적금도 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과 여름휴가 다녀온 이야기도 듣고, 또 얼마 전에 당신 시신을 서울의 모 대학에 기부했다는 특별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 뭐하러 죽은 사람한테 돈을 들여, 젊은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시신도 기부하면 장례도 치러주니까 난 그걸로 족해~. 이 나이에 나처럼 월급 받는 사람 있나? 얼마 전부터 내 월급 170만 원이여, 그중 매월 50만 원씩 적금도 들어, 내가 지금 나이 70인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줄 모르지만, 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 우리 아들들도 알만한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난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게 행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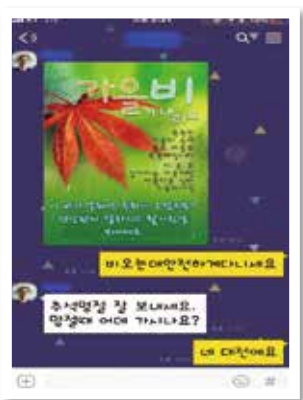
근데 내가 조사해주는 것 같고 통계가 나오기는 하는감? 난 너무 조사할 것도 없는데 이런 나도 조사가 도움 되는가?”

“아이고 아버님, 그럼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2018년 9월부터 기초노령연금도 상향 지급한다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조사는 나 한 명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자료를 모아놓으니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님 항상 도와주시고 기쁘게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매월 만나야만 하는 관계라면 조금도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기억해주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이 저의 직업인 게 참 감사하고 매일 설렙니다. 부담이라는 말보다 호기심? 기대감?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응답자를 대하는 것이 저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교통체증이 많은 날입니다. 이런 날은 출장길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현장으로 나가야만 하겠지요.

좀 전에 통신 대화가 왔네요. ep1의 주인공





아버님으로부터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조사 기간으로 아버님 댁에 가야 합니다. 그때는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하는 날이기도 하네요. 그날도 어김없이 기쁜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EP2. B01호의 작은 아씨들

B01호.

집안에서 아이가 칭얼대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오늘은 인사 못 드리고 다음에 방문해야겠다’고 싶을 때 안에서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아기띠로 아이를 앞으로 안은 채 급한듯한 몸짓으로 문을 닫고 저랑 마주쳤습니다.

“누구신가요?”

“아! 네, 통계청 조사 담당자입니다. 며칠 전 가계지출조사 안내문을 드렸는데 혹시 받아 보셨나요?”

“네... 받았어요, 미안한데 오늘 아이가 열이 나서 급히 병원에 갈 건데 다음에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그리고 다른 집을 방문하려고 몇 집 문을 두드렸지만, 부재중으로 응답자를 만날 수 없어 사무실로 귀청하기 위해 차를 빼는 순간 큰길에 B01호 아이 엄마가 택시를 잡는 듯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병원 간다 그랬는데 택시를 못 잡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택시 잡으세요?”

“네, 맘은 급한데 안 오네요.”

“아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빨리 타세요, 아이가 힘들겠어요.”

“아, 그래도 돼요?”

전 그렇게 가까운 병원까지 모셔다드렸습니다. 다음날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급하게 병원 다녀와서 바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이는 병원 다녀와서 약도 잘 먹고 지금은 잘 놀고 있어서 문자 드려요 언제 우리 집에 방문하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당장 가도록 할게요,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따 뵙겠습니다.”

B01호에 도착하니 지아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숨 돌리고 가계지출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작성과 가계지출을 통해 가구의 복지 분석 및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조사를 한다고 말이죠.

또한 제가 직접 가계지출조사를 위해 모바일로 가계부를 기재하고 있었기에 젊은 지아씨는 모바일을 통한 조사가 특성에 맞을 것 같아 모바일 앱을 통해 조사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저기, 안내장 봤을 때는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누가 자기 집 한 달 생활을 시시콜콜 보여주고 싶어 하며, 또 가계부를 누가 기입하나요? 언니도 알다시피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에 누구 들이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또 울 남편 생각보다 월급이 적어서 창피하고, 저 가계부 처음 적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날 언니가 우리 집 왔을 때 막내가 열은 나



고 너무 급해서 길거리에 서서 택시가 안 와 조금해할 때 언니가 차로 병원까지 빨리 가주셔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언니를 생각해보니 언니도 일인데 나 몰라라 하고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셨고, 덕분에 울 막내도 고생하지 않아서 저도 언니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한 거예요. 가계지출조사라고 했죠? 1달만 기입하는 거라면 해 볼게요. 제가 자녀가 셋이라 좀 정신이 없어요. 아직 다 어려서요~ 2살, 4살, 5살 다 여자아이들이예요.”

“어머, 지아씨 대단하세요, 2017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가임여성 1명이 1.05명을 출산한대요. 지아씨와 저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1명당 3명을 출산했다네요.”

“정말요? 언니도 셋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어찌 애를 세 명이나 키웠어요? 아니, 가임여성들이 그렇게 적게 출산해요? 하긴 이해가 가요, 애들은 너무 예쁘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럼요, 힘들죠. 아이 아파나 주위에 양쪽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키우기 힘들텐데, 어째요. 다들 애들이 어려서…”

“친정엄마가 근처 사세요. 가끔 볼일 있을 때 봐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죠. 뭐, 근데 어떻게 조사에 협조하면 되나요?”

“지아씨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가계부 앱을 설치해서 모바일로 1달 동안 가계부를 직접 기입하시는 거예요.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하실 때 자세히 기입해주는 건데 바나나, 천원, 상추 2천 원, 뽕로로 음료수 1200원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 가계부는 항목을 검색하게 되어 있어서 바나나로 검색해서 과일이란 항목이 뜨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일 매일 기입하는 게 좋아요, 바쁘다 보면 오늘 산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 되도록 애들 자는 시간에 5분이라도 짬을 내서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자신은 없지만 한 번 해볼게요.”

그렇게 3일이 지났을까요?

“언니 편의점에서 애들 소시지를 구입했는데 어느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소시지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네요.”

“네 그럴 때는 기타항목에 일단 넣어두심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며칠 쓰다 보니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울 남편 고생하는데 우리가 너무 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가계부 쓴다고 하니 재미있겠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여자가 가계부 쓰는 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1달 동안 모바일 가계부를 작성하는 동안 지아씨와 저는 언니 동생이 되었습니다. 3번째 방문을 할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수 포도맛을 잔뜩 사서 갔습니다. 우리 막내도 좋아하는 음료수였지요, 뽀로로, 루티, 에다, 크롱 ㅋㅋ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 미소가 저절로 나네요.

지아씨를 소개하자면 남편과 같이 호텔종사자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소녀소녀하고 선이 가는 그런 미녀였거든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려 했지만 애를 3명이나 출산하는 바람에 선녀가 되었다고 저에게 얘기해주더군요. 선녀는 나무꾼을 사랑했지만 지아씨는 호텔리어를 사랑한 게 다른 거라고요!! 지금은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로 살고 있지만,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경력단절 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현황 통계를 보면 지아씨처럼 6세 이하 양육을 위해 경력 단절한 여성은 전체 경력 단절 여성 중 65.8%를 차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아씨 아이들은 엄마를 닮아서 아주 예쁘고 귀엽고 맑고 잘 웃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렸을 때 읽었던 작은 아씨들의 그런 아이들 같았어요. 우리 작은 아씨들은 제가 가면 제 주위에 몰려들어 조잘거려요.

“전 개를 좋아해요, 난 오늘 토했어요, 난 엄마가 좋아요~”

막내는 저에게 아장아장 걸어와 방긋방긋 웃어줍니다. 요즘 아이들 보기가 너무 귀한데 지아씨네 집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풍년인 거죠. 아이들을 보니 우리 애들은 저렇게 키우지 못한 게 웬지 후회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 셋도 척척 잘도 키우는 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아씨가 애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지원받은 금액을 조사내용에 기입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3세, 만4세는 종일반 지원금액이 22만 원이었습니다. 막내는 가정양육으로 24개월이 지나서 양육수당 10만 원씩 통장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소득과 지출 내용을 1달 동안 가계지출조사 기입하고 사례비로 총 7만 원 상품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 경인지방청에서 가계지출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씨의 활발한 성격에 권해보고 싶어 전화하니 아주 시원하게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상품도 있다고 하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체험수기를 공모한 걸 보니 솔직담백하게 잘 써 내려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고 상품권 5만 원을 추가로 부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당첨 소식은 지아씨에게 전해 주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언니 나 상복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특별하게 상이라던가 부상 이런 거 타본 적이 없었어요, 저 이 상품권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우리 애들 가끔 봐줄 때마다 고마웠는데 언니 덕분에 엄마한테 효도하겠단. 하하. 근데 언니 계속 쓸 수 없어서 아쉬워요.”

“그러게요, 애들 잘 키워요 지아씨. 우리 세 공주가 너무 예뻐요, 난 그렇게 예쁘게 못 키웠는데 지아씨는 심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애들도 그렇게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조사가 끝나서 아쉽지만, 우리 작은 아씨들은 제가 못 잊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서로 아는 척 하기에요. 우리 아씨들이 크면 너무 예뻐서 제가 못 알아볼 텐데…”

가계지출조사는 일회성 조사이기에 계속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었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응답 가구였습니다. 지금도 근처 출장을 다닐 때 작은 아씨들의 웃음소리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추가로 지아씨의 응답자 체험 수기를 첨부합니다. 응답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조사에 응답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계지출조사 수기공모



이름 : ○○○

주소 : 광명시

전화 : 010-0000-0000

우선 전 통계청이란 기관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통계청 인천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통계청이란 기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계지출조사라는 목적으로 7월달 31일 만 가계부를 기입해달라는 요청에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들 셋과 지내면서 가계부까지 신경쓰기 너무나 귀찮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지금 우리집은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짜증만 유발할 것 같아서였으며 세 번째 이유는 1달 동안 우리 집 지출이나 이런 세세내역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왠지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우리 집 올 때마다 몇 번을 못 하겠다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솔직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이 우리 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다 줘서 엄청 고마운 일도 있었고요. 6월 중순부터 더위가 지속되서 다운데 너무 문전박대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 너무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왠지 좀 머쓱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통계청 직원분이 아주 간편하게 가계부 기입을 할 수 있는 모바일가계부를 안내해주시고, 가계부 작성법을 가르쳐 주셔서 일단 시작해 보았습니다. 하다가 정 못하면 안하려 했지만, 막상 기입을 해보니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한달동안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그동안 절약하지 않고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평평 쓰고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전 요리를 잘 못하고 귀찮아서 배달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는데 가계부를 쓰면서 그 횟수를 보니 배달 음식 값이 상상을 초월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바일 가계부 쓰는 일이 익숙지 않았고, 마트에서 영수증을 챙겨오는게 습관이 되지 않아 가계부 기입할 때 과자 가격을 쓰지 못해서 과자봉지에 쓰인 가격표를 찾아 기입도 하고 생각나지 않을땐 추리해서 대충 기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조사이다 보니 차후에는 똑같은 제품을 구입했을 때 전에 잘못 기입한 과자 금액을 수정해서 기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날 무렵엔 영수증 챙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하루하루 저희 집의 지출 내용을 보면서 나름 분석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남편이 담배 한갑을 며칠만에 피우는지 또는 식재료를 사면 얼마동안 먹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커피를, 아이들은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가계부 쓰는 습관을 가지려 애썼지만 매년 일주일씩 넘기지 못했고 첫째 자녀 출산부터도 다짐했지만 힘들어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엔 숙제처럼 해야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열심히 가계부를 기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바일 가계부가 편리하게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의점에서 산 물건도 바로 바로 입력하고 검토할 수 있어 편리하긴 했습니다.

저의 가계부 작성이 나랏일에 도움이 된다니 마치 공무원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통계청 담당자 언니분도 너무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했고, 제가 아무 때나 마구 마구 전화해도 상냥하게 받아주시는걸 보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통계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저는 7월달 가계부를 월마감 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솔직히 조사가 끝나도 이 좋은 습관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가계부를 쓰기 이전에는 즉흥적인 소비를 많이 했다면 이후로는 미리 계획하여 가계를 꾸려나가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고 싶은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조사를 마치니 6만 5천원 홀플러스 상품권을 주셨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가끔 저희 비글 자녀들(2살, 4살, 5살)을 돌봐주시는 친정어머니에게 과일도 사드렸고 우리아이들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을수 있었습니다.

6만 5천원이 은근 많은걸 할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달의 인연이 아쉽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통계청에게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저는 가끔 이 체험수기를 꺼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찾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을 찾아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따듯함을 간직하자,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 무엇이 응답자를 움직이는지 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아 씨를 만나기를요~.



장려상

경인지방통계청
오 지 선

사례.
여덟



똑똑,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2017년 7월 1일, △△사무소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공무원이 된 후 첫 인사동이어서 그런지 처음 발령받을 때처럼 마음이 떨렸다.

92

사무소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집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가구업무와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 길으로는 썩썩하게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머릿속은 하얘져 가고 있었다.

가구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그런지 업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지침서를 펴보아도 어디를 찾아 읽어야 하는지조차 모를 만큼 무지했다. 각 업무 총괄자분들께 교육을 받고 조금 알 것 같기도 했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



은 물음표로 가득했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단 부딪쳐보자!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첫 가구업무를 하러 나섰다.



유난히 더웠던 2017년의 여름, 첫 연동을 시작하다

평소와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던 7월의 어느 날, 내 책상에는 숫자 8 글자가 쓰인 낫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출근 후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로 봉투를 열어보았고 안에는 낫선 지도와 명부가 놓여있었다.

옆자리에 계신 주무관님께 여쭙어보니 “아 그거 연동이야~”하면서 구역을 설정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간단히 설명해주셨다. 말씀을 쉽게 하셔서 그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이름 모를 자신감이 마음에 생겼다. 관용차로 가구팀장님과 요도를 확인하고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배우러 나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가득했다.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가구업무를 하며 가장 해맑았을 때가 그때인 것 같다. 이 자신감이 좌절감으로 바뀌기까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요도를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하며 옆에서 팀장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실수록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나 사실 내 머릿 속은 ‘아, 망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지?? 이래서 다들 그리들 연동이 힘들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혼자 출장을 나가보기도 하고 사무실에 와서 지침서를 찾아보고 주변의 선배님들께 여쭙보며 요도 작성을 간신히 마무리 지었다. 아직 설득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내 몸과 마음은 지쳐있었다.

드디어 응답자를 만나는 첫 출장. 유난히도 더웠던 작년 여름, 땀을 뻘뻘 흘



리며 언덕을 올라 드디어 첫 집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날의 대화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문을 두드리며)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신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청 △△사무소 ○○○입니다. 아주머니 님이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으로 선정되어 방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우~ 이 더운데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일단 물 한잔 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집세조사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잘 듣고 계시던 응답자 분이 드디어 말씀을 꺼내셨다.

“내가 아가씨를 어떻게 믿고 이런 개인 정보를 다 줘요? 공무원 맞아요?”라고 말이다.

너무 안심했던 걸까. 당황한 마음을 감추고 침착하게 말씀드리려 애썼다.

“어머, 제가 명함을 안 드렸네요. 공무원증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보셔도 되어요.”라고 말씀드린 뒤 초조하게 응답자 분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니 요즘 그런 거 속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가씨를 덜컥 믿어요. 공무원증이랑 명함이랑 다 여기 놔 주세요. 사진이라도 찍어야겠어요.”

“(허둥지둥하며) 네. 얼마든지요.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주민등록증도 보여주세요. 그것도 좀 봐야겠어요.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주민등록증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정말 공무원이 맞아요. 이상한 사람 아니

에요. 믿어주세요. πππ' 라는 간절한 눈빛으로 응답자 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간절한 내 마음이 느껴지셨던 걸까. 한참 사진을 찍고 남편 분에게 연락을 하신 응답자 분께서 옅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내가 아가씨가 이상한 사람인거 같아서가 아니라 나도 내 정보를 주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웃으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응답자분이 제가 찾아 뵈 첫 응답자 분이셔서 많이 긴장했어요.”

긴장하고 있던 모습이 따님의 모습과 겹쳐보이셨는지, 짙한 눈빛으로 문을 나서는 나를 토닥여 주셨다. 이후에도 꾸준히 방문하며 유대관계를 쌓았고 지금은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분이 되었다.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도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많으신 탓인지 처음에 벨을 눌렀을 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날카로우시지만 “통계청 직원이에요!!”라는 말에 “어머, 왔어요? 얼른 들어와요.”라며 반겨주시는 덕에 보람 있게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교, 직장을 다니며 맺은 자연스러운 관계와는 달리 연결고리가 없는 낯선 관계에서 마음을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서른이 되어서야 처음 배웠다.

유난히도 덥고 치열했던 2017년의 여름, 그렇게 나는 한 걸음씩 서서히 성장해가고 있었다.





정신없이 지나간 6개월, 드디어 가계지출조사를 하게 되다.

가구 업무를 처음 접하고 어느덧 6개월이 흘러 새로운 업무를 접하게 되었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던 악명 높은 가계지출조사.

출장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유난히 지쳐 보일 때 넉넉히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어 보면 “지출 설득 다녀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출 약속잡고 갔는데 가계부 못 쓰겠다고 하시네요.”라고 답하셨던 분이 굉장히 많았다. 어느 하나 쉬운 조사가 없고, 조사구에 사람이 없거나 응답자가 불응하는 경우는 많이 접해보았다. 가계지출조사도 다른 조사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유난히도 가계지출조사에 지쳐하시는 직원 분들을 보며 잔뜩 겁을 먹었다.

여름에 더웠던 것만큼 정말 추웠던 1월, 나는 첫 가계지출조사를 하게 되었다. “가기 전에 지침서 한 번 꼭 보고가 지선씨~ 설득 잘 안되면 같이 나가줄 테니 이야기하고.” 등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던 선배님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 드디어 처음 조사구에 가 보았다.

첫 날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걱정되었던 ○○주무관님께서 함께 나가 주셨다. 함께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구를 둘러보며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기초 작업을 했다. 안내문을 배부하고 2일 뒤, 드디어 응답자에게 첫 문자를 받았다. “□□아파트 803동 xxxx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우편물보고 연락드렸어요. 가족이 모두 설명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일정을 맞춰야 할 거 같아서 연락드렸어요.”라는 문자였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집 앞 미용실을 지나며 걸어가는 도중에 문자를 받았었다. 걱정이 많았던지라 처음 문자가 오던 그 순간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

한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 날, 손이 시린 것도 잊고 기쁜 마음으로 “가족 분들이 다 계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계의 지출을 관리하시는 분이 답해주시면 됩니다. 편하신 시간 말씀해주시면 맞춰서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답장했던 설레는 순간을….

그러나 사람 일이 늘 내 마음 같을 수는 없는 법. 불용 가구들도 적지 않게 접하게 되었다. 그 중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다.

벨을 누를 때마다 통계청이라고 말하면 식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었다. 매번 시간을 달리하여 여러 번 방문해 보았지만 늘 식사중이라며 화를 내며 인터폰을 끊어버리셔서 끝내 만나 뵈 수 없게 되었다. 그 분은 정말 계속 식사 중 이셨던 걸까. 그 분 외에도 “저희는 지출이 없어서 말씀드릴게 없어요.”라며 후다닥 뛰어가시던 응답자 분, “이런 개인 정보를 저희가 왜 다 드려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등 여러 분이 계셨지만 하루 종일 식사를 하셨던 그 분 만큼 머리에 깊이 각인되지는 않았다.

불용 가구만큼이나 친절하게 응답해주셨던 가구도 많았다. 처음엔 가계부 작성을 망설이셨지만 작성을 완료한 후 “가계부 쓰길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줄 처음 알았어요.”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응답자 분도 계셨고, “가계부를 처음 쓰는 거라서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실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며 다정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불용에 상처받은 마음을 잘 달래가며 무사히 가계부 10개를 회수하며 조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첫 조사였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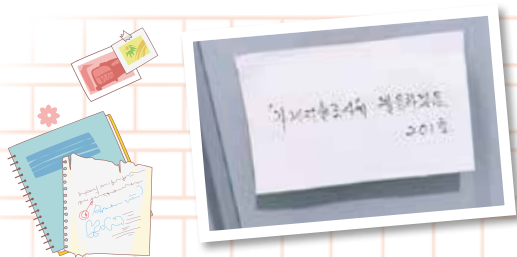
어느덧 6개월이 흘러, 다시 하게 된 가계지출조사. 씩씩하게 다짐했지만 시작부터 조사구 대체를 두 번이나 하게 되면서 마음이 초조해졌다. 우편물을 넣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어? 처음과는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며 부랴부랴 짐을 챙겨 조사구로 향했다.

직장인이 많아 낮에는 사람이 거의 있지 않아 저녁에 가야 하는 조사구였다. 바쁜 탓에 우편물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결국 주말에 방문해서 응답자들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매주 주말마다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8가구를 설득하고 마지막 2가구를 설득하려 조사구를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응답자가 문에 메모를 붙여놓았다.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은 보았지만 문에 메모를 붙여 불응하겠다고 직접 말한 응답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불응하겠다는 응답자의 메모를 뒤로 하고 다음 응답자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가구를 방문했다.

“(벨을 누르며)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며칠 전 배부해 드렸던 가계지출조사 우편물 확인하셨는지요?”



내게 큰 상처를 남긴 응답자의 메모

“네~ 봤는데... 저 가게부 써본 적도 없는데... 더우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와도 된다는 말에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치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3대가 모여서 함께 거주하는 집이었고, 마침 식사 후 자리를 치우는 중이어서 집에 계신 분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빈 접시, 컵을 같이 옮겨 드리며 짹짹하게 아주머니 옆에서 가게부 부탁드린다고 해해~ 웃으며 식탁 정리를 도와드렸다.

“아이고, 아가씨~ 알겠어 알겠어. 일단 내가 들어는 볼게. 나는 복잡한 건 못 해~.”

“어머님. 제가 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르는 것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후 가게부 작성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드렸다.)”

“아, 나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딸이 다 관리하는데. 은지야~~!”

“(옆에서 한참을 듣다가) 이런 돈 관리는 다 제가 해요. 제가 작성할게요.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그렇게 따님에게 설명을 해 드리니 전자 가게부를 작성하겠다고 하였고, 나는 전자 가게부 작성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다. 개인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모습에 혹시나 작성을 거부하실까 싶어 여러 번 안심시켜 드린 뒤 집을 나섰다.

그 후에도 의문사항이 있으실 때는 메시지나 전화를 주시며 성실하게 작성 해주셨다. 특히 마지막에 가게부 작성을 완료하신 뒤, 내가 의문가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PDF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며 나를 감동 시키셨던 분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사실 내가 가게지출조사에 대해 이 글에 언급하게 된 것은 바로 이번엔 소개



해 드릴 응답자 분 때문이다. 처음에는 응답자 분께서 TV를 봐야된다고 다른 날에 오라며 통명스럽게 말씀하시며 연락처만 알려 주셨다. 그 후 약속을 잡고 찾아보였고 가계부 작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 응답자 분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더니 전자 가계부로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양곡소비량 조사표도 작성해주시겠다고 하셨다.

상반기 가계부 작성이 끝날 때 즈음 기입 지도 겸 상반기 양곡소비량 조사표를 걷으려고 응답자 분을 찾아보았다. 저울로 밥을 할 때마다 소비량을 일일이 측정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양곡소비량을 기록하고 계셔서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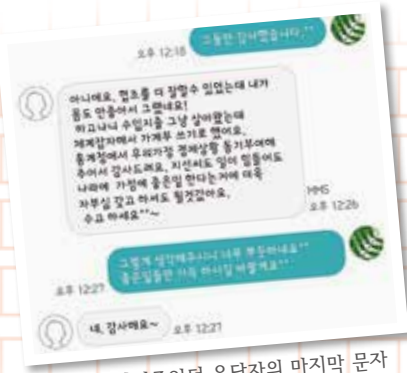
“어머~ 정말 정확하게 다 기록하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에서 하는 조사인데...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열심히 해야죠. 다 정확하게 작성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르는 것 있을 때는 연락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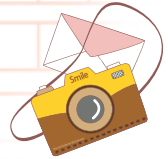
조사 기간에도 연락을 가장 많이 주셨던 응답자 분이셨다. 영수증을 보여주시며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등 세세하게 물어보시며 정확하게 작성해주셨다.

조사를 마치고 조사 필수품을 드리고 나오는데 응답자분과 따님께서 “덕분에 우리 집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았어요. 통계청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우리도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라며 꾸벅 인사를 해주셨다. 현장조사를 하는 직원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면서도 웃으며 지내실 수 있는 건 이런 응답자 분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에 보내주신 문자가 너무나 기억에 남아 문자를 저장해두었고,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 힘들 때에 그 문자를 여러 번 열어보며 마음을 다잡곤 한다.



감동을 안겨주었던 응답자의 마지막 문자



현장조사 하면서 처음 흘린 눈물,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 설득

2017년 7월에 첫 연동을 마친 조사구에 1년째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던 응답자 분이 계셨다. 메모를 남겨도, 밤늦게까지 기다려도, 주말에 방문해도 만나 볼 수 없었던 분이라 거의 포기 상태인 응답자분이셨다.

우연히 응답자 분께서 그 집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여쭙보니, 주민센터 근처에서 식당을 하신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식당에 가서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마침 식사 시간이 지나고 쉬는 중이셔서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조사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조사를 잘 해 나가고 있었는데 응답자 분께서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

“우리 아들 일 왜 안 하는지 그런 걸 왜 캐묻고 그래요?? 나 못하겠으니카 당장 나가요!”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여쭙보고 있어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로 여쭙보는 것이 아니니 조사표를 한번만 읽어주세요.”

다급하게 조사표를 보여드리고 다른 직원 분들이 계셔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여기 체크만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아버님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아 됐으니까 나가라고!!!! 내가 나가라고 했죠 아가씨!!!!!!!”

옆에 계신 배우자 분께서 “여기 직원들 많은데 좀 조용히 말해요. 진정하고!”라며 말씀하셔도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내쫓는 분은 처음이었던 지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주머니께라도 조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주머니께 다가갔다. 아주머니가 조금은 안쓰럽게 쳐다봐 주셔서 응답을 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면서 “어머님,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나 문자로 간단하게 여쭙볼게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나중에 문자를 드리리라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게 문을 나섰다. 나선지 5분쯤 지났을까. 낮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아까 소리를 지르며 화내셨던 아버님이셨다.

“여전히 울고 있지만 여보세요?”

“아가씨 어디쯤 갔어요? 내가 아가씨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가게가 잘 안 돼서 내가 예민하다보니 괜히 아가씨한테 화를 냈어요. 아들이 시험 준비 중이기도 해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다시 와요. 내가 밖에 앉아서 다시 해줄게요.”

“멀리 안 왔어요. 감사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갔더니 응답자 분께서는 가게 앞에 테이블을 마련하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우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마음을 돌리신 모양이었다.

“아가씨가 그렇게 울고 가니 우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라며 사이다를 한 컵 주시며 달래주셨다. 아까 상처받은 마음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헤हे 웃으며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마지막에 사무실로 돌아가려 하는데 아버님께서 “아가씨~ 우리가 아가씨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알지? 마음 풀고 돌아가요^^”라며 말씀해주셔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 날 이후에는 항상 친절하게 말처럼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조사를 해나가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전에 어머니께서 영업과 관련된 일을 잠시 하셨던 적이 있다. 어머니의 수첩 앞에 쓰여 있었던 말이 짧지만 감동적이었던 말이라 기억하고 있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었다. 어머니께 이걸 무슨 의미냐고 여쭙보았더니.

“아 그거? 사람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게 되어 있어. 상대가 나를 싫어할 지라도 진심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도 해. 그런 의미에서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영업도 잘 할 수 있기에 써 놓은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통계인이 된지 4년이 넘은 지금, 불응 응답자들을 대하다 보면 어머니의 말씀이 머리에 떠올라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다. 응답자들을 대할 때 늘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조사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잘 헤나갈 수 있으리라 스스로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통계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공무원이다. 정확한 데이터만이 정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업무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자부심과 응답자들을 향한 진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바빴던 조사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내일도 대상가구의 문을 두드리며 씩씩하게 외칠 것이다.

“똑똑,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장려상

경인지방통계청
윤용복

사례,
아홉

참깨 사용설명서

알리바바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요란한 말발굽소리가 났어요. 겁이 난 알리바바는 후다닥 나무에 기어올랐지요. 두목처럼 보이는 남자가 나무 옆의 커다란 바위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105

“열러라 참깨!”

맷소사, 바위가 문처럼 드르륵 열리더니 동굴이 나타났어요. 알리바바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조금 뒤 남자들이 동굴에서 우르르 몰려나왔어요.

“달혀라 참깨!”

두목이 외치자 바위문이 쿵 하고 닫혔지요. 남자들이 사라지자 알리바바는 두목을 따라 해 보았어요.

“열러라 참깨!”

그러자 신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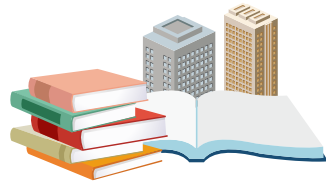


게도 바위문이 다시 열렸어요. 살금살금 동굴로 들어간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어요. 온갖 보물과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열려라 참깨! 때로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2018년 5월 일반서적출판업 대체사업체 명부를 받았다. 기존 사업체가 5개월 넘게 30~70만원의 매출부진으로 폐업절차를 밟는 터라 새로 받은 대체명부도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출판사였다.



대체명부를 받고 첫 번째 사업체에 전화를 했다. 이리이러한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귀사가 표본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방문이 좋은지 메일이 좋은지를 말했다니 메일로 달라고 하였다.

나는 국가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이 실시하는 서비스업동향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번거롭더라도 향후 5년간 실시하므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협조공문, 표본사업체 선정기준, 조사표 등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사업체에서 1~5월까지의 매출 자료를 보내주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완료 보고를 마쳤다.

그리고 다음 달에 해당 월 조사를 위해 조사표와 함께 메일을 발송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회신이 없어 전화를 하니 ‘한 번 해줬으면 됐지, 무슨 매달 조사를 또 하느냐’면서 ‘한 번만 해주면 되는 줄 알고 바쁘데도 조사 응한 것이고 계속 한다면 협조 못한다. 5년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메일 내용에 5년간 실시한다고 설명드리지 않았느냐 해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은 건 본인 잘못이지만 회사 경영도 어렵고 한테 통계조사까지 하나'며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니 바쁘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 후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사업체를 방문하였다. ○○오피스텔 906호였는데 올라가니 문에 회사명패도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직접 뵙고 설명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싶어 사무실에 왔다'고 하자 '본인은 사무실에 있지도 않고 사장님도 한번 해줬으니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 했다'며 '전화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고 연락도 없이 오고 업무방해하면 당장 통계청에 항의전화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나는 항의전화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겁도 나 목소리가 긴장되어 갈라졌지만 '제가 이 더운 날 이렇게 방문한 것만 보셔도 조사의 중요성을 알지 않겠느냐... 땀별에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느라 지금 목도 너무 마르고 덥고 힘들어 물이라도 한잔 마시고 싶었는데 사무실에 안 계시다니 너무 속상하다'고 말하자 화가 조금 누그러졌는지 전화기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순간 얼마나 안도감이 들던지... 나는 이때다 싶어 '나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다 이해가 간다. 회사가 어렵다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느냐. 매출액 변동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전화할테니 그때 변동 없다 얘기해 주면 되고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하니 그 차이가 있을 때만 자세히 알려주면 된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하여튼 지난달은 전달과 변동 없으니 그렇게 알고

이렇게 전화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다시는 전화도 찾아오지도 말라'며 호통을 치기에 일단일보 후퇴의 심정으로 전화를 마쳤다.

그리고 다음 달 다시 방문했다.

“똑똑똑...”

“똑똑똑...”

몇 번이나 노크를 했는데도 인기척이 없었다. 혹시나 사업체가 이전해 빈 사무실인가 하는 마음에 문을 살며시 당기니 현관문이 쑥 열리길래,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 더 열고 얼굴을 들이미니 정면 의자에 남자분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 아무개입니다.” 인사하자 놀란 듯 바라보더니,

“아니 왜 오지 말라는데 와요?”라기에,

“연락도 없이 죄송해요.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 걸레를 무릅쓰고 왔어요.”

“제가 선생님 사업체를 담당하는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사업체가 불교서적 출판업체임)인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했더니 잠시 침묵 후,

“참 내, 이미 들어왔는데 그냥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냉큼 신발을 벗고 “감사합니다.”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아니, 무슨 그렇게 중요한 조사라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래요? “왜 하필 우리 회사를 하나고... 돈도 못 버는 데를...” 하며 혀를 찼다.

내가 매출이 큰 사업체만 표본으로 하지 않는 이유와 서비스업동향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자,

“참내... 귀찮고 책도 안 팔려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우린 작은 출판사라 매출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라고 하면서도 “그거나 쥐

봐요.”하며 내가 가져간 조사기록부를 살피보셨다.

“거기 지난달보다 백만원 더 하면 되겠네.” 하시며 매출액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내가 드린 명함을 보더니, “윤씨예요? 한자로 어떻게 써요?”라며 본인이 불교계통의 책을 저술하느라 공부를 좀 했다고 나와 아들의 사주까지 봐 주셨다.

이런저런 대화를 마치고 다음 달 조사는 메일이 좋은지 전화나 방문이 좋은지 여쭙봤더니 본인은 한 달에 받은 경주에 가있다고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 명함에 핸드폰 번호를 직접 적어주며 방문해서 없을 때는 전화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하는 나를 ‘잠깐 기다리라’고 세우더니 본인이 저술한 불교의 인연에 관한 책을 두 권이나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몇 달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906호를 나설 때의 느낌이란 자신감과 기쁨으로 신발에 통통 스프링을 단 것 같았다. 사장님이 준 책 속의 말처럼 ‘인연...’ 참 아름다운 말이다.





열려라 참깨! 때로는 얼음처럼 단호하게~

외국계열 회사를 조사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담당자를 면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계열 사업체는 재택근무도 있고 외국지사도 수시로 출장을 나가거나 회의 중인 경우가 많아 직접 얼굴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 안내데스크를 통해야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구조라서 미리 담당자와 미팅 약속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몇 개의 외국계열 회사를 담당했기에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2018년 표본개편으로 담당하게 된 한 외국계열 사업체는 너무나 비협조적이었다.

고가의 과학기기 등을 수입해 도매 판매하는 회사로 처음부터 담당자 연락처도 없고 담당자 이름과 대표번호, 주소가 전부였다.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자와 연락하려 하니 퇴사했다는 대답을 받은 후엔 맨땅에 헤딩하거나 다름없었다.

담당자도 없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비공개로 오로지 대표번호 하나만이 내가 가진 동아줄의 전부였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안내데스크를 통해 통계조사를 해줄만한 담당자와 연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내데스크에서는 담당 책임자를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뿐 담당자 이름도 연락처도 절대 함구였다.

그렇게 답답하게 기다리기를 몇 개월... 아무리 연락해도 안내데스크에서는 자동응답기처럼 ‘말긴 서류는 전달했으며 곧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는 대답만 되풀이 하였다. 생각다 못해 협조공문과 보도자료, 명함, 불응 시 본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편지 등을 담은 서류봉투를 안내데스크에 맡기며 해당 담당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온 며칠 후, 드디어 담당자에게

서 전화가 왔다.

나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칠세라 표본사업체가 된 배경 등을 설명하며 담당자가 요청하는 대로 조사표 등을 메일로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전화하니 내 전화를 차단했는지 자동



응답지만 돌아갈 뿐 전화 연결이 안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렵사리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세상에나, 담당자가 그새 또 퇴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허무함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표번호 외에 담당자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라면 희망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회사로 다시 전화하여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하여 연락드렸다면 공문부터 설명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드디어 2018년 3월 13일 전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의 매출, 재고 자료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었다.

첨부파일을 보는 순간, 얼마나 설레고 콩닥거리던지... 그리고 쉽진 않았지만 5월에 3, 4월분의 자료를 메일로 받고는 이제 이 사업체는 안정권에 들었구나 싶어 한시름 놓는 차에, 예상과는 달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5월분의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전화해도 연결이 잘 안 되고 메일 회신도 없이 그렇게 답답하게 시간이 흐르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담판을 지어야겠다 싶어 무작정 사업체를 방문하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미팅 약속은 하셨나요?” 하기에,

“약속은 안 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퇴근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전해주세요.”하고 대기실에 버티고 앉아있었다.



한참 후 안내데스크 직원이 다가와 “수석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미팅이라 시간이 없고 쉬는 시간에 잠깐 볼 수 있다는데 기다릴 수 있으세요?” 하기에,
 “네, 몇 시간이라도 기다릴게요.” 하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던 중 드디어 담당자로 보이는 남자직원이 다가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며 약속도 없이 와서 죄송하다고 하자 담당자는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아~ 바쁘데..., 저 금방 들어가 봐야 돼요.” 했다.

나는 “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한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조사에 대해 설명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하며 가져간 협조공문과 리플릿, 조사표, 보도자료 등을 보여드렸다.

그러자 대충 훑어보더니 “알았어요. 메일로 드릴게요.” 하는 것이었다.

나는 “입력마감이 있어서요. 최대한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방문을 마쳤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또 감감 무소식...

보낸 메일을 분명 읽었는데도 회신은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행여나 너무 채근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까 싶어 한달 정도는 잠정으로 처리하고 기다렸으나 그 다음달에도 회신이 없었다. 다시 전화하고 방문하고를 반복했지만 조사는 되지 않고, 어쩌다 운 좋게 통화라도 되면 알았다고 보내겠다고 대답만 꿀떡같이 하고 무소식...

그렇게 피 말리는 몇 개월이 흐르고 어찌어찌 전화연결이 되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대뜸, “담당 바뀌었으니까 회계팀에서 연락이 갈거예요.” 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비협조적인 담당자가 변경된 건 잘 된 일이다 싶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마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회계팀에서 메일이나 전화가 없었다.

나는 안 되겠다 싶어 조사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이렇게 자료도

못 받는 거 당당하고 강경하게 나가기로 굳게 마음먹고 담당자가 아닌 회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협조공문과 리플릿, 보도자료 등을 우편으로 보낼 준비를 다 해놓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수석님, 무더위에 건강하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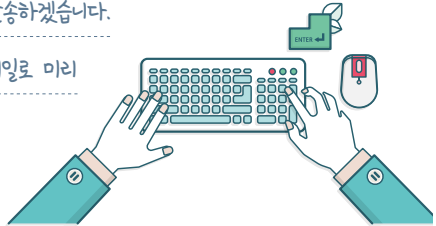
아무래도 수석님께서 너무 바쁘시고, 지난번 통화시 말씀하셨던 회계팀에서도 연락이 없어

제가 대표이사님 앞으로 다시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혹 차후에 아시고 섭섭해 하실까 싶어 메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자 세상에나...

16시 32분에 보낸 메일에 당일 16시 56분에 회신이 오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었다. 비록 이름도 없는 성과 직함뿐이었지만 지난번 통화 시에는 알려주지도 않았던 신규담당자를 알려 주었다.

나는 얼마 후 사업체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담했다. 새로운 담당자는 신입 직원으로 매우 호의적이었고 법적 조항을 묻기에 가져간 공문을 보이자 알겠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냐고 물었다. 가져간 조사표를 보여주며 매출, 재고 등 각 항목을 설명해주자 아주 협조적으로 메일을 회신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9월 19일 19시에 그렇게도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일이 도착했다. 침



부 파일에는 5, 6, 7, 8월분의 자료가 네 개의 시트로 나란히 줄서 꼬마기차처럼 예쁘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 드디어 3개월의 잠정을 확정으로 만들 수 있다니….

문득 선거 개표방송 때의 무궁화 꽃이 떠오른다. 당선확정 얼굴 옆에 붙여주는 자랑스러운 무궁화!

장기 잠정 사업체를 확정으로 입력할 때 나는 선거에 당선된 것과 같은 벅찬 기쁨과 보람으로 얼굴에 미소가 피어난다. 어찌면 우리 업무가 선거유세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을 대하고 설득하는 어려운 업무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지도 모르겠다. 부디 매달 통계조사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에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나길 빌어본다.



장려상

동북지방통계청
강진희

사례,
열

브레이크 없는 행복한 질주를 위하여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한다.”

이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어 2005년 나는 잊을 수 없는 통계청과의 연을 맺어 지금은 12년차 통계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당한 통계인이다.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님 봉양, 어린 아이들 진사... 쉽지가 않았던 집안일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나의 일을 막연히 기대하던 어느 날 인구주택총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원 모집 공고를 마주하게 되었다.

지원할까 말까 망설이기를 며칠, 친하게 지내던 이웃 언니가 ‘한번 신청해보고 되면 하는 거고 안되면 그만두는 거지, 계속 고민만하다가 평생 못한 다’라는 말에 인구주택총조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통계청이 어떤 기관인지도 모른 채, 나도 세





상과 마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과 자투리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었고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 올라있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사전 교육에서 마주하게 된 지침서는 얼마나 어려운 말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지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머릿속은 어려운 용어들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였고 맡은 업무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 심장은 씹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지침서에 열심히 줄을 그어가며 공부를 해도 현장에 가서는 담당 구역의 요도가 이집이 여긴지 저긴지 구분할 수 없이 어려웠고, 말로만 들던 집창촌에 조사를 나갔을 때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웠다. 낮에는 집집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해질 무렵 빨간 불빛사이로 지나 갈 때면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서고 꽃단장을 하고 있던 아가씨들은 조사에 대해 관심조차도 없었고 신세계를 보는 듯 했다.

사무소장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조사하기 힘들다면서 직접 집창촌을 찾아와 협조를 당부하셨지만 포주들은 건성으로만 대답하였다. 앞이 캄캄하였다. 하지만 난 나름대로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이장님 연락처를 받게 되어 이장님을 찾아가서 협조를 부탁드렸고 이장님이 친절하게도 한집 한집 다니면서 포주들을 만나 조사에 도움을 주셨다.



결혼하고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애들 뒷바라지만 하다 마주한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던 것도 잠시, 시간이 약이라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투지가 불타올라 지침서 숙지와 더불어 요도를 익숙하게 보게 되고, 조사에도 요령이 생겼다. 조사하는 이유도 누군가 물으면 술술 입에서 흘러나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 맞장구치며 슬며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면서 한집 한집 다니다 보니 어느새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그 어렵다는 집장촌 조사까지 완료했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다.

인구주택총조사를 계기로 그 후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빠짐없이 지원하게 되었고, 조사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통계청과의 인연을 이어가다 2007년에는 통계청 조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통계청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조사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던 나는 가계동향조사를 하면서 또 한번 벽에 부딪히는 듯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첫 가구 방문에서 업무 인계차 동행해준 담당직원은 가계부를 펼쳐놓고 이것저것 잘도 물어 빠진 것을 채워 넣고, 가구주와의 대화도 자연스레 이끌어 가는 것을 보고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수첩에 여쭙야 할 사항을 빼곡히 적어서 가구를 방문하여서는 뭐를 물어야 할지 허둥대기 일쑤였고,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실 때는 주눅이 들었다.

가계동향조사 조사구가 변경될 즈음 실시하는 연동조사는 그야말로 가계동향조사의 최고봉이었다. 연동조사를 잘하면 가계조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조사이고, 가계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가구선정 작업이다. 뭐든 부딪히면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한집 한집 다니면서 “계십니까?”, “계세요?”하며 큰 소리치며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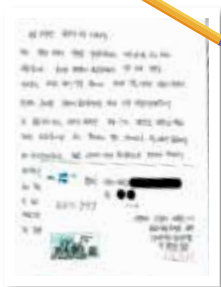
답례품을 드리면 물건을 팔려온 잡상인 대하듯 하고, TV를 통해보던 보이 스피싱과 같은 사기꾼은 아닌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통계청 강진희입니다.”라는 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나는 그런거 모른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린데이~”하며 돌아서는 할머니를 마주했을 때는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통계청이면 뭐 하는데요? 이거하면 우리가 뭘 덕이 있노? 천날 만날 와가 조사만 하면 뭐하노? 새파랗게 젊은 게 다른 일이나 하지 뭐한다고 돌아댕기노” 역정을 내시던 어르신, “사생활이 다 노출되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라며 방문을 꺼리시는 아주머니, 아예 문도 안 열어주시던 가구도 계셨다.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담 너머로 내던져진 답례품을 주워들며 이런 가구에 또 찾아가야 하는 현실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사람이 없어 밤늦게 찾아간 가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고 돌아 나와 흘린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대문 앞에서 가구에 들어갈까? 말까?하며 제자리에 박힌 망부석이 되어 어제 들던 욕을 또 들을까봐, ‘차라리 내가 들어갈 때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해 주세요’하고 기도하며 들어간 적도 있었다. 기도의 보람으로 빈 가구 일때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고 혼자 위안하며 가구에서 나오지만 또 마음 한 켠에는 아쉬움에 큰 돌덩이를 안고있는 것 같았다.

모두 거부하시는 분만 계신 것은 아니다. 기꺼이 문을 열어주시며 고생한다며 격려해 주시던 분들도 계셨고, 간식을 내어와 같이 먹으며 대화해 주시던 분도 계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격려해 주는 가족도 있었기에 다시 힘을 내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역정을 내시던 분은 방문하는 횟수에 따라 차츰차츰 누그러지시고, 문을 걸어 잠그시던 아주머니도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다. 그렇게 가계조사를 시작하



여 8년차 되었을 때는 12월 가계부 제일 뒷장에 해마다 손 편지를 적어서 “1년 동안 고생 많았고, 강여사 가정과 식구들의 건강과 모든 것이 잘 풀리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빼뿔빼뿔 정성껏 마음을 적어 주시는 아버지 같은 분의 글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하기도 한다. 통계조사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충만한 가계조사 베테랑 통계인이 되었다.

마냥 가계조사 전문가로만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신규자가 된 듯한 싱그러움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업무 어업통계팀 업무를 맡게 되었다.

큰 바윗돌에 하얗게 부딪히는 물보라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를 상상하며 어업통계조사에 뛰어들었다.

가계부에 세금이 빠진 것은 아닌지, 담배 피는 가구주의 담배값이 빠진 것은 아닌지 살피던 내가 이제는 물고기 이름을 알아야 되고, 물고기를 잡는 어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시장에서 파는 생선만 알았지, 물고기 종류는 왜 그리 많은지, 돈지가 뭔지, 사이루가 뭔지 다시 새롭게 배우는 신규자가 된 기분으로 이것 저것 익히기 시작했다.

도시가계와 달리 어가는 대부분이 바닷가 근처에 거주하여 대문이 항상 열려있어 가구 방문의 부담은 덜 수 있었다.

어가경제조사는 도시가계 조사와 비슷하나 어가의 어업 소득지출 뿐만 아니라 어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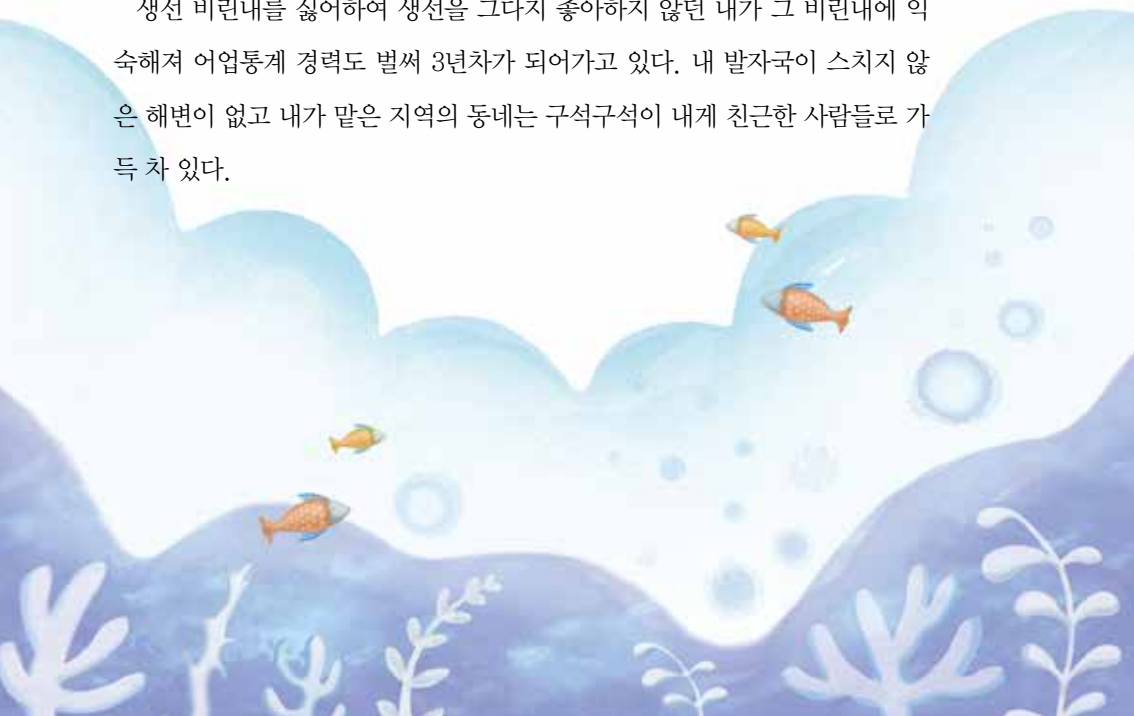


자산, 부채, 건물, 토지 등 내가 알고 있는 우리집 재산사항 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해야 했다. 나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해야 한다. 가끔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나름대로의 설득력으로 이것저것 빼곡히 조사표를 채워 나갔다.

비계통 표본조사는 어가에서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아 얼마에 팔았는지 조사하여야 하고, 어류양식동향조사는 물고기를 얼마나 입식해서 먹이로 무엇을 얼마만큼 주고 키워서 판매는 얼마나 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어떤 조사이든지 아주 흔쾌히 조사에 응해주시는 분 보다는 왜 내가 뽑혔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도 다들 하는 것인지 의문과 거부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그동안 같고 닦은 통계조사 경력이 있기에 이러저러한 질문들에 술~술~ 잘도 답변해 주는 나를 마주할 때는 나 자신도 뻔뻔함에 놀라곤 한다.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여 생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내가 그 비린내에 익숙해져 어업통계 경력도 벌써 3년차가 되어가고 있다. 내 발자국이 스치지 않은 해변이 없고 내가 맡은 지역의 동네는 구석구석이 내게 친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올해는 5년마다 돌아오는 어가경제조사와 비계통표본의 표본개편시기이자 새로운 표본을 조사해야 되는 해이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계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관내의 여러 시군의 어가를 누비고 다녔다는 어업통계 경력을 뒷배경으로, 통계청을 모르는 곳이 없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거칠 것 없이 한 집 한집 과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막힘없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상가구 중에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며 배 한 척을 구입해 어업을 시작한 젊은 부부가 있어, 나이가 드신 분 보다는 설득하기가 쉽겠다는 생각을 하며 방문을 했다. 그런데 가구주를 마주한 순간 ‘엄마야, 큰 일 났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었다. 가구주의 머리는 깎두기 머리에 팔뚝에는 시퍼런 문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조사원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사가 우선이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부부를 상대로 가구에서 당연히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조사인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쉽게 질문에 답해줘서 정신없이 조사표를 작성했다.

간단하게 설득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설득력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면서 입가엔 미소를 머금으며 날아갈 듯이 기뻐다.

며칠이 지난 후 주말, 농장에서 사과 적과를 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 이혼하게 생겼으니 당장 와서 가계부 들고 가요.”하며 여자분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다.

너무 놀라서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방문드렸을 때 아버님도 같이 계셨는데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니,

“당신은 조사를 잘 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때문에 묻는 말에 바보



등신처럼 대답을 다했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뭘테 내가 신랑한테 바보 등신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냐”며 풀리지 않는 화를 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라 방문 못 드리고 내일 남편분 계실 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푸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하자마자,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깐 와서 얼른 가져가요” 하시길래, “네, 진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게요”하고 일단락되었다.

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불응이 생길까 걱정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마음을 풀어 드릴 수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더해 도 뽀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다. 일단 맞부딪히는 수 밖에 없었다.

아침 일찍 찾아가 “계세요~ 계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가계부 가져가세요”하면서 냉정하게 가계부를 던져 놓으셨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변명 같지만 한 번만 들어 주세요.”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앞으로 해 줄 의무도 없으니 그냥 다른 집으로 가서 조사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냉정한 한 마디에 나는 더 물러설 곳도 없고, 조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 통계청의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염없이 기다려도 만나 주지를 않아 다음 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

3일째 되는 날 그물작업을 하시는 남편분 옆에서 나는 진심을 다해 설명을 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저만 생각하다보니 설명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오해가 있다면 푸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해고 뭐고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한다면 안 하는거지…”

“얼른 안 나오고 뭐하노!!”

하면서 아내에게 고향을 지르면서 화풀이를 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뭘데 이 집 부부싸움을 하게 만드는지 시선을 어디로 뒹아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남편분에게 잠시만 변명할 기회를 달라면서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 동네를 몇 년을 내 집 드나들 듯이 다녔으니 통계청이라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기존에 조사하던 가구에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줬다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조사에 임했으니, 이런 오해를 불러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것이다.

한 시간정도 속마음을 이야기 하면서 나의 실수도 인정하고 나와 비슷한 연령대인거 같아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 큰 실수를 했다고 하니 가구에서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다면서 앞으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 주겠다고 하셔서 웃으면서 그 집을 나왔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이 한 없이 작고 초라해짐을 느꼈다. 통계 일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나의 자만심으로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를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표본개편으로 조사를 마감하는 가구에서는 인연을 끊는 듯한 아쉬움에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후련해하는 분도 계시다. 신표본과 구표본이 한동네인 경우는 새로운 가구에 통계조사 홍보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하면 허위 정보를 흘리시는 분도 계시다.

“상품권 받는다고 좋아 하지 말거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세금 폭탄 맞는데이~.”

속으로는 계속 상품권 받으면서 조사를 지속하





고 싶은 마음에 샘을 내는 것이리라. 이럴 때는 신표본과 구표본이 한 동네에 있는게 마냥 좋은 일인 것은 아닌 것 같다.

표본개편은 설득의 어려움도 있지만, 한집 한집 내가 5년 동안 조사를 이끌어 가야 할 가구를 방문하여 또 다른 인연을 위해 안면을 익히고 알아가는 새 식구를 맞는 듯한 설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미워할 수가 없다. 다만 아주 열심히 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이 더 고마울 뿐이다. 주위의 통계조사에 대한 불신어린 말들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고, 나를 믿고 한결같이 적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이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통계는 발전 할 수 있고, 우리 통계조사원들은 조사할 맛이 난다.

가끔 조용히 혼자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통계조사를 위해 버티며 가구를 들락날락하고 있는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추억의 책장을 넘기듯 지나간 한해 한해를 되짚어 보면 조사구에서 만난 수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어쩔 내가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정말 고마웠던 내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았지만 각자 삶이 고달프고, 일이 바쁘신 분들에게는 통계청 직원이 곱게만 보일 리 없었을테고, 나 또한 달가울 리가 없었을 것이다. 외로우신 분들은 친구가 되고, 딸이 되어주기를 바랐고,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 맞장구를 치다 보면 속 이야기를 스스로없이 쏟아내는 어른들의 살가운 인연들이 이어져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나는 가구를 향해 막힘없는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 어쩌다 식사 시간에 마주치면 딸을 대하듯, “야! 야! 밥 먹었나? 밥먹고 가라~ 반찬 없어도 상추에 씹이라도 사먹고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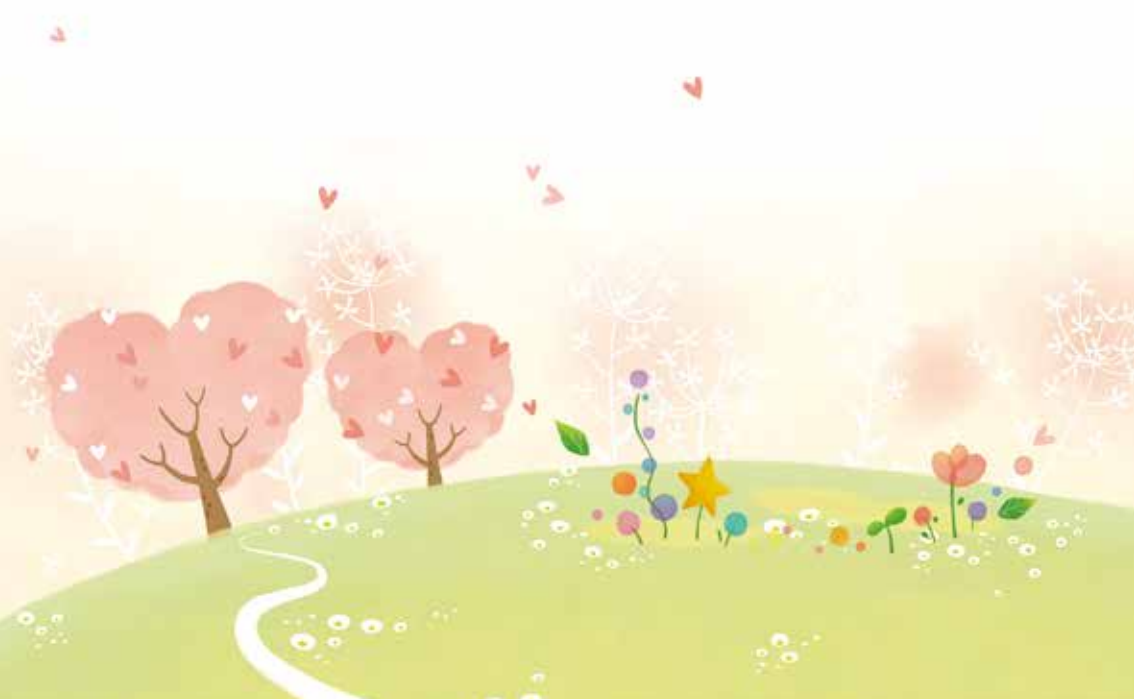


“야! 야! 일로 와보거라.”

내 손을 낚아채듯 데리고 가셔서는 거친 손으로 까만 봉지에 미역을 가득 담아 주시는 아버님, 그 고마움에 과일이라도 들고 가면,

“이런 걸 여기 뭐 하러 사 오노? 니나 먹지.”

무뚝뚝한 말씀이지만 그 속 마음을 알기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어르신들... 가끔 고장 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가 걸린다 해도 까맣게 그 올린 얼굴로 오늘도 열심히 바다 일을 하며 석류 같은 하얀 이 드러내며 환하게 맞아 주시는 살가운 어른들이 계시기에 “어머니~~~~!”하고 힘차게 행복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장려상

동북지방통계청
김성은

사례.
열하나



지금 흘린 눈물이 언젠가 진주가 되어 나에게 온다

2017년 7월 00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에 발령을 받았다.

통계청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기에 모든 것이 설레고 좋았다.

126

내가 해야 할 일이 조사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정집에 찾아가 사람을 만나고 설득을 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은 가득했지만 사람을 상대할 자신은 없었다.

내성적인 성격인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다가도 반대로 여러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고 성격도 더 밝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딱치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믿으려고 노력했다.





첫 발령과 함께 시작된 연동

내가 맡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세 조사구 중에 한 곳이 막 연동을 시작해야 하는 곳이었다. 명부작성을 위해 나간 출장 첫 날 옆에 계신 멘토님이 능숙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며 이를 기억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문장들을 되새겼다.

그 다음날 혼자 조사구에 방문하게 되었고 나는 조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보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벨 누르기가 망설여졌다. 문 앞에 서서 해야 할 말을 되새긴 다음 벨을 꼭 눌렀다.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조용했다. 문이 열려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왜 마음속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음에 안도감이 드는 건지 모를 일이었다.

다시 다음 집의 벨을 누른 후 문을 두드려보았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조금 지나니 문이 벌럭 열렸고 젊은 여성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일단 인사를 드렸다. 그때부터 내성적인 나, 소심한 나, 자신감 없는 나의 모습은 버리고 통계청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앞에 포스터 보셨나요? 우편물도 보냈었는데…”

“우린 그런 거 조사할 거 없어요. 집에 사람도 없고.”

첫 집부터 거절당할 순 없었다. 무조건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년간 표본으로 정해지셔서 570가구를 대표해주는 것이고, 짝수 달마다 답례품으로 상품권이 1만원씩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고용동향 자료는 이렇게 집집마다 직원들이 다니며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중간 중간 버퍼링에 걸린 것처럼 더듬거리다가도 의욕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나를 보시고는 조사에 임해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는지 표정이 조금은 풀어지신 게 느껴졌다. 들고 있던 조사표를 펼치며 그렇게 첫 조사를 시작했다.



눈물 속 뻔 첫 가계지출조사

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던 올해 1월에 가계지출조사를 처음 시작했다. 12월말에 받은 시력교정수술도 회복이 덜되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때였다. 어려워도 씩씩하게 해낼 줄 알았던 가계지출조사로 눈물을 펄펄 쏟아낼 줄 몰랐다.

올해 1월은 나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연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처음에 맡게 된 조사구는 ◇◇동의 원룸 건물 두 개였다. 조사구 적격여부 확인 겸 안내문을 배부하기 위해 첫 출장을 나갔을 때였다. 두 건물 모두 비밀 번호를 열어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안에 우편함이 있었다. 혹시나 누군가 건물에서 나오거나 건물로 들어갈지 몰라서 두 건물 사이에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렇게 30분이 다 되도록 기다려보았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추위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있을 수만은 없어서 건물의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1234, 0000, 1111... 이것저것 다 눌러보다가 손때가 많이 묻은 번호가 있나 가까이 다가가 살피고 있을 때쯤 뒤에서 “저기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하고 있냐는 물음에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면서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드렸다.

중년 여성은 자신을 첫 번째 건물 원룸의 주인이라 소개했다. 원룸의 주인이라는 말에 날아갈듯이 기뻐했다. 조사 첫 날 이렇게 빨리 조력자를 만나다니! 걱정을 많이 한 것에 비해 너무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조사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어주신 덕분에 준비해온 안내문봉투를 우편함 안에 모두 꽂아두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 아주머니께 가계지출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하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며 원룸 옆쪽에 있는 1층 건물로 나를 안내해주셨다.

원룸 주인아주머니는 작은 규모로 즈 판매도 하고 계셨다.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유리벽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다. 그 곳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기 시작했다. 전국의 모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달에 1,000가구씩 조사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이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2월 1달간 가계부를 쓰실 수 있도록 일일이 뵈고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이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퇴근시간이 늦은 사람이 많고 길게 집을 비우는 사람도 많아 가계부를 쓰기 힘들 것이라고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다. 하지만 표본은 본청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제 임의로 조사구를 선택하는 것이 힘들다고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렸다. 조력자용 상품권을 전해드리자 이런 걸 다 주시냐며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물으시면서 조금 더 협조해주셨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명부를 보여드리며 사는 사람이 그대로인지 여쭙보았다. 전출 후 새로 전입한 가구의 가구원 이름과 가구원수 그리고 몇 시쯤 오면 만날 수 있다는 등의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셨다.

감사인사를 드린 후 나란히 옆에 있는 두 번째 원룸 건물로 넘어갔다. 두 번째 건물도 첫 번째 건물과 마찬가지로 10가구 정도 거주했다. 잠시 후 출입문이 열리고 중년남성분이 나오시기에 다가가서 조심스레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입니다!”

바로 조사를 시작하려던 게 아니었다. 건물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있을 수만은 없어 집주인에 대한 정보라도 알기 위한 것이었는데 바로 거절을 당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쭙보려고...”

한 번 더 붙잡아보았지만 이미 그 분은 저 멀리 떨어진 후였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한 명 나왔고 열려있는 문으로 후다닥 들어가서 방문안내문을 우편함에 모두 꽂아두었다. 그때 나는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어쨌든 명부에 있는 표본가구 전체에 우편물도 꽂아두었고 원룸 첫 번째 건물에서는 조력자도 만났고 협조적이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조사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아까 첫 번

짜 건물 원룸 주인 아주머니였다.

“원룸 주인인데요. 지금 어딘교? 아저씨 한 분 퇴근을 일찍 해서 왔는데 함 와볼랑교?”

반가운 전화였다. 아까 명부에 있던 곳 중에 1인가구이고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시며 귀가시간이 늦어 저녁 늦게 와야 만날 수 있다고 하셨던 집이었다. 벌써 한 집 성공하는건가? 하면서 김치국을 마셨다.

도착하니 50대 후반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분이 원룸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앉아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정도였는데 아저씨는 낫술을 거하게 하셨는지 옆자리에 앉자 술 냄새가 확 났다. 인사를 드리며 우편물을 뜯어 안에 담긴 방문안내장과 가계지출조사 안내문을 보여드리며 조사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아가씨. 나는 이런 거 해당사항이 없어요. 돈 쓰는 거라곤 술 뿐이요.”

상대가 술 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거기서 멈추었어야 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무지하게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 했다. 지난 1달간 적어본 샘플 가계부를 보여드리며 말했다.

“선생님 근데 이 가계부 쓰는 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계산하는 것도 따로 없고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 사셨으면 여기다가 ‘소주’라고 쓰시고 금액 쓰시면 되고, 없으시면 ‘없음’이라고 적고 넘어가시면 돼요. 한 달간 써주시면 상품권 5만원이 답례품으로 지급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써 볼까? 내가 해도 돼요?”



안 하신다고 하셨다가 마음을 바꾸신 건가 싶어 희망을 가지고 성함과 생년
월일, 연락처만 여쭙보기 위해 연간조사표를 펼쳤다.

“그럼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근데 나는 신용불량자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통계법 제 33조 비밀보호의 원칙에 따라 비밀보장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전
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아저씨는 아까 보여드렸던 방문안내장이 담긴 우편물을 손으로 흔들면서 말
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요즘에 무슨 조사를 이렇게 찾아와서 해? 당신이
통계청 직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 목에 걸려있던 공무원증에 아저씨의 손이 닿자 나는 조금 놀라서 뒤로 살
짝 물러났다. 아까 설명할 때부터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것도 몸이 지나
치게 가까이 붙어있던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술에 많이 취하셨다는
것을 간과한 채로 조사하려 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했다. 그때 조사를 멈추
려 했으나 맞은편에 앉아계시던 주인아주머니께서 야속하게도 계속 조사를 도
와주려 덧붙이셨다.

“한 달만 써주면 된다는데, 한번 써보지 왜?”

“아 그럼 한번 써볼까? 한번 줘 봐요 그거. 가계부 줘 봐.”

여기서 가방을 챙겨 나가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단 달라고 하시
니 가계부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거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쓸 수가 있나? 에이~~ 안 돼.”

설득 중에도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하시는데, 나중에 아저

씨의 마음이 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집을 설득하면 되지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시면 촉박한 날짜 안에 다시 다른 가구에 설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저씨는 지금 술에 취한 상태이니 정말로 그만하기로 했다. 가게부를 살짝 다시 거두어오면서 정 어려우시면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얼른 그 곳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면 선생님 한 번 생각해보시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아저씨는 내 어깨를 확 붙잡아 억지로 자리에 다시 앉혔다.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모른다.

“경찰 불러야 돼. 당신 나이 몇 살이야? 몇 살인데 이려고 살아? 아줌마 경찰 불러요. 사기꾼이야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보이스피싱.”

“선생님 저는 통계청 직원이에요. 이쪽으로 전화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가게부 써달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 이거 좀 놓아주세요.”

“내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술에 취해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억울한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었지만,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그 아저씨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도 억울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몰랐고 일단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았다.

봉투 바깥에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와 본청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리면서 이쪽으로 전화해보시면 내가 직원임을 알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도 된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계속해서 내 어깨를 붙잡고 경찰을 불러야 된다고 소리치셨고, 경찰서에 전화해보셔도 된다고 휴대폰으로 번호를 눌러드리니까 또 전화를 할



수 없다고 휴대폰을 계속 밀어내셨다. 짐을 챙기려 하자 아저씨도 나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딜 가려고? 이 사기꾼이, 어딜 없는 사람 돈을 뜯어내려고? 잘 잡혔다. 이리 와 봐. 일로 와보라고!!!! 야!!!!!!”

욱박지르는 모습에 너무 무서워서 비명소리에 술 취한 사람이 더 흥분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비명에 흥분한 아저씨가 더욱 더 거세게 말하자 주인아주머니가 일어나셔서 말리기 시작했다.

“왜 그라는교!! 아 놀래겠다.”

나는 너무 무서워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아저씨를 피해 주인아주머니 뒤로 숨었다. 아저씨는 주인아주머니를 밀쳐내고 뒤에 있던 나를 잡아당겼다. 뿌리치고 얼른 달려가서 문고리를 잡았는데 어느새 뒤따라 온 아저씨가 내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당겼다.

“아!!!!!!!!!!”

“어딜 가! 경찰 불러! 어딜 도망갈라고? 니같은 사기꾼은 콩밥 좀 먹어봐야 돼!!!”

롱패딩은 이미 다 벗겨졌고 앙고라로 된 상의의 실밥이 두둑하고 찢어졌다.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열려고 애를 써 봐도 뒤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이 모습을 보고도 길가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의아하게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눈물이 났다. 잡아당기다가 결국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어졌고 그대로 바깥으로 도망쳤다. 그 와중에 조사표는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한 손에는 출장가방이 들려있었다.

문에서 나오자마자 도로변이 나올 때까지 미친 듯이 뛰었다. 잘못된 것도 없

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쫓아오는 게 무서워 피해야 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고 몸이 벌벌 떨렸다.

우선 사무실에 나의 상황을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런 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게 맞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고 말았다.

나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해해주시고 감싸주셔서 감사했다. 퇴근할 때 집이 가까운 주무관님 한 분께서 차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셨는데 ‘조사구에서 그런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네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날 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버린 나에게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팀장님들께서 그 곳에 다시 찾아가 줍까지 팔아주시고 오셨는데 주인아주머니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서 나를 사기꾼으로 의심했다고 한다. 술에 취해서 그렇지 평소에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일은 내게 경각심을 주어 조사를 할 때 늘 더 주의하게끔 했다. 나로 인해 팀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날은 두통으로 연가를 내고 집에 있었다.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사무실에서 온 전화라고 생각하여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 전화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전화를 다시 드린다고 일단 끊어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끊지를 않는 것이었다. 결국 머리에 샴푸를 칠한 채로 전화를 건네받았더니 ◇◇동에서 우편물을 본 여자 분이 대답



을 하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일 제대로 안 하나 봐요. 사는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우편물 보내요? 국민세금으로 돈 받으면서 이 따위로 일해요? XX 이거 때문에 화가 나서 동사무소까지 갔다 왔는데…(생략)”

본인이 사는 곳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우편이 오냐는 민원전화였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 하다 보니 이미 이사를 가신 분 성함을 적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다. 지금 그 곳에 사시는 분이 조사대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분에게 이런 설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화를 내고 싶어서 화풀이를 위해 전화한 사람이었다. 아직 어제의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전화까지 받으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동에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기간 내에 가계지출조사 설득을 해야 했기에 조사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결국 □□동으로 조사구가 변경되었다. 대학교인근의 원룸가라서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보고 결과 원룸에 사는 80%가 대학생인데 방학이라 대부분 본가로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부 설득은 1월이고 가계부를 쓰는 달은 2월이어서 평일에 저녁 10시까지 기다려보았지만 본가에 가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집에서 나오는 학생 1명밖에 만날 수가 없었다. 주말에도 가서 기다려보았지만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학생 방학기간 중이라 가계부설득이 어려워 다시 ○○동으로 조사구 대체를 받았다. 그렇게 조사구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바뀐 조사구에 가보니 이곳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주택 반원룸 반인데 주택 중에 몇 집은 사람이 사는 곳 같지가 않고 작업장같이 보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안타까워하시던 000주무관님께서 같이 나가주시겠다고 하셔서 첫 날 함께 출장을 나가게 되었다.

주무관님께서 가계지출조사에 대해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응답자들은 우울증이 있어서,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바빠서 써줄 수 없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불응을 했다. 가계지출설득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도 설득이 어려운데 내가 어설피게 설명했다가는 10가구는 커녕 반도 설득을 못 할 것 같아 겁이 났다.

그러다가 첫 집을 설득에 성공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3시간 가까이 두 번 넘게 돌다보니 얻어낸 결과였다. 주무관님과 차 안에서 사람들이 퇴근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녁이 되어 다시 한 바퀴를 돌았고 한 집 더 설득했다. 모두 다 주무관님 덕분이어서 죄송하고 감사했다. 많이 힘든 시기에 도와주신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설득에 실패하던 성공하던 조사를 계속 할 수 있었다. 하루에 한집밖에 성공하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가구대체를 받고 또 받아 겨우 10집을 설득했다. 가계부를 쓰는 2월이 되어 안내전화를 드렸더니 못 쓰겠다고거나 연락두절이 된 곳이 4가구나 생겨버렸다. 발등에 불 떨어지듯 날짜 안에 또다시 설득을 했다.



날씨가 너무 덥다고 응답자들이 주신 음료
(받으면 안 되지만 목이 너무 말라 감사히 받았습니다)

아직도 조사구에 갈 때 공무원증을 목에 걸지 못하고 있다. 그때 수리한 가방을 메지 못하고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 내가 받았던 상처도 어딘가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때는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무서워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조차 꺼려졌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체험사례로 쓰게 될 날이 올 줄 몰랐다.

그 곳은 다 보이는 벽으로 되어 있었고 주인아주머니와 함께 있었을 때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보면 들어오라는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 밖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들었다. 지금도 가끔 조사가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항상 조심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는 조심성도 생겼다. 그런 상처가 나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 글의 ‘지금 흘린 눈물이 언젠가 진주가 되어 나에게 온다’는 제목은 ‘앨리스, 너만의 길을 그려봐(p50)’를 읽고 참고했다.



마무리

이제 통계청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이제 아주 조금은 업무에 대해 파악한 것 같지만 아직 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업무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 행복을 느낀다. 안 좋은 점은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어떻게 하면 조사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 가끔씩 힘들 때면 그것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한다.

지난 달에도 가계지출조사를 위한 설득과 연동으로 인해 가계소득조사 설득을 해야 했다. 개인적이고 대답하기 꺼려지는 항목을 계속해서 여쭙보면서 죄송스러웠지만 통계청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성실히 응답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가끔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좋은 사람들로 인해 힘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장려상

동북지방통계청
정유진

사례.
열둘



통계청과 함께한 180일



3월 시작. 운전이요? 차요?

140

통계청에서 시작한 나의 공직생활 첫 날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잘 맞는 하루였다. 그렇게 들어가길 바랐고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지명 ‘△△’라는 곳에 배치 받은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통계청 첫 출근 이틀 전에 걸려온 전화 “운전면허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면서도, “면허는 있는데 운전 할 줄은 몰라요.” 내가 말했다.

괜찮다고 배우면 된다는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인가. 위반이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탈락할 뻔한 나에게 운전면허증은 그냥 신분증이였다. 그 전화 이전까지 면접에서도 합격통지를 받을 때도 발령지에 대한 연락을 받을 때에도 통계청에 가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이야



기를 들은 적은 없었다.

‘아... 막연하게 생각 할 게 아니라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아봤어야 했구나. △△에 발령받았을 때 물어봤어야 하는 거였던거군.’

그렇게 생각하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첫 출근 날이었다. 아침에 사무소에 도착해 자리를 안내받았다. 직원들에게 인사를 할 때까지 모든 게 순조로웠다. 동료들의 인상도 부드러웠고 처음 온 곳이지만 사무실 분위기도 좋았다. 그런데 점심 전에 업무 안내를 받으며 들은 말은 충격이었다.



“차를 사야할 거예요.”

차를 사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핸드폰도, 컴퓨터도, 노트북도 아니고 “차”를 사야 한다니. 모집요강 어디에도 ‘자차 보유’라는 말은 없었지 않나.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을 넘어 차를 사라니! 대강 대답한 그 후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 순간순간 그 말이 머리를 울렸다. ‘차를 사야할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내가 탐내지 않겠다고 생각한 두 가지가 있었다. 집 그리고 차. 그 중 하나를 사야 한다니 막막했다. 소득 연관성이 가장 높은 물건이라 생각하는 그 “차”를 사라는 말에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을 거다. 그럴 때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니라고. 그러면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에게 차를 살 돈은 없었다. 결국 집에 돈을 빌려 차를 샀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시동 거는 게 너무 무섭고 언젠가 차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차값 갚을 돈을 모으지도 못했고 서툰 운전으로 차를 굶을 때마다 첫날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간다.

그렇게 현장조사 담당자로서 나의 공무원 경력의 시작되었다.



4월 이걸 뭐예요? 여긴 어디지?

부산과 △△를 매주 다니며 운전연수를 받고 관용차를 몰고 현장으로 나갔다(△△에서 주말에 운전연수를 받는 건 무리였다). 초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컸어도 농작물에 대해 아는 건 없었고 채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풀은 풀이요 나무는 나무일 뿐이었다. 운전도 서툴고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주로 한 일은 경영주에게,

“이건 뭐예요?”

“아... 마늘. 그럼 이걸 뭐예요?”

“아... 대파.”라며 묻고 답하는 것과 사진을 찍어 와서 사무실 분들에게 묻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의 약점(?)이 빛을 발한다.

기억력에 별 문제가 없는 내가 남에 비해 대단히 못하는 일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건 길을 찾는 것과 사물의 외형을 구분하는 일이다. 20년을 산 부산에서도 길을 잘 몰랐는데 길눈이 어두워서 열심히 생각하면서 다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해 핀잔을 듣곤 한다.

더 문제는 사람,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외형을 뭉뚱그려 구분하지 세세하게 구분 못하는 점이었다. 고양이 4마리를 키웠는데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무늬랑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도 구별하지 못했고, 친구는 물론 길에서 가족도

긴가민가 하는가 하면, 학교 앞에서 동생을 찾을 때 인상착의로 찾곤 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현장조사에선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이니 나에게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를 구분하고 농가 경영주분들, 사회조사 응답자 분들을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알아보는 일은 너무 힘들었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찾을 때마다 바로 눈앞에 두고도 000어르신 어디 계시냐고 묻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응답자의 경우 여러번 만난 분인데도 조사구 앞에서 만났을 때 여기 사는 분이냐고 묻기 일쑤였다.

거기다 참외가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을 만큼 농사에 문외한이었으니 조사는 힘들고 매번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경영주 분들에게 묻고 자로, 발로 재어가며 밭의 지도를 그려도 다음 방문이면 새로운 작물도 있고 모습도 달라져 또 묻곤 했다. 인터넷으로 작물들을 찾아보고 혼자 생육주기표를 그려도 단기간에 현장에 적용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만들고 봐도 잘 모르겠다는 점만 깨달을 뿐이었으며 묻고 책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는 외에 다른 방안이 필요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많이 서툴고 헤매지만 그래도 일을 패턴에 조금 익숙해져 가는 시점에 내가 생각한 방법은 응답자를 선생님이로 삼는 거였다.



5월 응답자를 선생님이로 삼다

◎ 논벼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농산물생산비조사 가구는 모두 4가구로 모두 논벼 생산비 농가이다. 논벼가 그나마 편하다고 하지만 초보에겐 뭐 하나 쉬운 일은 없었다. 거기다 4가구 중 3가구는 응답을 그렇게 잘 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대체농



가인 □□□님은 유일한 위안이였다.

친절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내가 농사를 잘 모르니 작년에 쓴 일지와 판매자료를 가지고 와서 벼의 작업 주기부터 판매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농기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 직접 농기계 창고로 데려가 사용법도 설명해 주시고 트랙터 시동을 걸어 작동하는 것도 보여주셨다.

“농사는 별로 할 게 없어. 요즘은 기계가 다 하고, 밭을 조사하러 온 거면 자료도 많고 한데”라며 오히려 자료를 많이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셨다.

그렇게 □□□님에게 많이 배워 다른 농가에도 적용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월초가 되면 □□□님의 농가를 먼저 방문해 작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농가에 가서 작업을 했는지 묻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다.

□□□님에게 단지 농사 방법 뿐 아니라 농가의 이야기 등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다른 농가 한 분이 토마토 하우스에 일 하러 다니시는데 그 하우스가 수출용 특별한 토마토를 키우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집을 방문해서 토마토에 대해 이야기 하며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그리고 △△라는 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던 부산과 △△는 다른 점이 꽤 많았는데 그런 점들이 꽤나 흥미로웠다.

◎ 사랑으로 키우는 오이



오이하우스를 하는 000님은 작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농사에 임하는 자세와 농촌의 현실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이였다. 고용인 없이 부부 두분에서 오이하우스 농사를 지으셨는데 아직 1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꽤 수익을 내는 농가

이다. 인수인계 이후 처음 방문 했을 때부터 000님의 농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애들도 다 알고 사랑을 쏟는 만큼 자라거든요.”

“식물들은 말을 못 하는 만큼 더 신경 써서 봐야 해요.”

“식물은 정직하기 때문에 키우는 보람이 있죠.”

“하루라도 정성을 안 쏟으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농사라는 일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을 빛내셨다.

000님은 평소에도 작업과 일정에 대한 기록을 하지만 매년 6월 작년에 심은 오이 농사가 끝나면 1년을 돌아보는 글을 쓰고 다음해 1년의 계획을 세운다고 하신다.

“농부의 1년은 일반 달력과는 달리 무엇을 재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사가 좋은 것이 주기가 있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거든요.”라고 말씀하시며 다이어리를 보여 주셨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고 1년이라는 선은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년 1월 1일이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고를 반복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작물을 키우며 보내는 1년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것. ‘1년’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농사라는 것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월급 받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았다.

물론, 모든 경영주 분들이 000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더 좋은 오이를 생산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오이를 사랑하는 것이 이 오이하우스의 비밀이었다.



000님과 이야기를 하며 농촌의 현실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신문기사나 글로 보는 것보다 훨씬 와 닿았고 경영주 분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좋은 선생님이었고 농가 분들과 친해지고 두려움이 줄어들자 현장조사에 대한 재미도 생기기 시작했다. 또, 응답자와 개인적으로 친해져야 조사가 잘 된다는 말이 와 닿지 않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알 것 같았다.



6월 가까워지는 만큼 많이 알게 된다.

6월 가까워지는 만큼 많이 알게 된다.

상담사나 조사원과 같은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친해져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그냥 교과서적인 말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친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응답을 잘 해주시는 분들은 친해지면 더 많은 것을 알려 주셨고, 처음에는 어색해 하고 꺼려하시던 분도 여러 번 얼굴을 보니 점점 부드러워 지시는 걸 느꼈다. 같은 버스를 3번 같이 타면 상대가 인사를 하면 ‘아는 사람’이라고 인식해 인사를 받아 주더라는 실험을 본 적이 있다. 통계청 조사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고 석 달 정도 지나니 무언가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 칭찬은 응답자의 마음을 연다

칭찬은 상대방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건 응답자와 조사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소한 말이라도 응답자의 기분을 좋게 해 분위기

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밑도 끝도 없는 칭찬은 오히려 분위기를 어색하게 할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칭찬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의 장점을 찾는 게 중요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은 다른 이야기를 끌어내기에 좋았다.

“두 분 사이가 참 좋으세요.”

같은 말을 건네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 지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응답자들이 기뻐하는 말은 자녀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자녀분들 다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회계사 시험 진짜 어려운데 공부 잘 했나 봐요.”

“요즘 통일부가 일이 많다던데 아드님도 바쁘시죠?”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말을 붙였을 때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이야깃거리가 많아진다. 자녀 이야기에서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찾을 수 없지만 응답자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더 솔직한 대답을 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조사에 익숙해지면 응답자가 먼저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을 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기도 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대상처의 응답자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집을 설득하고 대상가구로 만드는 일은 참 막막하고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나의 첫 설득은 어렵고 새로웠으며 고마운 여정이었다.





7월 설득의 기술

조사 일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대체, 연동, 설득 같은 단어는 참 무거운 말 일 것이다. 나도 그렇다. 첫 설득이 눈앞에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농업팀장님과 멘토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다. 아마도 나에게만 파란 만장했던 세 사람의 설득기였다.

첫 대체는 조사 시작 두 달된 농가의 완강한 거부로 시작되었다.

“사무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불러오면 내가 난동이라도 부려 줄 테니까!”

나를 불러 붉으락푸르락하며 싫다고 화를 내었다.

무섭기도 하고 아무리 이 조사가 중요하고 표본을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해도 안돼서 결국 멘토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불응가구와 이야기를 해보고 대체가 결정되었다. 초기에 바꾸는 게 낫다고 괜히 억지로 끌고 가면 더 안 좋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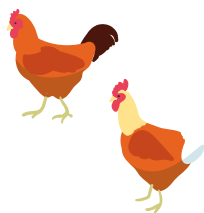
대체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한 날로 며칠 뒤 3농가의 명부가 내려왔다. ‘방법도 전혀 모르는데 혼자 나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멘토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나가 주셨다. 속으로는 기뻐서 뛰었지만 표현을 잘 못한 게 아쉽다.

첫 번째 집은 cctv와 철조망으로 무장한 집이었다. 벨 소리를 듣고 나온 아주머니는 딱 보기에다 경계심이 넘쳤고 완강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번째 집은 농가 부적합 대상처였고 마지막 설득에는 팀장님도 함께 나가 주셨다.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를 진행 시키고 좀 해달라는 말에 응답자도 알겠다고 했다.

‘이게 경험이고 전문성이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대상 농가가 바뀌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농가에서 말한 밭에 가보았는데 아뵘싸! 주변 땅이 분쟁이 붙어서 밭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에 경영주 분이 건강도 안 좋아져서 부업인 가게만 하겠다고 하니 한 달 만에 다시 대체를 해야 했다.

다시 며칠 뒤 두 번째 대체농가 목록이 내려왔다. 두 번째니까 혼자가야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셋이 함께 나가게 되었다. 처음 농가에서 이야기가 잘 진행되었는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 농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 응답자도 좋아 보였는데 아쉬웠다. 두 번째 집의 1/3쯤 썩은 나무대문을 들어서자 사방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한쪽에는 토끼우리와 닭장이 있는 뭔가 복잡한 집이었다. 험악한 인상의 전직 공무원이라는 응답자는 화를 많이 내었다. 그렇게만 말해주겠다. 그 집을 나서면서 팀장님이



“혼자 왔으면 무서웠을 거예요”라고 하셨다.

속으로 그 집은 사실 대문이 열리기 전부터 무서웠고 만약 혼자 왔으면 문전 박대해 주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집들도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농가는 모두 위탁을 준 부적합 농가였다. 보고를 하자 이번에는 더 빨리 대상처 목록이 내려왔다.

다시 셋이 설득에 나섰다. 삼총사가 된 기분이다. 첫 번째 집은 또 다시 부적합 가구였다. 왜 이렇게 부적합 가구가 많은가 생각하며 두 번째 집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되고 통계청이라고 하자 지난달까지 다른 조사 대상자였으며 전화를 끊었다. 당황스러웠지만 한 번 방문해서 설득해 보기로 했다. 집 근처에서 전화를 하자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고는 방



문제도 좋다고 하길래 집으로 갔다. 이번에도 팀장님이 설득에 나섰다.

“다른 조사 했었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별로 힘든 거 아니니까. 좀 도와주시죠.”

다른 조사구였다는 점을 오히려 대상 가구가 될 장점으로 이야기 하며 설득 하였고,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다행히 그 집은 집 앞 텃밭과 감밭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에 걸친, 7번의 대체 농가 설득이 일단락되었다. 또 하나의 산을 넘는 기분이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었지만 대체가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었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다. 나도 곧 혼자 설득에 나서게 될 거고 그를 위한 준비 운동 같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연동, 구역확대, 대체 같은 일은 아무리 지나도 쉬워지진 않을 것 같다. 다만 계속 하다보면 언젠가 덜 두려워지고 더 잘 하게 될 수는 있을 것이다.



8월 6개월을 돌아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다. 늘 그렇듯 시간은 앞에 두면 막막하고 뒤에 두면 짧은 듯하다. 처음의 막막함을 넘어 그래도 해나가게 된 이유들과 이 일의 보람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 혼자가 아니다

이전까지 했던 일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내 일만 하면 되는 일들이었는데, 통계청에서 일하며 동료의 중요성과 고마움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어쩌다 만난 그렇지 않은 사

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 면에서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좋은 사람인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었다.

기초적인 질문에도 모두들 싫은 기색 없이 대답을 해 주었고, 현장 경험도 많이 이야기 해 줘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응답자와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되었다.

멘토는 첫 달 내내 같이 출장을 나가 주었고 산에 작물 보러도 같이 가주셨다. 거기에 설득까지 같이 나가주었는데 다른 분들에 따르면 보통 이 정도까지 챙겨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했다. 담당팀장님은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 잘 좀 도와달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여러 번 부탁도 해주셨다. 멘토와 팀장님들을 참 잘 만났다는 생각을 했다.

◎ 시야를 넓히다

사람마다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 같은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현장조사를 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다양한 삶에 일면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늘 만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나쁘지 않지만 딱히 좋은 일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알 수 없었던 다른 삶과 만나면서 내 시야가 넓어진 것이 나에겐 새롭고 보람된 일이었다. 그리고 일을 즐길 수 있는 동기로도 작용했다.

◎ 응답자들

일을 하다 보니 응답자들에게 고마울 때가 많았다. 물론, 이야기 하는 것이 힘든 응답자들도 있었다. 상품권도 필요 없으니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



고 왜 그런 걸 꼬치꼬치 묻냐고 소리치는 분도 있었다. 또 때면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 놓는 응답자도 있었고, 다른 데서 기분 나빴던 일을 하소연 하는 분들도 있었다. ‘해결 할 수 없어도 듣는 것만이라도 해야지’하는 생각에 열심히 들어도 지치는 경우도 있었다.

잘 해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마웠다. 그렇다고 나에게 나쁘게 대한 분들도 나쁜 분들은 아니었다. 그냥 번거로운 게 싫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릴 뿐이었다. 그래서 싫다고 하면서도 물음에 답해주는 점도 고마웠다.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의 힘들었던 점과 고마웠던 점 모두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6개월이 지났어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많이 무섭고 힘들다. 6개월을 다닌 집이어도 집 안에 들어오라는 말에 몸이 굳곤 한다. 이 두려움은 나에게 비행 공포와 같은 것이라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오늘도 출장을 나가는 건 좋은 분들이 더 많고 이 일이 주는 보람들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아무리 다녀도 낯선 골목을 더듬 더듬 찾아 대상처로 간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벨을 누르고는,

“통계청에서 왔습니다”하고 말한다.





장려상

호남지방통계청
유 해 경

사례,
열셋

완벽한 하루를 꿈꾸는 나는 통계조사 직원이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가장 원하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라도 만족스럽게 마무리 짓고 밀도 있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완벽한 하루다.

바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사는 것, 부피가 아니라 '밀도',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나는 매일 꿈꾼다.

아직 접해보지 못한 조사업무도 많고 조사종목별 시기, 특성이 다르다 보니 내가 직접 조사한 내용임에도 가끔 생소한 부분이 많아 도움이 필요한 초급 통계 직원이다.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나에겐 생소한 업무다.
전 담당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업무에 대한 경험과 축산 농가의 설득 부족으로 매일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기존 조사 방식대로 조사했음에 불구하고 불응, 거부 대상처가 속출하고, 급기야는 그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연락이 두절된 농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 농가의 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안부문자 및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SNS를 통해 알렸더니, 어느 순간 한겨울 눈 녹듯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전문 축산경영인보다는 농부에 더 가깝고 서툴고 두서없이 여기저기 널브러진 사료비, 약품 내역서... 등 각종 축산관련 서류들이 어느 순간 차곡차곡 정리된 서류로 탈바꿈되었고, '더 필요한 것 없냐!'고 묻는 축산경영주와 인연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구 표본조사가 끝났다.

지난해 말부터 표본개편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처음 접하는 표본개편이라 설렘보다 부담, 긴장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 통계라는 인연으로 5년간 꾸려갈지...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조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시작하기 전에 표본개편에 대한 기존 선배님들의 다양하고 어마 무시한 경험담과 설득의 노하우까지 각양각색의 해법들로 가득한 그때 그날의 어수선했던 사무실 분위기를 기억한다.

새로 개편된 신 표본 7축종 중 산란계를 제외하고 6축종 농가에 대해 축산물생산비조사를 한다. 축종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경영주의 비위를 맞추기란 여간 쉽지가 않다. 사전에 전화통화는 했지만 워낙 부정적이라서 몇

번의 설득 끝에 방문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차문을 열고 나설 용기가 부족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야!’

‘피할 수 없으면 정면 돌파!’

‘뭘 별거 있겠어!’

나를 자기 최면을 걸어봤지만 엄청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0000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건만 축사일이란 예상 밖이라 축사 내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경영주는 힐끗 나를 한번 쳐다보고 몇 마디 하더니 그냥 가라고 한다.

“왜 우리 집이냐?”

“바쁘니까 다른 집 조사해라…….”

“축사 이집 저집 다니면 가축방역에 문제가 되는데 @%.%%@#2”

“지금은 일하는 것 안보이냐?! @\$\$\$%\$%% 시간어 없다…….”

“잘 할 수 있는 집을 알려 줄 테니…….”

“제외대상 사유가 아니면 표본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렵게 운을 띄웠지만 말할 틈도 없이 일방적인 대화중단 또는 가축사육에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볼멘소리만 쏟아낸다.

“바쁘시니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섰지만 웬지 모르게 씩씩했다.

다음날 방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중이다.

“바쁜 일로 좀 멀리 나왔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전화 음성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 항목마다 조사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가축 방역 문제로 예민한 경영주는 축사 방문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며, 처음 표본설득 대상처 방문은 경영주 일정을 고려한 사전방문이 허락된 현장조사 업무인 것을 감안하면 솔직히 설득 보다는 만남이 어려운 조사가 축산물생산비조사인 것 같다.

15개 농가 신 표본 대상처 설득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3회 이상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축산 특성상 축사에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적당하고 딱 알맞은 시간, 즉 대상처의 골든타임에 맞춰 조사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 아니다. 때로는 같은 지역을 여러번 반복해서 방문하는 날도 있고, 그 중 번식우 농가는 농업과 축산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보통 낮 시간대는 면담하기 어렵다.

보통 저녁 시간이 되어야 조사가 가능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방문이 어려워 주로 전화조사를 많이 한다. 늦은 시간에 전화로 자주 안부를 묻다보니 집안사정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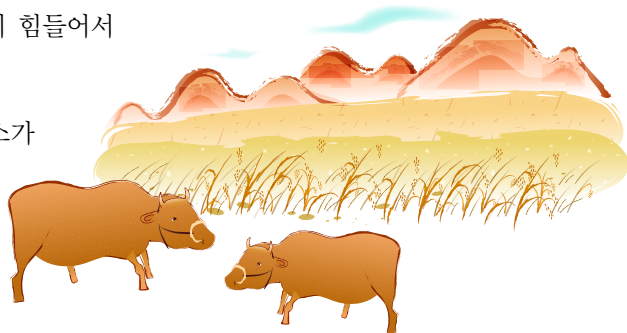
최근 퇴근 후 여가활동으로 주2회 지역자치센터에서 실시하는 요가 프로그램에 우연히 00축종 대상처 배우자와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통계라는 인연으로 서로 옆에 앉아 뻗뻗해서 잘 안 되는 요가동작을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축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소소한 일상에 대한 얘기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사료를 잘 먹지도 않고…”

“몸 여기저기 아프고 축사 일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새끼를 낳는 애미소가 못 일어나…” 기타 등등…

요가 하면서 업무라니 좀 우



습지만 많이 친숙해져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많이 수월해 졌다.
물론 세부적인 조사는 경영주와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백 마디 말보다 보도자료로 통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를 방문하여 해당 축종 사육현황을 묻는 경영주의 반응은 열에 아홉은 매우 부정적이며 사전약속을 하고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한 바가지를 얻어먹는 게 다반사다. 이것이 바로 굳이 찾아가서 욕을 먹는 감정노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대다수의 축산 농가는 통계조사가 도움은커녕 조사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가축의 특성상 이미 축산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계조사도 가축 관리 감독의 일원인 양 축사 일에 방해만 되는 아주 귀찮은 조사라고 미리 짐작하여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실이 이러하니 참으로 난감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보았다.

매년 5월 발표되는 최종 보도자료 즉 ‘축산물생산비조사 보도자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축산경영주는 축종에 따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므로 가격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최근 보도자료를 정성껏 서류 봉투에 담아 축산 경영주와 만남이 이루어지면 아주 진지하게 꼭 설득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손하게 보도자료를 내밀었다.



“저희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축 7축종을 대상으로 축종별 사육규모별로 표본수를 분배하여...(중간생략)...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 농가입니다.”

생소한 숫자들로 가득한 보도 자료를 처음엔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 하면서 일단 받았으니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과 직접 관련된 통계자료이므로 축산경영주는 한동안 말없이 보도 자료를 넘기기만 했다.

“요즘 000 가격이 많이 내렸죠!!”

“통계자료에 의하면 00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나는 축사 경험은 없지만 미리 본 통계자료 덕분에 축산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서 축산 농가를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축산경영주 입장에서 축산담당자로서 축산에 관한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법 진지하게 나와 시선을 마주치고 다시 한 번 보도 자료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나는 차근차근 보도 자료를 먼저 설명해주고 조사 대상 축종에 대해 전체 표본수중에서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며 00축종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 중요한 대상처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최종 보도 자료까지 생성되고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직·간접적으로 농가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면 90% 이상은 거의 설득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계 보도자료 역시 짱!!

그런데 고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도 가끔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 부부운영으로만 경영하는 축종농가일수록 집안의 주도권이 어느 한 쪽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아무 도움도 안 돼! 바빠 죽겠는데 쓸 데 없는 짓 하지 마!” 하고 잘 설득당

하는 배우자에게 한소리 하고 뿡~~ 하고 나가버린다.

그러면 아주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는 누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뉘지므로 재빨리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항상 내가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집 경리 직원임을 자청하고 나섰다. 내 오지랖이 문제다.

“최종 출하단계까지 사육비 및 경영비 계산은 해보셨어요? 축산업도 경영입니다. 저를 직원 채용했다고 생각하시고 000사육에 관한 생산비 계산 및 서류 정리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론 통계조사 비밀은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가끔은 조사 필수품이 한 몫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습게 생각하는 작은 액수의 조사 필수품(농협상품권)이지만 전국 축산물생산비조사에 5년간 필요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중요한 통계조사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축산 농가를 좀 더 이해하려고 축산에 관련 정보를 찾고 필요한 서류양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더니 조사 업무에 대한 신뢰감이 쌓여 조사대상처 스스로 표본조사 대상처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조사시기가 되면 먼저 전화해서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다고 챙겨주는 배려와 그 외 방법으로 팩스, SNS를 통한 필요한 자료를 자청하여 먼저 보내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오늘 하루도 완벽하다.





어쩌다 증매쟁이로 나서다 - 비육우와 젖소 만남

새로 개편된 표본은 구표본과 다르게 젊은 자녀세대 중심으로 부모와 같이 혹은 대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내가 조사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약 40%를 차지한다.

한 번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증매쟁이 노릇을 했던 적이 있었다.

각각 면(面)은 다르지만 같은 관할 지역에서 서로 비슷한 규모의 젖소 사육 농가로 하나는 ☆☆☆(젖소), 또 하나는 000(육우) 대상으로 매월 축산물생산 비조사를 한다. 물론 조사율은 100%다.

000(육우)농가 대상이지만 젖소의 비중이 많아 경영주 부부와 딸이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젖소)농가는 2년 전부터 외부활동이 많은 경영주를 대신해 아들이 본격적으로 축산경영에 개입하면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도 채용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조사 업무로 축사를 오고가며 내심 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젖소) 농가 어머니하고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 아들의 결혼 이야기기 나왔다. 000(육우) 농가의 딸을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약간 거들었을 뿐인데 일은 일사천리 진행하게 되었다.

아주 좋은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니 술 석잔은 아니더라도 뺨 석대는 면했다 싶다. 둘 다 30세 초반으로 결혼할 적령기에 좁은 지역에서 소식통은 엄청 빠르다. 조사기간 방문하면 어쩌나 반갑게 맞이해 주던지 조사업무의 보람 중 보너스가 아닌가 한다.





장려상

호남지방통계청
김정선

사례.
열넷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에필로그

현재 우리 시대는 인공 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 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극단적으로 겪어 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길목에 서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기존의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업종이 생성되는 사회 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변혁기에 서 있는 나는 오늘도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의 핵심인 인공지능으로서는 절대로 해 낼 수 없는 현장조사 업무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간다.

나는 십여 년간 유치원 교사생활을 하다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열심히 육아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통계청이라는 낯설고도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듣고도 ‘통계청? 아~ 그런 데도 있구나~’ 하며 쉽게 흘려 넘겼었다. 그런데 웬지 모르게 그 짧고 간결한 통계청이란 단어가 자꾸만 뇌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서서히 다가온 통계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지인의 소개로 2015년 경제총조사 현장조사원으로 말이다.

지금은 호남지방통계청 ○○부서에서 어엿한 한사람의 몫으로 소비자물가 조사 및 서비스동향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어려움 없이 알아서 척척 잘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막상 현장조사에서 체험한 사례를 떠올려보니 적지 않은 일들이 추억이 되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이 남는 일들은 연간업무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지역별고용조사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조사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거리로 삼고자 한다.





에피소드 1

푸르른 풀내음이 스르륵 꽃내를 내미는 어느 날, 지역별고용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일이다. 광산구 임곡 쪽 어느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두 개의 산이 잘 정돈된 마을 하나를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이 흡사 두 손에 호두를 껍질 채 감싸 안은 듯 포근한 정취가 나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 곳이었다.

최근 들어 젊은 귀농인들이 일반 농가주택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특이한 별장식으로 집을 지어 사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유독 그 마을엔 화려하게 꾸며진 집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긴 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를 위해 조사구 명부 주소를 보며 찾다가 화려한 별장처럼 생긴 집들 사이에 유독 복숭아나무들이 많이 심어져있는 아담한 집 한 채가 보였다. 바로 내가 찾던 주소다!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한 나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제법 큰 소리로 인사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왈~ 왈~ 왈~”여러 마리 개들의 대답만 들려왔다.

돌아가야 하나 잠시 망설인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대문을 열어보았다. 그랬더니 잠겨있지 않았던 문이 스르륵 열리고, 다행히 목줄에 걸려있어 나에게 달려들지는 못하는 커다란 개 세 마리가 나를 보고 무섭게 짖어댄다.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나 나쁜 사람 아니야~”라며 약간 겁먹은 듯 작은 소리로 말하며 현관문 앞으로 몇 발짝 다다랐을 때였다. “밖에 누구요? 누구 왔소?”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반가운 사람의 목소리였다. 난 너무 반가워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호남지방 통계청 조사원 ○○○이라고 합니다.” 끼이익 하는 문 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연로해 보이시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오셨다.

“누구라고? 내가 잘 안 들려~!”

“통계청 조사원 ○○○이라고 해요~! 할머니~ 통계청에서 고용조사 하러 왔어요. 해마다 치약 들고 고무장갑 들고 저희 조사원들이 방문했을 거예요.”

“뭘 말인지 원, 안 들려~~ 어디 보청기가 있는디 안봐~ 어디 있을 것인디 ~”

“할머니 혹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찾아봐드려도 될까요?”

“이잉~ 그라~~ 들어와 찾아봐잉~”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나는 할머니께서 있을만한 곳을 말씀 해주시는 데로 열심히 보청기를 찾아보았다. 한참을 이곳저곳 있을만한 곳을 찾은 후에야 욕실에서 찾아낸 보청기를 착용하신 할머니는 드디어 잘 들린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전 통계청 조사원 ○○○이라고 해요. 지역별고용조사라 해서 매년 두 번씩 찾아뵙고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쭙보는 그 조사하러 왔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여쭙보러 왔어요~.”

“아~ 이잉~ 나 뭘지 알아~~. 작년에 고무장갑 줬었제~”

“네네 맞아요 할머니, 그 조사예요. 올해는 칫솔 들고 왔어요~.”

이미 몇 차례 경험을 하셨던 조사인지라 할머니의 매우 호의적인 모습에 기분 좋게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차분히 앉아서 할머니댁의 정보탐색은 이렇게 도란도란 엄마와 딸의 대화처럼 이루어지게 되었다.



할머니는 홀로 생활하고 계시고 아들은 일주일에 두어 번 찾아와 같이 밥도 먹고 집안일이나 복숭아나무들도 돌보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나 20년생이여~, 1920년.”

듣기만 조금 불편해 보일 뿐 정정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20년이란 숫자에 대해 한참이나 머리를 굴린 끝에 나온 나이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너무 정정해보이세요. 할머니님 70대이신 줄 알았어요.”

“뭘시 그랴 늙었제 늙어.”

“아니예요. 할머니 저 빈말 못해요~, 진짜루 굉장히 젊어보이세요~~”

“그랴~? 그래도 그런 소리 들으니께 기분은 좋구만~ 흥흥흥.”

그 뒤로 할머니가 헤쳐 나온 인생이야기며 젊은 내가 사는 이야기로 한참을 신나게 보낸 후 아쉽지만 다음 집도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꾸벅 인사하고 나서려 할 때였다.

“오메! 근디 우짤디야~ 이리 이쁜 사람 올 집 복숭아가 겁나게 맛난디~ 맛 못 봐서 우짤디야~~ 맛 보든 겁나 맛있다 할 것 인디.”

“하하하! 저 이빠요? 할머니! 근데 복숭아 저 주실 거 있으세요? 팔아야 하시는 거 아니구요?”

“저거 쪼개를 머더게 팔어~ 안팔어~ 이번 여름에 다시 와잉~ 내가 복숭아 줄팅게~”

순간 나는 어릴 적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나며 나도 모르게 울컥했지만 활짝 웃으며,

“그럼 저 제 새끼들 다 데꼬 와도 되요? 저 셋 다 데꼬 와요?”



“그라~ 와~ 다 데꼬 와~ 꼭 와잉~.”

그때 97세셨던 할머니가 꼭 오라며 두 손을 꼭 잡아 주시던 온기를 난 한동안 난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드라이브 삼아 임곡 쪽으로 향하였다. 두 손엔 할머니가 좋아하실 빵과 과자를 들고 말이다. 처음 방문 때처럼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심히 들어가니 할머니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며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주시며 그러잖아도 좋은 것으로 아껴두었다 하시며 복숭아를 한 소쿠리나 가지고 나오셨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가 자랑하신 맛있는 복숭아도 먹고 복숭아나무 구경도 하고 커다란 개들과 함께 한참을 놀았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와 인사를 해야 하는데 한 가족 같은 분위기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건강하시라며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할머니도 그렇그렇 눈시울을 적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왜 울어~ 또 오든 되지~ 울지 말어~.”

“네 할머니 저 다시 또 올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셔야 되요.”

친딸도 친손녀도 아닌 갓 두 번째 본 나를 이리 가족처럼 환대하고 예뻐해주시는 할머니가 조사대상처가 아닌 친정 할머니처럼 다가온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할머니의 마음은 어찌 저리도 투명하고 천사 같으실까...



그 이후 나는 사회조사, 경제조사, 고용조사 등의 조사원으로 참여하다보니
 다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한 사람 한사람의 인
 생 이야기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위에서 좋게 봐주신 덕분에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에
 기간제조사원으로 입직을 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1일, 전날 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밤잠을 설치고 내 짧은 인
 생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첫 출근을 하였다. 그동안 다른 조사지원차 자
 주 방문하였던 호남지방통계청의 건물이 그날따라 커다랗고 웅장해 보였던 건
 왜인지, 그리고 왜 그리 갑자기 낯선지... 경제조사과 첫 방문에 직원 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나에겐 소비자물가조사와 서비스동향조사라는 생소한
 조사지침서가 주어졌다.

현장조사 요령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었다. 처음엔 도통 무슨 말인지 이
 해가 안가 어려워하고 있었더니 교육
 해주시는 공무원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열심히 듣기만
 하라고 하신다.



“밥 한술에 배 안 부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듣기
 만 하시고, 내일부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인수 받으시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 할 수 있을 겁니다.”

급한 성격의 나는 어서 빨리 이해하고 싶은 맘이 있었으나 시키는 대로 다음
 날부터 현장에서 풍부한 스킬을 가지신 인계자를 통해 조사요령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여유를 가지는 첫 시작점이었다.



에피소드 2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부진이 더욱 심각해진 것 같다. 내 조사구인 광주 5권역 소비자물가조사 대상처도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비자물가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특성상 폭우, 폭설, 폭풍과 무관하게 정해진 날에 조사를 꼭 해야 한다. 2018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다. 난 그 날도 어김없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열심히 동선에 맞춰 따라다니고 있었다. 두 손에는 지난달에 폐업된 OOpc방을 대신할 다른 동종pc방들의 명단이 쥐어져 있었다. 기존 사업체를 방문 할 때는 비오면 비 온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아 신나게 일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체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을 한가득 안고 방문 사업체 문 앞에서 3초간 심호흡을 하게 된다.

그날도 어김없이 심호흡 세 번을 한 후 첫 번째 OOpc방에 들어섰다. 카운터에는 젊은 남자분이 앉아계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지방통계청 경제과 ○○○이라고 합니다.”며 예쁘게 웃으며 명함을 드렸다.

“아. 예.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지금 안 계신데요.”

“아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소비자물가조사 차 방문하였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라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 잠시만요”하며 자리를 뜬 직원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10분쯤 지난 후에야 돌아온다.

“저 죄송한데요. 사장님이 무조건 안 한다 그러시네요.”

“아... 저 어려운 조사 아니에요~. 한 시간 00pc방 이
 용료만 한 달에 한번 제가 방문하거나 전화로 여쭙보면
 됩니다. 한번 정해진 요금이 월별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 가격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조사예요. 사장님 한 번
 뵙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사장님이 바쁘셔서요. 죄송합니다.”

이대로 물러서야 하나 잠시 고민한 나는 그래도 방문했던 00pc방이 규모도
 크고 손님들이 많이 찾는 위치로 대중성에서 물가대상처로 꼭 맞는 것 같아 다
 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보았다.

“그럼 제 명함과 이 리플릿(leaflet), 사장님께 전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저
 다음에 다시 한 번 방문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나는 다시 한 번 00pc방을 방문하게 되었다. 카운터에는
 그때 봤던 젊은 남자분과 사장님 포스의 중년의 남자분이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저번에 찾아뵈었던 호남지방통계청 경제과 ○○
 ○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사장님 그때 전해드린 리플릿(leaflet) 읽어보셨어요?”

“예예. 저 통계청이 뭐 하는지 알아요. 저 예전에 기자였어요.”

“아~ 정말요? 그럼 이 조사의 중요성을 잘 아시겠네요?”

“모르겠는데요. 나한테 도움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거 다 뺑이잖아요~”

나는 순간, 허탈감과 허무함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저 지금 이리 땀 나는 거 안 보이시나요?”

나는 땀으로 범벅이 된 내 얼굴과 땀 때문에 젖은 내 등을 보이며 말했다.

“거짓말이라니요~~ 사장님, 저처럼 전국에서 담당직원 분들이 이리 뜨거운 날에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리 말씀하시니 저 너무 슬퍼지네요.”

“아. 네에~.”

사장님이 약간 당황하시는 게 눈에 보이자 나는 더 당당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사장님 도움이 안 된 게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몸으로 못 느끼실 뿐, 사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 가족들도 다 도움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사장님 같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만 국가 기 초통계가 더 정확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닌데 좀 협조해주십시오.”

얼굴까지 벌겍게 된 나를 가만히 보시던 사장님이 그제야

“그래요? 하하하!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아~ 이 순식간에 뒤바뀐 행복한 반전은 무엇인가’ 나는 더 설득해야 할 것 같아서 뭔가 더 얘기하려다가 급 방긋 웃으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저 잠시 앉아서 얘기해도 될까요? 다리 힘이 급 풀려서요…. 호호”

“네네. 앉으세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잔 타 드릴까요?”

“정말요? 주시면 정말 감사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고 나서야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소비자물가지수 대상처 선정이나 대체할 때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광주의 물가는 다른

도시에 비해 어떤지 궁금한 것도 많다. 물론 틈새를 놓치지 않고 pc방 경기 흐름도 여쭙보고 난 후에도 사장님 가족이야기까지 끝낸 후 다음 달에 다시 찾아 뵙기를 약속하고 00pc방을 나오게 되었다.

처음 거절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방문하여 대상처 확보에 골인한 나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다.’는 대사를 잊지 않기로 또다시 다짐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얼마 전 옆에 앉아계시던 주무관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씨는 뭐가 그리 행복해요? 왜 늘 웃고 있어요?”라고 물어보셨다. 난 그 물음에 얼마 전 걷다가 빠끗해서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발목을 보이며,

“주무관님, 저 이런데 제가 마냥 행복할까요? 행복하려고 노력할까요?”

“아. 그렇군요~. 하하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란 사람의 말이다. 나는 ‘나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고, 가정의 행복이 나라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참기 힘든 시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또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면서 주위사람들에게 “○○씨는 뭐가 그리 행복해요?”라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그리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리라고….



장려상

호남지방통계청
윤 천 광

사례,
열다섯



농어업표본 개편을 마치고 (빛과 그림자)

통계청에 몸담은 25여년 동안 5번에 걸쳐 표본 개편을 했고 개편 할 때마다
매번 쉬운 경우는 없었지만, 점점 1인 가구, 노령화, 사생활 노출 기피 등 불
응가구로 인하여 조사환경은 날로 악화 되어가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2017년 농어업표본 개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의 땀과 노력과 희생으로 성공할 수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1가구의 표본선정을 위해 24가구를
방문했던 기억은 어찌 보면 통계청 모든 직원들이 겪어
야 만 할 운명인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의 표본개편 과정에서 느꼈던 체
험사례를 모아 공유하여 추후 표본
개편 시 참고로 활용하였으
면 합니다.





행복한 노부부

반갑게 맞아주시는 노부부의 모습이 무척이나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연세(75세)가 많아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들지만 방문 취지를 설명해 드리니까 젊었을 때 마을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면서 흔쾌히 승낙하신다. 조사표를 맡기고도 긴가 민가 하는 상태로 지켜본 그 후 기록하여 주신 조사표는 진정성을 가지고 어느 표본가구보다 더 열심히 기록하여 주신다, 자녀들이 전부 도시로 출타하여 대화가 그리운 노부부를 위해 출장 동선을 마지막 가구로 선정하여 인생 경험담도 듣고 대화를 하다보면 귀청이 낮아지지만 많은 보람을 느낀다.



* 표본가구 선정 시 고령이라 안 된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표본가구를 선정할 것

173



빚나간 호심

나른한 오후 어업규모가 큰 대상가구를 방문하는데 규모가 큰 가구일수록 바쁘다는 핑계로 협조도가 극히 낮고 낮에 만난다는 것은 나에게 행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문하는데 다행히 가구주가 맞아주는데 약속을 한 상태라 더 긴장된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 잠시 업무적인 것을 내려놓고 일상적인 대화와 어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다보니 뜻이 통하였던지 조사표를 놔두고 가라하신다.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선 그 순간 “아빠, 하지 마세요”라는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면서 방에서 따님이 나오면서 절대 하지 말라며 왜 아빠를 괴롭히냐고 따지듯이 대는데 참으로 난감하고 화도 나지만 꼭 참고 다시 설명



을 하려는데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나가라 한다. 분위기가 어색했던지 가구 주는 자리를 피해버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화를 억누를 수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에 대한 “효”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찌 보면 진정한 “효”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표본개편 대상가구 방문 시 출가한 가족이 있을 경우(특히 여자) 방문을 연기하고 대상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명절 또는 휴가철은 방문을 자제함



온기가 없는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온기가 하나도 없는 폐가에 들어온 느낌. “계십니까?” 하고 부르니 연세가 60세 정도 되는 부부가 나오시는데 어찌 힘이 하나도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찾아온 용건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니 협조하여 주신다 하여 조사표와 홍보 물품을 놔두고 나오는데 영 찝찝한 기분이 들어 가구의 사정을 파악하고자 이웃집 아주머니께 여쭙보니 가구주께서 병환으로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가구의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환자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죄송스러움이 밀려온다.

* 대상가구 방문 전 마을 이장 또는 이웃한테 대상가구 환경 사전 인지 필요



너무 쉽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 민지 말 것

막 일을 갈다온 모습으로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 준다. 방문목적을 설명하려는데 막무가내로 설명을 듣지도 않고 통계에 대해 잘 안다면 조사표를 놔두

고 가라하는데 어찌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이후 2번을 방문하였는데 조사표는 백지인 상태로 있다 여쭙보니깐 바빠서 그랬다면 다음에 오면 다 정리 해놓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지 않는다. 1개월 후 조사표를 회수하려 방문했지만 역시 백지상태다. 물어 물어 조사표를 정리했지만 앞으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3개월을 지켜봤지만 역시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다. 가구주에게 계속 이러면 대체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

* 쉽게 선정된 가구는 믿지 말 것 - 처음부터 기록해줄 의향이 없으면서 귀찮으니까 조사에 협조해준다는 가구가 대부분임



전문지식을 갖출 것

점심시간 후 나른한 상태로 휴식중인 중년의 부부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였다. 휴식중인 부부에게 조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데 듣는 등 마는 등 시큰둥한 반응이다. 참으로 난감하다.

반응이 영 시원치 않으면서 조사에 협조해준다는 말도 없고 불응한다는 말도 없다. 아예 무시하는 표정으로 일관하면서 어업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는 식으로 비웃는 듯이 물어 본다. 그래도 명색이 어업업무에만 종사한지 30년이 된 나는 자존심이 상한다.

마침 마당 한 쪽을 보니 어구가 펼쳐져 있고 건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선이 보이길래 어떤 어구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어종인지 설명을 하고 덧붙여 우리나라 어업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니 그때서야 관심을 나타내면서 하는 말이 통계조사 이외 조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조사에 관한 지식들이 없어 대화가 안 되니 협조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하면서 대화가 되



니가 흔쾌히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다면서 고생한다고 깊은 인사를 건넨다.

*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소통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경영주보다는 배우자를 설득해라

늦은 오후 작업 현장에서 귀가할 시간에 맞춰 가구를 방문했는데 가구주가 약주에 취한 상태로 작업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방문목적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니까 당연히 해 주신다 한다.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차를 몰고 귀청중인데 핸드폰소리가 울린다. 못 보던 전화번호라 이상한 기분이 든다. 전화기를 들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왜 우리 집에 조사표를 놔두고 갔냐며 화를 낸다. 운전 중이라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차를 돌려 다시 방문을 하였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역정을 내면서 왜 이런 걸 받아왔냐며 화를 낸다.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여 아주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자 다 필요 없다고 조사표를 가져가라 한다. 민망하였는지 아저씨가 밖으로 피하신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 아주머니께서 저 양반은 술만 먹고 집안일에 관심도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바빠서 할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176

* 여자가 실세다.



작업현장을 피해라

표본개편도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에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니 아무도 없다. 이웃집도 마찬가지로 인기척이 없어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을 주민을 만나 물어보니 선착장에서 주민들이 모여 어망을 손질한다고 한다. 선착장에 가서 대상가구를 만나 통계조사에 협조를 요청하니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통계조사는 왜 하는지, 조사를 해줘도 귀찮게 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해주지 말라고 한다. 조사대상처도 분위기에 편승하였는지 해줄 수 없다고 한다. 다시 설득을 해보지만 마찬가지로 왜 해줄 수 없냐고 재차 물어보자 여러 사람이 해주지 말라고 하니 못해준다는 단순한 답변만 돌아온다.

저녁에 다시 방문하여 설득을 해보지만 자기는 해주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눈총 받기 싫어 해줄 수 없다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1896년 호구조사로 시작된 통계조사는 12번의 강산이 변했지만 조사방식은 변하지 않은 채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있다.

또한 사회 환경은 급속도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통계조사방식을 고수하다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안요소들을 이겨 내는 데는 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통계인으로서의 불안함이 밀려온다.

끝으로 흘린 땀만큼의 결과를 얻었기에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이 잊혀지고 현장조사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통계조사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장려상

동남지방통계청
이 정 미

사례.
열여섯



인간극장 5부작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그들 중에 내가 있다.

하지만 현실이 아니다. 그냥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은 항상 기대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178



월요일. 1부 : 이별과 또 다른 만남

5년만에 다가오는 어가 표본개편으로 설득에 혼을 쏟다시피 하여 이제

겨우 안정화되고 새로운 어가와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한숨을 돌리

고 있을 때 담당업무가 변경되었다. 이 기분은 뭐랄까? 힘

들게 아이를 출산했는데 자식을 빼앗긴 느낌과 같

은... 그때의 마음은 그렇게 표현하

지 않으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

다. 아마도 매번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해 낼수 없는 일



의 특성, 또는 부족한 내 성격 탓인가 보다.

표본개편으로 몇 년간 조사하던 어가들과 이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그 아픔을 겪어야 했다. 새로운 어가와 반 년 안되는 그 시간동안 많은 정이 들었었나 보다.

어가어르신, 언니들도 아쉬워했다. 기약없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어업을 계속하시다 보면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 담당자도 좋은 분이세요. 그냥 통계청이 저다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업무, 도시응답자에게로 나는 간다.



짧은 만남, 긴 이별...
10여년전에 조사했었다며, 통계청 감사장, 조사표 보관함을
소중히 간직하시는 고마운 분들... 감사했습니다.



화요일. 2부 : 삼자대면(참자, 숙이자, 감사하자)

오랜만에 맡아보는 업무는 나를 작아지게 했다. 두려웠다. 특히나 깍쟁이 같은 도시사람들이...

업무인수는 사치였던가. 이전 담당자는 연초에 본청으로 발령나서 가버리고 형식적인 절차는 있지만 업무를 인계해 줄 사람이 없었다. 전화로 이전 담당자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응답자 인수인계(?) 말하자면, “새 담당자 잘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도시 응답자들은 이때다 싶은지 “내가 앞에 하던 사람 봐서 이때까지 대답해 줬는데 안 그래도 그만하고 싶었는데 인자 안할랍니다.”

그 전에 불응하던 가구에 문을 두드려 보아도 “내가 싫다면 안하는 거지 네가 뭔데 자꾸 사람 괴롭히노?”

잠결에 몽롱한 상태로 문을 여셨다가 통계청인 줄 몰랐다며 문밖으로 밀어내는 분.

“어머니, 한 6개월만 좀 부탁드립니다. 6개월만 조사하면 이 지역에 조사 끝나거든요.”

“어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무한테나 어머니 소리 하고 있노. 우리 아저씨 아파서 지금 머리아파 죽겠는데 마! 가소. 귀찮아 죽겠다”

와우~ 이런 반응 오랜만이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가 도시였지.

예전에 도시가게 조사할 때 겪었던 일이 순간 떠올랐다. 시작하자마자 부딪히는 도시응답자들... 참자. 일단 고개숙이자. 얼마 뒤 옆집 어르신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가구의 아저씨가 폐암이고 오늘내일 한다고 했다. 정신

적으로 고통을 겪는 그 어머니가 안 됐고 짠했다.

문 밖으로 떠밀려 나와 상처받았던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 집 아버님이 걱정됐다. 안타깝게도 두 어 달 있다가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오후 5시가 다 되어 방문했다. “뭘, 뭘 물어볼 건데? 빨리 하고 가쇼. 우리 아저씨 지금 진지드실라 카는데 이 시간에 오고 그래샀노. 빨리 말하고 가쇼.”

갑자기 마음이 바빠져 말도 더듬고 “식... 식사를 빨리 하시네예. 낮에 안 계셔서 저녁에 계시나 싶어 왔는데 식사하실 시간이라니 죄송합니다. 낮 시간에 다시 올까요?” 여쭙보았다.

“낮에 다시 올 것도 없고 지금 빨리 말하고 가쇼.”

한편으로는 식사를 엄청 빨리 하시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의를 갖췄다. 만족하게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여쭙보고 발길을 돌렸다. 가계소득조사 병행가 구라 급하게 대답하고 끝날 조사가 아니고 어머니는 자꾸 숨기는 대답을 하시더라 기회를 봐서 아버님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여쭙볼 계산으로 돌아왔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자고 생각했다.





수요일. 3부 : 시련의 극복, 상처와 치유

도시가구만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군도 관할지역이라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만나뵙기 전부터 마음이 조금 편안했다.

“도시 각쟁이들하고는 다를거야. 시골은 마음의 고향이지. 그래, 감사할 일이 하나 있네”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땀다.

처음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가계소득조사도 하는 곳이었다. 시골인가 싶었지만 겉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현대화된 집들도 많고 농사만 짓는 줄 알았지만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에서 오신 분들, 인근 □□이나 △△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있어 도시와 가까운 곳이다 보니 요즘 귀촌귀농 트렌드에 적합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 곳도 만만한 곳은 아닌 듯 했다.

막노동 일을 하면서 필리핀 부인과 아들과 함께 사는 가구의 일이다.

통계청 직원이라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사하였으나 “나라에서 우리같은 사람을 지원해줘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해주고 전 때는 가끔 쌀도 주더니 요즘은 그것도 없다. 통계청직원이 말 좀 해가지고 지원금 좀 달라”고 하셨다. 하소연인 것 같아 얘기를 들어드리는 것도 그분 입장에서는 멧힌 게 풀릴 것 같아 성실히 들어 드리고 조사를 마쳤다.



“어르신, 어르신 계십니까?”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잠시 들어갔다. 시골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기실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이 되어 문을 열어 본 것이나 아무도 계시지는 않았다. 여기 안 계시고 마을회관에 계시려나... 하고 되돌아 나오는데 밖에서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리 와 보소. 사람없는 집에 왜 들어갔소?”

한 두어시간 전에 조사하던 가구인데, 얘기도 많이 들어 드렸는데... 안면 몰수하고 손가락을 까딱거리면서 오라고 하신다.

“여기 어머니도 통계조사하러 왔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무슨 일 있나 싶어 문을 열었죠. 근데 여기는 안 계시네요.”하고 말씀드리니 “내가 사람없는 집 들어가길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시며 계속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기분 나쁘게 강아지 부르듯 불렀다.

“사실은 내가 교도소도 많이 다녀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소름이 싹 돋았다. 말 안듣다가는 무슨 일 날 것 같아 시키는 대로 다가갔다. 내가 전화해 볼 거니까 신분증을 빼 달라는 것이었다. 목에 걸고 있는 신분증을 내 주면 안되겠고 명함도 내어 주면 통계청에 말도 안되는 민원을 넣지는 않을까 싶어 가슴이 두방망이 찼다.

“신분증은 걸고 다녀야 조사를 할 수 있구요. 명함은 오늘 다 드리고 지금 남은 게 없으니 연락처를 적어드릴테니 제 신분은 사무실에 전화 걸어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하면서 담배갑 위에 볼펜으로 사무실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다.

불잡아 두려는 겁박을 뒤로 하고 “지금 조사가 반도 안 끝나서 빨리 마을을 돌아야 됩니다. 나중에 조사 끝나고 나서 말씀나눠요.”하고 발길을 재촉했다.



“그라모 일단 갔다 오소. 빨리 하고 오소.”

나도 모르게 경보하듯 급하게 걸으니

“저저 봐라. 아무래도 수상한데.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날은 어두워오는데 무섭기만 했다. 귀기하지 않는 몇 집이 남아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회관에 가니 이장님이 계셨다. 인사도 드리고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이장님 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마을에 CCTV 더 달아달라고 면 사무소에 얘기했다 아이가. 무서워 못살겠다. 특히면 교도소 들어갔다 오고 동네 사람 들한테 시비걸고 그란다 아이가.”

그 날은 그분을 피해 조사다니다 몰래 도망치듯 돌아왔으나 다음달부터 걱정이었다. 그분과 어떻게 친해져서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안 그러면 계속 시비가 일어날 텐데...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 조사하는 또 다른 집의 어르신이 그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사연을 여쭙보니 술이 원수라고 술 때문에 사건에 사건이 꼬리를 물고 사기, 폭력 등으로 자꾸 교도소를 드나들다가 아들이 저 지경이 되었다 하시며 하소연을 하셨다.

다음 달 조사때부터는 동네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그 아드님을 찾아갔다. 무서워 말고 두려움을 견뎌내는 방법은 피하는 것보다 부딪쳐 보는 것이라 판단 하에 술 드시기 전에 이른 시간에 만나야 얘기도 통하고 조사도 방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음료수도 사다 드리고 했더니 조금 경계를 늦추시고 낮시간이라 그런지 다행히 정신이 있으셔서 얘기가 통했다. 그리고 매달 면접하면서 먼저 아는 척도 해주시곤 했다. 그 이후부터는 조사도 잘 응해주시고 무섭게 협박하지도 않으셔서 다행이었지만 몇 달후 또 교도소에 들어가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에 힘겨운 한숨이 터져나왔다.

□□에 있는 대기업 다니면서 전원생활 하시는 가구인데 정말 친절한 언니였다. 가계소득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된 이유와 조사목적, 비밀보호등 모든 설명을 드리니 아저씨 급여명세서까지 내어 보여 주셨다.

“상품권 받으면 당연히 조사 잘 해줘야지.”

언니는 이제 갈 때마다 정원에서 직접 농사지은 거라며 자두, 청포도 등 맛 보라며 내어 주시고 친언니처럼 가까워졌다. 옆집 어머니도 밝은 표정 뒤에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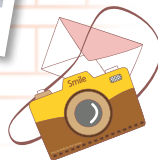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노. 이것도 할 짓이 아이네. 밥도 안 먹었을텐데 이거 먹어야 조사해 줄기다.” 하시며 아껴놓은 간식을 내 주셨다.

가계소득조사 때문에 이런저런 수입에 대해 여쭙보다 국민연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왜 그런지 이유를 여쭙보니 결혼도 안하고 직장다니던 아들이 죽어서 아들연금이 당신에게 합산되어 이번달 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다.

“나는 이 돈 절대로 못 쓴다. 나중에 나 죽고 나서 애들이 쓰면 몰라도…” 하신다.



도시에서는 상처받지만 시골에서 치유받는 듯…





괜히 여쭙봤나... 조사가 뭐라고... 내가 왜 그런걸 여쭙봐 가지고...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줄도 모르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되레 내 손을 잡아 주셨다. 엄마품 같은 응답자들과 따뜻한
함이 남아 있는 이 곳, 시골은 마음의 고향~~



목요일. 4부 : 연동이 무엇이길래

예전에 사회통계업무를 해 보기는 했었지만 연동은 해 보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몰라도 두렵기만 했었다.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열심히 공부해서 현장에 뛰어들었다. 연동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뿐 정해진 표본구역을 순서대로 설정하고 요도를 그리고 차후에 정해진 표본가구를 조사한다는 것이 10년전에 해 보았던 농가경제 표본개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지 시골이 아닌 도시분들(아니 도시각쟁이)이라는 대상이 다를 뿐.

연동이 처음이라 힘들었던 나의 이야기가 연동을 처음 겪고 두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할 수 있어!”하며 잠시 방심했지만 연동 작업이 쉽지 않았다. 낮에 부재중인 것은 기본, 인터폰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거의 없고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리다 구역설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연동 작업하는동안 토요일, 일요일이 따로 없었다. 주말에는 그 분들을 만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으로 그렇게 주말을 반납했다.

특별히 기억나는 몇 집이 있다. 경제활동 첫 번째 집이 되는 가구인데 안내 스티커를 갈 때마다 붙여도 연락이 오지 않다가 운 좋게도 어느날 밤 가구주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통계조사 사각지대에 있어도 되고 국가에서 나를 잡아가

도 되니 절대로 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라에서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다고 원하지도 않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동갑이라 잘 풀릴 것 같다고 스스로 외운 주문은 그냥 기대에 지나지 않았다. 살기 힘든 시대에 사는 그냥 직장인, 뭔가 안 풀리는 게 많은 분 같아 짠한 마음이 한 권에 느껴지는 건 뭘지... 다시 찾아오면 고소할 거라며 마당으로 발 한번 들여놓지 못한 채 쇠대문이 쿵 닫혔다. 하지만 지금도 매월 조사에 응해달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온다.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일 아닌가!

20가구를 순서대로 설정해야 하는 데 이 대문 안에는 몇 가구가 사시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집이 있었다. 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다 할 수 없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을 밝히고 “OO번지 주인에게 연락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밤까지 며칠을 기다려도 만날 수가 없어 어렵니다.” 동사무소에 연락처가 있어 직원이 전화를 해 본다. 전화를 받으시는 지 대화가 오간다.

“통계청 직원이 며칠동안 찾아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전화번호 가르쳐 줘도 될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안 돼요~.”

통화를 끝낸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번호는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이 전화도 동사무소 전화인지 믿을 수가 없으면서 오늘밤에 집에 들어오시기는 한 다는데요.”

확실한 답이다 싶어 그 날 밤에도 문앞에서 기다렸다. 비가 마구마구 쏟아진다. 우산을 쓰고 한참 서 있다가 허리가 아파 쭈그리고 앉았다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저린 다리를 털어가기를 반복하며 기다린



다. 4시간 정도 기다렸던가... 골목 끝을 향해 곧 응답자가 되실 다른 가구의 가족들이 지나가며 놀란 눈으로 보시며,

“아직도 못 만났나보네. 우짜노? 너무 힘들겠다.” 하신다.

“깜깜한데 밤마다 여기 서 있고 골목을 돌아다녀 죄송합니다. 무섭죠? 저도 제가 무서워예. 죄송합니다”하고 말씀드리니 “우짜노, 고생하세요”하고 들어가신다.

밤길이 무서울 법도 한데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 건지 밤마다 깜깜한 골목을 지키는 골목지기가 되어 버렸다.

드디어 주인아저씨를 만났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며칠을 기다렸다는 말을 전했음에도 주인아저씨는 무표정했다. 대문 열고 혼자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려 하시길래 문 손잡이를 꼭 붙들고 “아버님, 낮에 연락해 달라 했던 통계청 직원입니다. 좀 들어가면 안될까요?”

낮부터 기다렸다는 말에 닫으려던 문에서 손을 떼시면서 “들어오던가” 쫄쫄 따라 들어갔다. 알고 보니 동생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거기 다니느라 한동안 12시 넘어 들어 오셨다는 것이었다.

“2층에 사는 사람 못 만났는가?” 하시는 것이었다.

사실 불빛은 보였지만 소리가 안 들리는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낮선 사람한테 문을 열지 않더라고 말씀드리니 “하기야 문열어 줄 리가 없지~.” 하시는 것이었다.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고 몇 달 뒤부터 본조사하러 올 거라 말씀드리니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조사에는 콧방귀를 끼시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정치얘기 등 이런 저런 말씀 다 들어 드리다보니 “태극기할아버지”쯤 되시는 느낌을 받았다.

2시간 가량 얘기를 주고 받다가 11시도 훨씬 넘어 버렸다. 목이 말라 “아버

님,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주시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니, “우리집은 셀프다. 정수기에서 떠 마시면 되지” 그러신다.

“그럼 초면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정수기에 컵을 대니 얼음도 나오는 정수기다.

“아버님, 얼음도 나오는가 보네요”하면서 컵은 그대로 물 나오는데 대고 얼음 버튼을 눌렀더니 얼음이 거실바닥에 우르르 다 쏟아져 버렸다. 초면에 실수를 했다. 당황해서 “옴마야~, 죄송합니다”하면서 사정없이 얼음을 주워서 싱크대에 갖다 버리고 있으니 기가 찬다는 듯이 얼른 와서 도우신다.

집에 돌아오니 12시가 다 되어 간다. 남편이 이 시간에 겹도 없이 골목을 다니다 오냐고 걱정과 핀잔을 하지만 마음 한켠이 뿌듯한 건... 오늘 연동 스무집을 확실히 정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조사 시작할 가구의 응답자와 조금 친해져서 2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 다음 방문때 물 한 잔 마시려고 하니 그냥 앉아 있으라며 얼른 떠다 주신다.

“아버님, 셀프라면서 왜? 제가 또 얼음 쏟을까봐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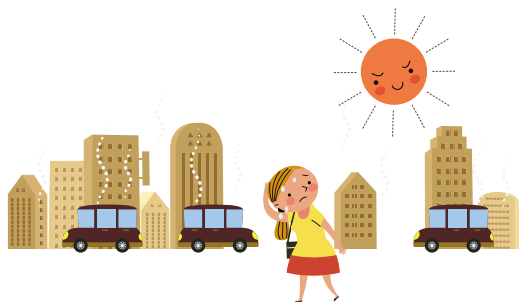
“그렇지” 하신다.

응답자의 이야기와 불만을 진지하게 들어주었던 것이 조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정수기 얼음 에피소드 덕분에 순식간에 친해져서 요즘은 농담도 많이 주고 받고 2층에 사는 세입자들 설득에도 내 일처럼 도와주셔서 결국 2가구 더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금요일. 5부 : 111년만의 데워, 그러나 9월은 왔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때 보다도 더웠다. 조사구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강아



지들이 문 앞에 다가와 짚는 소리만 들린다. 사람이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 주나 싶어 한참 두드리다 어지러워 얼른 그늘이라고 찾아 쭈그리고 앉았지만 하수구 냄새와 함께 올라오는 지열이 그들을 무색게 했다.

땀이 사정없이 흐르고 숨이 퍽퍽 막히는 그때 옆집 2층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내려온다. 쭈그리고 앉은 상태로,

“학생~ 잠깐만 와 볼래? 혹시 아버지 경찰이시니?”

“네, 그런데요.”

“난 통계청 이모인데 아버지께 여쭙보면 알거야. 이번 달부터 통계조사한다고 말씀드려봤거든. 근데 넌 어쩐 일로 온 거니? 아버지덕에 방학이라 잠깐 놀러왔어? 며칠만 있다 갈거니?”

쭈그린 상태에서도 이 와중에 추가로 가구원 잡아야 되나 싶어 확인하고 있다.

“근데 아버지 낮에 집에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은 계셔?”

“아니요.”

“그럼 이 봉투에 조사표하고 답례품 들었는데 아버지께 꼭 좀 전해 줄래? 너무 더워서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아서 못 일어나겠네. 미안해. 그리고 꼭 전해줘~ 부탁해~ 고마워~”

“예, 수고하세요.”

골목 끝으로 이동했다. 조사표를 넣어야 될 집은 다 넣었지만 직접 만나야만

하는 가구 중 한 집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에라 모르겠다. 조사표 안 적어주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넣어보자 싶어 담장 옆 그늘 아닌 그늘에서 쭈그리고 앉아 급하게 조사표를 꺼내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땀이 사정없이 떨어진다. 그 모습을 옆집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불쌍한 듯 쳐다본다.

멋쩍어서 “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잘 다녀오세요.”

연동조사구라 여쭙볼 말도 많지만 더 이상 말씀드릴 힘도 없었다. 그렇게 쓰러질 듯 더운 여름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던 9월이 비로소 왔다.

지금쯤 조사가 끝났지만 암으로 아버님을 보내셨던 어머니도 조사 끝나기 몇 달전부터 끊임없는 나의 편지와 설득에 문을 열어주셨고, 오후 5시에 왔다고 타박하셨던 어머니도 계속 통계조사하면 안 되냐며 아쉬워하셨다. 나의 노력이 보상받는 많은 경험이 나를 성장하게 한 것 같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다.

계속될 것 같은 힘든 시간도 어느덧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 오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건 모르겠다. 이 여름이 지나고 9월이 왔다는 것이 고맙기만 하다.

응답자들께서 나에게 퍼붓는 막말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분의 인생에 그럴 수밖에 없는 답답한 뭔가가 있었을거야. 하지만 그 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문을 두드려야지. 나를, 통계청을 이해해 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장려상

동남지방통계청
배은경

사례,
열일곱



우리 집은 이 조사에서 빼 주이소!



들어가는 말

192

이제 선정된 가계지출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표본가구로 선정됨을 알리며 조사구 요도 안에 있는 가구 중, 18가구 중 10가구를 8월이 시작되기 전 3주 안에 설득시켜야 한다.

“가계지출조사”란?

- 가구의 소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가계소비 구조의 측정 및 분석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가구의 복지 분석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제공
- 3년 동안 월간 수입과 지출 정도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사회 통계 정책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가계동향조사 대신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매월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달 동안 가계부의 지출 내용을 작성함.





[가계지출조사 나의 가계 지출 일정]

7월 03일 ~ 7월 10일	조사 준비기간 (각종 행정자료 준비)
7월 11일 ~ 7월 31일	현장 방문 가구 설득 기간
8월 01일 ~ 8월 06일	현장 방문 가구 마지막 설득 기간
8월 01일 ~ 8월 31일	응답가구 가계부 기입 지도
9월 01일 ~ 9월 14일	8월 가계부 회수 정리 및 입력 내검 완료

경상조사 업무 및
행정 업무

응답자의 측면에서 3년 동안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1개월만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응답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획기적인 방법이지만,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가구업무 현장조사 직원 1개월 단위로 표본이 변경되면서 매월마다 처음부터 다시 설득을 시작하는 가계지출조사는 맨 땅에 헤딩 아닌가요?

업무 부담감이 훨씬 더 커졌다. 게다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통계조사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통계조사든지 불응률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가계지출조사는 가구의 모든 가족들의 협조가 되어 가구가 일기를 쓰듯 모두 조사되어야 하는 가계부 조사로 통계청에서 가장 긴밀하고 상호 신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매우 고난도 조사이다.



A 조사구에 가보니

다행히 나에게 주어진 조사구는 아파트 조사구였다. 조사구의 종류는 거처



(주택의 구분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의 다양한 환경을 나타낸다.

대학가나 상권 지역의 원룸단지,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있는 주택단지,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로 이루어진 집락 단지, 상가와 일반 원룸, 빌라 혼합 되어 있는 정신없는 지역 등이 있는데 나는 현장조사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조사구를 배정 받았다. 아파트 조사구는 면접 확률이 높은 야간 조사현장에 방문해도 덜 무섭고 가구와 가구 간격이 붙어 있으니 피로도에서도 한결 가볍다. 스타트가 좋았다.



첫 출장 방문한 아파트는 가장 세대수가 많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답게 디지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기존처럼 관리사무소라 하지 않고 관리센터라고 쓰여져 있었다.

소장님 대신 관리 부장님이 나오셨는데 그런데 첫 인사의 말이, “통계청에서 A동을 조사한다는 공문을 보았는데 이 조사 불가능합니다!”

A동은 우리 아파트 5,239세대 총 48개동 중 가장 큰 평수인 61평으로 관리센터에서도 전담 직원이 있을 정도이며, 특히 입주민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였다. 어쩐지 출장나오기 사전 준비 과정 중에 인터넷에서 평수와 아파트 가격대를 검색하여도 아파트 가격은 나오지 않고 아파트 평수는 세모 세모로 블록으로 되어 있었다. 사전 준비로 대형 아파트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A동이 전담 관리 직원까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 긴장이 되기 시작하였다.

“부장님, 제가 오늘 관리센터에 조사를 시작한다고 인사도 드려야 하지만,

A동 입주민 중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우편함에 안내문을 넣어 놓고 싶습니다. 출입문에 보안 패드가 있으니 통계청 직원의 출입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입을 허락해주세요.”라고 부탁드렸다.

그러자 부장님께서서는 출입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시며 지금 센터장도 부재중이고 혹시 오늘 통계청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나도 센터장도 매우 곤란하다고 말하며 손사래를 치셨다.

A동, A동, A동은 못 들어간다, 안 된다, A동은 안 된다는 강박처럼 들렸다.



조사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A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다

‘아이쿠! 조사하러 왔다가 조사구 문지방도 못 넘어 보고 돌아가게 생겼구나!’ 나는 더욱 더 긴장된 상태가 되었다.

“부장님의 이 조사 불가의 판단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부장님께서 저를 A동에 조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공문으로 출입을 허가 할 수 없는 이유를 통계청에 통보해 주셔야 하며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입니다.”라며 센터장님을 만나 뵈길 강경하게 부탁드렸다.

부장님은 센터장은 지금 부재중이고, 이 내용을 전달할 터이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달라고 하였다. 본인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외의 일임을 반복하여 말하였다. 나는 되돌아서야만 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이 오갔다.

‘A동 출입구 자동문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면 몰래 들어가서 우편함에



조사 안내문을 넣어 놓고 아파트 분위기가 어떤지 대상가구 몇 집이라도 만나 볼까? 그럴까? 그건 아니지, 내가 뭐 죄 졌나?! 왜 살짝 문이 열리면 몰래 들어가? 그건 아니야, 그럼 이대로 사무실로 돌아가 팀장님께 조사구에 가 보기 가장 큰 평수 대형 61평 아파트 관리 센터에서도 출입을 통제해서 “집단 불응”으로 다른 조사구로 교체해야 한다고 해야겠다. 8월까지는 3주 남아있는데 빠른 포기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 아니겠어? 여기 관리센터 협조도 장난 아니던데 입주민들은 어떻게겠어? 그래! 조사구를 집단 불응으로 해서 대체 변경하자! 오케이! 렛잇고!!

차에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4단으로 하고 되돌아오는데도 7월 초 입에도 초여름 날씨가 얼마나 덥던지 에어컨 4단의 위력조차도 더위를 시키지 못하였고 나의 A동 조사구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만가지 생각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A조사구를 포기할 만 가지 이유의 차는 어느새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부재 중 통화가 와 있었다. 부장님에게 온 전화였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A동 입주민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불만이 접수된다면 바로 조사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출입구는 개방되었다.



조사 플랜(plan)은 준비되어 있다

통계조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실패와 성공을 거두었다. 현장에서 나만의 경험 조사 전략이 있다. 이것이 조사 플랜이다.

1. 앵커 전략 * 조사현장에서는 내가 통계청을 전달하는 앵커 역할이다.

처음 통계청을 접하는 대상 가구 관점에서 통계청을 이해시키기 알리기쉬운

대화 주제를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만들어 놓는다.



조사구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

통계청은
정부기관?

왜?
우리집을
조사하지?

정부!

불신!

가구에서 면접 확률이 높은 대상

노년층

50대
어머님

취업
준비생,
실업자

명예
조기
퇴직자

조사구에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에 따라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도 구상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을 둔 어머니를 처음 만난다면 (통계청에 대해 처음 들어봄)

“통계청 처음 들어 보셨어요? 오늘 뉴스에 실업률이 4.3%라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공무원을 더 뽑는다고 했습니다. 아드님도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신가요? 이 실업률이 제가 조사 나온 통계청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2. 조사 채널 [channel] 만들기

대면 조사로 조사 성공을 이루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응답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대면이 아닌 다른 채널을 찾아 보자.

1) 응답자의 이동 동선에 우편함, 주차장, SNS 이용

- 응답자가 이동하는 동선에 통계청 표본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게 함

2)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방식 적극 소개

- 응답자가 직접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 인터넷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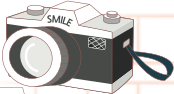


3) 행정자료를 이용한 공공데이터 활용 소개

- 가계부 기입에 간편함을 부각시켜 설득, 관리비,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 이동통신비, 각종 세금은 행정자료 이용



3주간의 가계부 설득



Before >> 방문 알림을 봉투를 작성하여 대상가구 우편함에 넣어둠.
 After >> 가구에서 가져가서 읽어봄

행정자료 인적사항을 협조받았다. 단독가구, 노인 가구는 없었고, 적어도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 거주하는 안정된 조사구였다. 가계지출조사구 첫 출장에 어렵게 출입구를 통해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놓았는데, 다행히 우편함이 조사 채널 [channel]로 이용되어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정말 한 달 만 가계부를 기입하면 상품권을 주냐며 통계청 직원이 방문을 언제 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탄력받은 나는 오늘 바로 오후에 출장 나가서 뵐 수 있다고 시간 약속까지 하였다.

첫날 출장은 조사구를 변경할까? 여기 이리다 집단 불응을 하면 어떻게 할까? 전전공공 했었는데 아니 벌써 두 가구가 스스로 자진해서 기입해 주겠다

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산위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을 쐬는 것처럼 기분이 기분 업(UP!) + 자신감 업(UP!) 되었다.

두 번째 방문한 날은 가구를 만나서 집의 규모와 아파트 현 실태와 사정을 전해 들었다. A동 조사구의 입주민들은 대부분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른바 사장님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다.

자신감을 얻었지만 지금까지 조사를 해 온 경험에 볼 때, 고소득 사업자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 특히 소득 누출 우려로 불응률은 아주 높았다. (60평 이상 16년 가계동향조사 가계회수율은 20% 미만이었음.)

표본 가구 문 호수를 찾아다니는데 이상하게 이 아파트는 현관문에 몇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가 몇 층인지는 엘리베이터가 내려주니 알겠는데 현관문에 호수가 없으니 찾기가 애매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현관 입구에 다가가면 센서가 작동하면 LCD전광판이 몇 호라고 자동으로 보여지는 시스템이었다. 나도 처음 가 본 고급아파트였다.



기-승-전-결론(우리집은 이 조사에서 빼 주이소)

7월 중순, 나는 가계지출조사에만 전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소득조사, 집세총괄 등 다른 업무를 병행 해야 된다. 어떤 날은 30분 단위로 마감과 총괄 눈 코 뜰 사이가 없었다.

A동 조사구에서 18가구 중 지난 2주 동안 3가구를 제외하고 가계부 기입에 협조를 부탁하였지만 설득 가구는 7가구를 넘기지 못하였다. 3가구는 장기 부



재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님의
로 할까 말까 고민 중인 듯 설득하기가 어려운 대상이었다.

유아기 아이가 3명이고 시간과 체력도 없고 배부된 통계청 가계부를 보니
관리비부터 각종 세금까지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관리비는 남편 통장에 빠져
나가서 세밀하게 기입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쓰기를 꺼려했다.

나는 “선생님. 아파트 관리비는 공공 자료로 이용하여 조사하고 있고 가스
요금이나 각종 세금도 요즘은 공공자료 이용해서 꼭 기입 안하셔도 됩니다.
하던 대로 편하게 생각하고 기입해 주세요.” 말씀드리고 모바일 전자 가계부
를 이용하여 기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계부 쓰기에 간편함을 부각시켜
설득을 하였다. 선생님은 모바일 전자 가계부가 나에겐 조사 채널[channel]
이었다.

7가구만 확실하게 가계부 기입을 약속 받았다. 이리다가 가계지출대상 10
가구 중 제출 완료 10가구(100%)는 커녕 8권 제출을 하는 것도 꿈만 같아 보
였다. 이제 가계부를 설득 시킬 가구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갈 길은 아직
멀리 남아 있는데 연료 게이지의 연료의 양은 E(없음)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
분이었다.

안내물을 받은 가구에서 전화 연락이 왔다. 나는 전화통화보다는 백문이 불
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 번 면접이 훨씬 낫다는 경험이 있어 전화만 오면
조사구로 달려갔다.

설득 후 돌아오는 답들은 가계부 기입이 까다롭고 가계부를 써 보았던 습관
이 없어 한 달 간 기입한다는 건 힘들겠다고 한결같이 웃으면서 “우리 집은 이
조사에서 빼 주세요.”라며 매너있게 이야기를 하였다.

통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통계는 필요하겠지만 자신의 집은 빼달라

고 다른 집으로 가 보라고 하였다. 다른 집을 가 보아도 우리집은 빼달라며 ‘난 누구? 여긴 어디?’ 나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다시 한번 두드렸다

대상조사구의 지하 주차장은 저녁 6시가 되면 아이들을 학원에서 등하교를 시키는 라이드 맘*으로 차량 이동은 피크 타임이 된다.

* 라이드 맘 (ride mom): 자녀의 교육에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붓는 엄마들을 일컫음. 자녀의 학습을 위해서는 언제 어느 곳이든 달려 갈 수 있는 기동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음.

지난 열흘 동안 A 조사구에서 오후 4시에서 7시 방문할 때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눈에 안 뜨이는 곳에서 대상 가구들을 기다리곤 했다. 조금이라도 조사로 인해 입주민들 사이에서 마찰이라도 생긴다면 출입 자체가 지금처럼 쉬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였다.

지하 주차장 대기실에서 대상가구들을 기다리던 중(고급 아파트답게 지하 주차에는 대기실이 있었다) 6시가 되면 꼭 아이들을 등 학원을 시켜주는 가구가 눈에 띄었다.

이 가구의 특성도 통계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집은 빼 달라며, 가계부를 작성할 한가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아 보여요”라는 말은 잊지 않고 했지만 가계부는 쓸 수 없으니 두 번 다시 물어보지 말라는 표정도 함께 억양에 나타내었다.

자녀의 학습에 대해 저렇게 열정을 쏟는데 분명히 봉사 활동시간에도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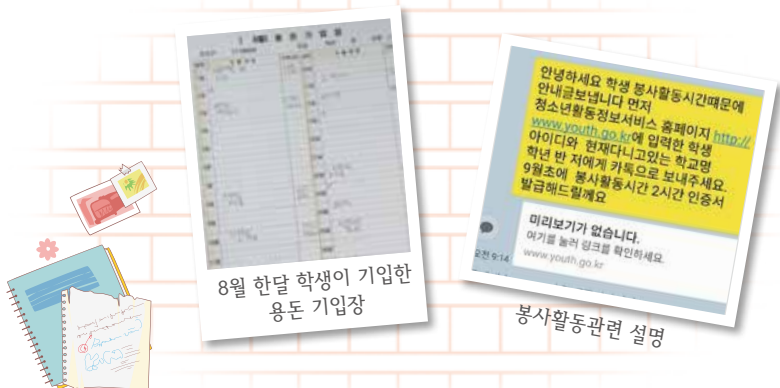


- * 2018년 8월 가계지출조사 표본가구
가계부 채권 활동봉사 활동시간 발급
- * 학생이 가계부 기입을 위해 자신의
용돈 기입장을 이용해 제출하면 봉사
활동 시간을 발급함

이 있을 것 같았다 “봉사활동시간!!”이
부분을 꼭 알려주고 싶었고 봉사활동
시간을 계기로 가계부를 설득시키고
싶었다.

나의 조사 새로운 조사 채널[channel]
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편함이나 통
계조사 방문 안내지를 붙인 가구의 현

관문이 아니라(초기 면접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편함이나 방문 안내지는 이제
효율성이 떨어졌다) 주차장이 나의 가계부를 얻기 위한 새로운 채널이 되었
다. 대상가구의 학생어머니의 차량에 작은 메모지에 진한 글씨로 ‘통계조사에
협조 해주시면 봉사 활동 2시간을 드려요’ 라는 포스트잇을 운전자석 유리창
앞에 붙여 두었다.



기다렸던 문자 한 통!! 어제 봉사활동 포스트잇의 라이드 맘의 문자였다.
봉사활동시간을 받을 수 있다면 가계부를 기입하겠다는 문자였다. 자녀가

봉사활동시간이 부족하여 고민 중에 있었다고 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좋은 신호는 조사의 탄력성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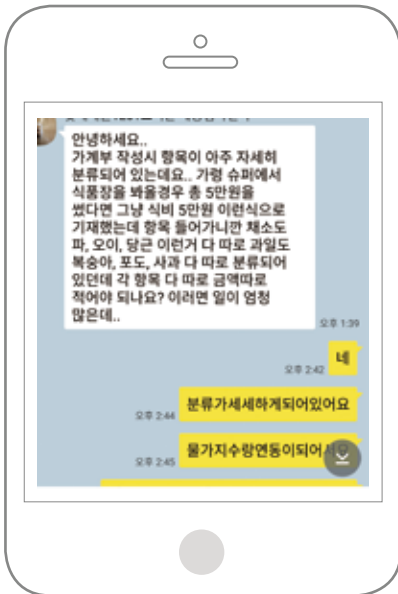
관리센터에서는 입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 있었다. 통계청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도 동선을 먼저 생각해 보고 있는 듯 없는 듯 아파트 출입이 하였다.

7월 30일이 다가오니 아직 9가구만 가계부 기입을 확답 받았고 총 18가구

중 이제 거의 면접을 끝나고 불응과 협조도 나누어지고 두 가구는 부재중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가구만 설득하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웠다. 어제는 사회에서 성공한 듯 한 중년 사장님 응답자로부터 “공산당”도 통계청처럼 하진 않는다.

갑자기 찾아와서 조사 대상가구라며 우리 집의 이것저것 재산 상황을 물어 보고 가계부까지 써 내어 놓으라고 하니 이런 시대착오적인 일이 있느냐며 호통을 쏟아 냈



조사해주기로 했던 가구로부터 받은 문자



다 아파트안에서 호통 소리가 찌렁 찌렁 울리는데 어디론가 숨고 싶었다.

설상가상 처음 방문한 날! 가계부 기입을 약속 했던 가구에서 내일 모레가 8월인데 돌연히 못 쓰겠다며 전화가 왔다. 조사표인 가계부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지출 내용과 그것도 하나하나 품목별로 분류해서 기입해야하고 세금, 공과금, 기부금 등 본인들 가구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가구의 수입 부분이 확실히 드러나서 가계부는 기입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가구를 방문해 마음을 돌리려 하였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은 되돌릴 수는 없었다. 마이클 잭슨의 문 워크(Moon Walk) 장면처럼 앞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할수록 뒤로 뒤로 밀려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마지막 하와이에서 온 전화

아직까지 면접하지 못한 한가구가 남아 있었다. 장기 부재가구로 불능가구로 미기입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방법이 아깝지 않은가?! 다시 한 번 해보자. 마지막 남은 한 가구에 행정자료로 받은 가구주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신호음이 뚜뚜...뚜... 길게 이어지고 내 심장도 두근두근 쿵쿵거렸다. 1분간 통화음이 지난 후 내 손가락은 빠르게 통화 중지 버튼을 눌러 끊어 버렸다.

두려웠다. 행정통계를 이용해 조사하던 중 가구주 성함을 확인하려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느냐,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며 한 대 맞을 뻔한 경험이 A조사구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통화가 안 되어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도 쉬어졌다. 상대방에서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예민함의 무서움 때문에 피해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 기도 하였다. 단기간 이렇게 고생하고 많이 방문한 조사구는 첫 번째인 것 같은데,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번만은 더욱 더 아쉬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생하고 많이 방문한 조사구는 드물었는데 결과가 예상 밖이었다.

아직까지 전화로 열어있던 나에게 갑자기 핸드폰 진동벨이 울렸다. 금방 내가 전화했던 장기 부재 대상가구 였다. 나는 전화를 받고 통계청 직원인데 통화 잠깐 가능하냐고 물어 보았다. 상대방 측에서는 가능한 한데 짧게 통화해야 한다고 지금 하와이에 잠깐 가족들하고 휴가에 와 있다고 하였다.

내가 아무리 가계지출이 중요해도 휴가를 간 가족에게 그것도 하와이는 한 밤중일 건데 죄송하다며 통계조사 때문에 전화드렸다고 후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하며 끊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데...! 뜻밖에 통화자가 “7월 둘째주 통계청에서 조사 안내문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8월 초에 입국하면 조사에 협조하여 가계부를 써 드릴게요. 한국 들어가면 전화할게요.”라며 전화 통화가 마무리 되었다.



세월의 빠름은 늘 놀랍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지금은 가을이 왔듯이 힘들었던 A조사구의 가구 설득은 10가구로 끝이 나고 회수율 10권 100% 9월 현재 가계부 기입 내용도 어느 조사구보다 알차게 기입된 가계부를 회수하여 지금은 입력에 내걸



까지 끝을 내었다.

가계부 내용이 많아 입력 및 내검을 한다고 나의 손가락 눈도 몹시 고생했으니 흐뭇했다. 내가 여름 내내 공들여 키운 작물과도 같았다.

나의 조사에는 화려한 기술이 없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었다. 글 중 조사전략, 앵커, 채널[channel] 등 멋 부린 말로 표현을 했지만 설득의 최고의 방법은 무작정 공을 들이는 것!!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서민 조사구, 고소득 조사구를 협조로 이끌어내는 공통점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언젠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장려상

동남지방통계청
주혜림

사례,
열여덟

쿠레레(currere), 내가 만들어가는 통계조사 체험기

201X년 X월 어느 날, 새로운 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전 사무소에서 연동도 몇 번 하고, 불응 가구를 설득하기도 하고, 가계동향 조사 대상 가구에서 부부싸움이 나서 당황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이제는 나는 현장조사에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살짝 있었다.

내가 담당하게 된 조사구는 연동이 막 시작된 조사구였다. 전 담당자에게서 아직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구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걱정 섞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 스스로에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최면을 걸며 조사구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당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항상 싱글벙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띄면서 조사를 하면 응답자도 화를 내려다 아휴 어쩔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응답을 해주시곤 하셨다.

하지만 난 그 조사구에서 최강의 강적을 만났다. 조사구를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별 반응이 없고,

“통계청입니다. 안 계세요? 어머니? 통계청입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수도 없이 외쳐도 어떠한 반응도 없는 집이었다.

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하여도 요일을 달리하여 방문하여도 언제나 고요함만이 나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가는 어린 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너무나 반가워 방긋 웃으며 다가가서,

“안녕~!”

“나는 통계청에서 나온 누나인데, 혹 집에 어른 계시니?”

“아니요. 할머니 일하고 저녁 늦게 오세요.”

여러 번의 방문 끝에 얻은 첫 번째 수확이었다. 손주 2명과 할머니가 같이 산다는 사실. 아주 조그만 정보였지만 불운 해결의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여느 때처럼 일과에 지친 하루였지만 실낱같은 실마리 하나에 기대어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시간 그 집을 방문하였다.

골목길 어귀에서 일을 끝내고 터덜터덜 걸어오시는 60대의 어머니 한분을 발견했다. 얼굴 표정에는 하루의 고단함을 들어낸 채 터덜터덜 걸어오시고 계셨다. 직감적으로 저 분이 내가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또 다시 방긋 미소 장착 후, 밝은 인사와 함께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통계청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고? 와 귀찮게 하노!”

“통계청입니다. 어머님 댁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안 계셔서요, 어디 멀리 일 다녀오시나 봐요~”

“귀찮게 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바쁜 걸음으로 걸으신 후, 대문을 쿵 닫고 들어 가버리셨다.

“어머님 피곤하신데 죄송합니다. 다음 번에 다시 올게요.”

쿵 닫힌 대문 앞에서 허탈함도 컸지만 어느새 응답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있었다. 우편함에 조사에 대한 팸플릿과 공문을 꽂아두고, 피곤하신데 붙잡아 죄송하다며,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글귀를 쪽지에 적어 대문 앞에 붙여놓고 돌아 왔다.

그 이후, 어머니를 뵈 때마다 방긋 미소를 띠우며 인사를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내 걸을 스치듯 지나가셨다. 언제나 그렇듯 쿵 소리의 대문만이 어머니의 응답이었다. 조금이라도 친해지기 위한 나의 목소리는 응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어머니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열쇠를 집에 두고 나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길가에 첩피떡하고 어머니 옆에 앉아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도 멀리 일 다녀오셨어요?”

“귀찮게 하지 마라.”



“그냥, 어머니 혼자 기다리시면 심심하니깐 말벗 해드리려구요.”

그렇게 나는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큰아들과 며느리 모두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과 그 이후 2명의 손자를 맡아 키우고 있으며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는 이야기였다. 1시간 정도 길바닥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왜 그렇게 지쳐보이셨는지 왜 그렇게 힘들어보이셨는지 알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머니께서 속내를 털어놓으시면 공감까지는 어렵겠지만 잘 들어드리는 말동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그 다짐은 아주 잠깐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야기를 다 끝내고 대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머니는 한 말씀을 하셨다.

“다음 번에 찾아오면 니 얼굴에 똥물을 퍼 부을꺼다.”

몇 분전만 해도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시던 어머니가 저렇게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니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대문을 두드려도 응답 없는 배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렇게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당신.

비록 나에게도 가까워지지 않은 당신이지만

다른 누군가로부터는 위로를 받고 조금은 삶이 가벼워지기 바랍니다.



당신 옆에 있어드릴게요

조사를 시작하고 몇 달, 꾸준히 어머니를 뵈었고 응답도 잘 해주셨다. 대문 앞에서 ‘통계청입니다’를 외치면, 2마리의 개와 어머니가 맞이해주는 집이었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 주시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친분을 하나 하나 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대문 앞에서 외쳐도 안 계시고 전화를 드리면, 긴 통화음만이 들렸다. 어쩌다 통화가 되면,

“어머니 통계청이에요. 집에 안 계시네요. 어디 놀러가셨어요?”

“끊어. 지금 바빠. 다음에 다시 와~”라고 짧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어 버리셨다.

하지만, 다음 방문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다음에 와~ 전화하지 말고 그냥 가요.”

집에는 안 계시고 연락처를 알아도 전화를 끊어버리시니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첫 느낌도 좋았고, 응답을 잘 해주는 가구였기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비틀비틀 몸을 주체하기 힘들어하시면서 걸어오시는 어머니를 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술에 취해서 힘들어 하고 계셨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어머니, 약주하셨나 봐요. 뭐 즐거운 일 있으셨어요?”

“통계청 아가씨네. 내가 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요. 가!”



“네 어머니 모셔만 드리고 갈게요.”

그렇게 어머니를 부축하고 집에 모셔다 드린 후, 짧은 인사와 함께 돌아왔다. 다시 방문했을 때도 대문 건너편에서 전해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술에 한껏 취한 목소리였다. 그래도 만나야 했다.

“어머니, 쉬시는데 잠깐만 얼굴만 보고 갈게요. 한동안 너무 못 뵈세요.”

“다음에 와요. 다음에.”

“어머니, 문만 열어주시면 안될까요?”

나의 지속적인 부탁에 어머니 마음이 살짝 흔들리셨는지 대문을 열어주셨다. 힘겹게 대문이 열렸던 만큼, 어머니의 마음도 열렸던 것 같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동안 뵈지 못해서 걱정하였노라 나의 마음을 전하며 어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전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님과 어머니의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두 분 사이에 다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어머니가 약주를 많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날도 속상한 마음에 동네 지인의 가게에서 약주를 하시고 돌아온 길이라고 하셨다. 눈물로 보이시면서 이런저런 본인의 속내를 말씀해주셨다. 한참동안 이야기 후, 잠시나마 어머니께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그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 다음 방문에도 어머니는 댁에 계시지 않았다. 혹시나 약주를 많이 하신 건 아닌지 걱정되어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어디세요? 오늘 꼭 뵈고 가야 하는데...”

“응? 어디라고?”

“어머니, 통계청 아가씨요. 어디 계세요? 제가 뵈러 갈게요.”

“응? 나 00가게인데. 오든지 말든지 해라.”

나는 명확하지 않은 상호로 인해 검색에도 실패하고 그냥 무작정 동네 근처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같은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서야 유사한 이름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거하게 취하셔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셨다.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그날도 그렇게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와 어머니의 숨바꼭질 놀이는 시작되었다. 나는 언제나 술래였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찾아서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게 반복되었다.

나는 통계청 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어머니의 말동무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내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답답한 속을 잠시나마 풀 수 있으셨던 것 같다.

이런 나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새로운 치아보험을 가입 하실 때 어느 상품이 좋은지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TV 보면서 두런두런 재미난 이야기도 하면서 유대를 쌓았다. 친밀감이 생긴 뒤 어머니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주셨고, 난 좀 더 완성된 가계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도 자주 안 오는 자녀를 대신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아버님 때문에 속상하실 때는 같이 욱도 하면서 나는 어머니의 딸이 되어 있었다. 비록 가끔씩 야주를 하시어 연락두절 되실 때도 있었지만, 나는 어머니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드렸던 것 같다.

새로운 곳에서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었다. 새맘 새뜻을 가지고 임했던 사무소에서 새 조사구 역시 나를 처음부터 반겨주었던 분도 계셨고, 끝내 가까워지지 않는 분, 또 나의 노력만큼 가까워지신 분도 계셨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통계조사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었던 점도 많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모양의 삶을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나의 길

쿠레레(currere)는 ‘경마장에서 말이 달려야 하는 일정하게 고정된 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말들이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행위 또는 그 과정 자체와 체험’의 의미도 있다. 통계조사 역시 이 두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표의 형식에 맞게 여러 조사구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들의 응답을 이끌어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조사 과정을 통해 내가 배운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통계조사에서의 나의 쿠레레는 그 과정이 힘들 때도 많았지만 뿌듯한 순간이 많았던 것 같다. 내가 공무원으로서 응답자들로부터 얻은 자료들은 통계 생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기에 뿌듯했고 응답자들과 유대 형성을 위해 보냈던 시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음에 뿌듯했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성장했다고 느꼈기에 뿌듯했다.

앞으로 통계청 공무원으로서 난 더 많은 나의 쿠레레를 경험할 것이다.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업무일 수도 있고, 사업체에 현장조사를 나갈 수도 놓여업 분야의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만 나의 길을 즐겨 보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의 길에서 매 순간을 충실하게 보낸다면 일정하게 정해진 통계조사 역시 더 정확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동안의 길에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겪어왔던 많은 경험들이 현재의 나의 매순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낀다. 통계조사와 함께 보낸 시간 속에서 나에게도 꽤 많은 후배들이 생겼다. 비슷한 일을 함께 해 나가는 동료들과 서로 즐거운 일, 힘든 일을 공유해가면서 앞으로도 즐겁게 나의 쿠레레를 만들어가고 싶다.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김 미 리

사례.
열아홉



어서 와, 현장조사는 처음이지?



모든 게 처음인지라

216

북극 한파에 얼어붙은 한반도…

올해 1월 날씨는 ‘영화에서만 보던 겨울왕국이 알고 보니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웠다. 어제 찾아왔던 눈과 작별인사를 하기 전에 새로 찾아온 눈과 반가운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날씨였다. 나는 이 추운 1월 실무수습을 시작한 새내기 중에 새내기였다.

두근두근, 첫 출근한 사무소.

“네? 사회통계팀이요? 연동… 뭐라고요? 4번 그룹이… 네? 경제활동 뭐라고 하셨죠?”

아무 것도 모르던 나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사회통계팀에 배정받게 되었다.



내가 맡게 된 조사구는 기존에 조사하던 2곳과 연동4번 조사구였다.

“연동4그룹 1구역부터 이번 달에 경찰 5집씩 설득이 들어가야 해.”



이런 느낌이랄까

지금은 다른 분들이 알려주시기도 전에 연동6 그룹 설득 준비를 착착하고 있지만 올해 1월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외국의 한 야시장에서 팔던 티셔츠에 쓰인 한글을 읽는 것과 동일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처음 가보는 지역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처음인 조사를 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

지침서에 쓰인 글자들을 한 자 한 자 정독을 하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준비된 자가 설득을 쟁취한다고 했다가, 요도와 조사표를 챙겨 조사구를 향한 버스에 탔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첫 만남

지도 애플을 요리조리 돌리며 헤매다 첫 번째 가구 앞에 도착했다. 철문으로 되어있는 문을 푹푹 두드렸다.

“계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문은 열려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될까. 고민고민하다 불어오는 칼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가구로 발걸음을 옮겼다. 낮이라 그런가? 사람이 없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았다. 내 발자국만 찍혀 있는 눈을 다



시 돌아보며 다른 발자국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찾아간 다음 가구는 아예 대문을 열어놔던 집이었다. 이번 겨울은 대단했다. 추위가 용기를 만들었다. 대문을 지나 집 문을 열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다. 우와, 사람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는데요.”

“어디서 왔다고? 아가씨 일단 추우니까 들어와.”

양말과 신발, 두 개의 천 쪼가리로 막아주지 못했던 새하얀 눈 속에서 새하얗게 변해가던 나의 발이 따뜻한 바닥을 밟는 순간 혈기가 돌기 시작했다. 더 불어 사람을 만난 행복감에 자신감도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은요?”

“다 늙으면 혼자 살지. 누가 찾아 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할머니는 알고 보니 집에 안 계셨던 첫 번째 가구에 사시는 할머니의 친구였다. 1월부터 현재까지 매달매달 방문 드리면,

“또 왔어? 매달 찾아와 주느라 너무 고마워.”

이렇게 감사인사를 해주신다. 가끔은

“이제 어디 갈 거야? 저 집 할머니는 만나고 왔어? 안 만나고 왔음 같이 가.” 하시면서 조사하는 걸 도와주시고는 한다. 할머니 두 분이 만나시면 이것저것 수다 꽃을 피우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나의 존재를 잊고는 하신다.

그러다가 슬쩍 가려고 하면,

“어디가 참외 즐겨. 이거는 다 먹고 가” 하면서 나를 붙잡고는 하신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현장조사

할머니 두 분 외에도 친하신 할머니가 한 분 더 계신다. 두 할머니와 차이점이라면 자녀분들이랑 같이 살고 계시고 가계소득조사 대상 조사구가 아니라는 점.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눈이 아닌 벚꽃 잎이 흩날리던 봄날이었다. 가구 벨을 누르고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기쁜 표정으로 나오셨다. 이 근방에 통계청에서 나온 여자가 상품권을 주고 가더라는 소문을 들으셨던 것이다. 드디어 왔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머니의 웃는 얼굴은 그 날이 마지막이었다. 평소에는 주로 자녀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할머니와 직접 대면할 날이 거의 없었는데 일은 몇 달 후 터지게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연수 때문에 경찰 기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가계소득조사를 하기 위해 다른 할머니들을 찾아보였을 때 얘기를 듣게 되었다. 대신 조사를 해주시던 주무관님께 그 할머니께서 화를 내고 있으셨다고.

“똥보할머니(할머니들 사이에 애칭인 듯하다) 있나?”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할머니의 입장은 그러했다. 어버이날에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카네이션 주고, 상품권도 매달 만 오천원씩 꼬박꼬박 주면서 본인한테는 안 그랬다는 것이다.

“카네이션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만 드린 거고, 상품권은 다른 조사하시는 가구에 드리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한 거 같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에게 화내기 시작했다.

자녀분들 계시면서 “나도 혼자야!”라며 막무가내로 우기기.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괜히 오라고 한 걸까, 그냥 모르는척 하고 말걸,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만 있었다. 그때 내 옆에서 도와주시던 슈퍼 히어로 같던 분들.

“나라에서 주는 거라던데 아무한테나 주면 되잔? 애기(초등학생 증손녀) 오기 전에 집에 가!”

그 후에 본인들끼리 모이셨을 때도 계속 얘기를 하셨나보다. 그래도 직접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찾아봤을 때는 그때 소리쳐서 미안하다고까지 말씀해주셨다. 요즘에는 필수품이 나와드릴 때가 되면 직접 할머니께 드리곤 한다. 드릴 때면 슬쩍 말씀해 주신다.

“나 농협 말고 온누리로...”

할머니 다음에는 잊지 않고 온누리 상품권 드릴게요!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는 싶은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겨울왕국 같았었다고 했던가. 그건 이번 여름을 겪기 전 느꼈던 감정이다. 차에서 내리려고 시동을 끄는 순간 에어컨이 꺼지고 땀이 나기 시작한다. 땀을 흘리며 조사구에 갔을 때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돌아오다면 어떤 기분일까.

주차를 하면서 밖을 내다보니 때마침 조사구 응답자 할머니께서 집에 들어가려 하고 계셨다. 들어가시기 전에 빨리 만나 뵙어야지. 알고 보니 할머니는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었다. 그 범인은 바로 벌! 어느 때처럼 우편함에 열쇠를 넣고 마실을 나갔다 오셨는데 그 사이에 벌집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벌이 얼마나 있나 보려고 차에서 우산을 꺼내 툭툭 쳤더니 벌 3마리가 쏙 나오더니 다시 그 우편함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떡하지...’



할머니와 같이 발만 동동 굴리다가 TV에서 봤던 게 생각났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대로 근처 마트로 달려가서 에프킬라를 하나 샀다. 차에서 쓰던 쿨토시를 팔에 끼고 조사표로 얼굴을 가린 뒤 에프킬라를 손에 짝 쥐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우편함에 대고 치이이익! 보이는 게 없어지면 용감해진다고 했던가. 평소에 벌레 한 마리 잘못 잡던 나인데 한 방에 평생 죽일, 아니 100세 인생을 살아도 다 못 죽였을 만큼의 벌을 다 죽인 것 같았다.

그 이후로 찾아볼 때마다는 항상 그때 이야기를 하신다. 다른 할머니께서 놀러와 계셔도 하신다.

“저번에 말했던 그 아가씨 있잖아. 이 아가씨가 참 착해. 벌이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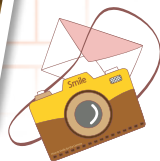
그때는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할수록 뿌듯한 순간이다.



벌 잡아드린 할머니



벌 잡아드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다른 응답자 할머니





설득은 오뎅이처럼

이 날도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다. 처음이랑 달라졌던 게 있다면 몇 가구를 설득해서 자신감이 조금 붙었다는 점? 어떻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나를 믿어줄까?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면 이번에는 달랐다. 조사구 문 앞에 서서 망설임 없이 벨을 눌렀다. 분명히 TV 소리는 나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다. 아이구~ 아이구 분명히 사람 소리는 나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다.

다시 푹푹푹~ “계세요?” 그때 배꼽 문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열린다.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소개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려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나는 몰라. 가. 큰 아들 없어.”

하시면서 문을 쿵 닫고 들어가 버린다. 무슨 상황이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잠시만 시간 좀 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안에서 할머니의 말소리는 들렸다.

“XXXXXXXXXX!!”

차마 쓸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말들이었다. 나는 좀 심하게 당황해서 한참 그 앞에 앉아있었다. 난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반응이 똑같거나 집에 안 계시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앞에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있었다. 너무너무 귀여워서 강아지와 눈을 맞추고 나만의 힐링을 하고 있었다.

“명명아. 어디서 왔어? 엄마는 어디 갔어? 몇 살이야? 너무 귀엽다.”

“개 내 깬데~.”

그때 뒤에 강아지 주인이 서 계셨다.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하면서 주인분이랑 즐겁게 대화를 계속 나눴다. 그러다 혹시 이 분도 내 조사구 응답자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는 어디 사세요?”라고 물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내게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았던 할머니네 집에 사시는 분이셨다. 할머니께서 치매여서 처음 만난 분께 원래 화를 잘 내신다고 하셨다. 그 이후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만 아직도 나에게 화를 내시며 쫓아내시고는 하신다. 할아버지와 문 앞에서 몰래 만나 조사하고는 한다. 언젠가는 나에게 마음을 여실 할머니를 기대하며 그 집을 찾아간다.



문 앞에서 몰래 만나서
조사 중에 한 컷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만난 사람들도 다들 그랬다. 처음 만나 보게 되는 나를 집으로 거리낌 없이 들이는 분들도 계시고 문전박대하는 분들도 계시다. 시골로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시청이나 읍사무소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데서 왜 조사를 하나며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하시고 왜 자꾸 꼬치꼬치 캐묻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신다.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서류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물론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를 받아주는 곳도 많다. 본인이 없을 때 방문하게 해 죄송하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그래도 가게부를 써보려고 했는데 마침 잘 찾아왔다고 박수 치는 분도 계셨다. 가끔 버스타고 집을 가다가 조사구 응답자를 만나게 되어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물론 정확한 조사를 해오는 것이 나의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보



어서 와, 현장조사는 처음이지?

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점은 두발 벗고 나서 도와주는 것이 통계공무원으로서의 또 다른 일은 아닐까.

처음이라는 것은 무섭고 설레는 일이다. 많은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아 처음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찾아올 성공이라는 달콤한 맛을 경험할 수가 없다. 나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어서 와, 현장조사는 처음이지?

나도 해낸 만큼 너도 할 수 있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즐기게 되지 않을까?

파이팅!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맹 성 현

사례,
스물

꼭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자에서 조사자로

◎ 인생이란 어떤 기회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4년 전 나는 통계와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 달에 하루는 새벽 3~4시까지 통계청 전자 가계부에 나의 월간 지출액을 피곤한 눈을 비벼가며 몇 시간씩 입력을 하곤 했다. 우리집이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와 가계지출조사 표본가구였기 때문이었다. 한 달간 큰 사탕통에 나와 집사람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신용카드 전표를 하나하나 꺼내 도서구입비, 유류지출비부터 아이들 학용품비, 외식비... 때로는 함께 술 마신 친구에게 준 택시비까지 세세한 내용을 입력하며 머리가 마비되





딱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는 듯한 느낌도 여러 번 느꼈었다. 체력이 고갈되고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이면, ‘아이고, 아무리 우리 집이 몇 백 가구를 대표한다고 해도 나 하나 대충 입력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고 ‘기왕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 최선을 다해드리자’ 며 때로는 새벽 날이 셀 때까지 꼼꼼히 입력을 하곤 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17개 농가를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방문하고 거기서 수집한 자료를 모아 통계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다. 표본가구의 응답자로서 응답을 하다 보니 통계청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참에 통계청 직원이 되어보기로 결심하고 죽어라 공부한 후 통계청에 입사하여 더 이상 응답자가 아닌 통계직 공무원으로서의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이다!

지금도 농가 아버님께서 지난 달 구입한 농약 값이 9,000원이던가 10,000원이던가 기억을 못하시며 말끝을 흐리실 때면 그냥 9,500원으로 조사표에 기입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아버님 앞에서 괜한 박수를 치며 웃거나 아버님의 팔을 잡고 한두 번 더 줄라 구매처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농약 값을 알아내고 만다.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좀 더 강해지면 좋겠지만...

◎ 눈물을 조금 빼면 마음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까?

농산물생산비조사 대상농가 조사구 B 아버님 댁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B아버님은 집 앞 계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흐뭇한 표정으로 담배를 맛있게 태우시며 앉아 계셨다.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나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으시며 똑같은 자세로 하늘만을 바라보고 계셨다. 내가 통계청에서 나온 직

원이고 이번 연도에 아버님께서 지으시는 논벼에 대한 생산비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 조사는 나라의 농업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농가 아버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허공에 연기만 뿜어대고 계셨다.

B 아버님은 담배를 여유있게 다 태우시더니 내가 곁에 서있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옆에 세워두었던 농약 뿌리는 기계를 등에 업고 밭으로 출발하셨다.

농가를 방문할 때는 전날이나 최소한 당일 아침에 응답자와 면접 약속을 잡는 것이 기본이자 예의라고 선배님들이 가르쳤었다. 그래서 사무실 전화와 핸드폰으로 며칠간 여러 번 연락을 했지만 B아버님 맥은 절대 연결이 안 되어 나로 하여금 뜻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던 농가였다. 그 날은 일단 무작정 맥을 방문해보기로 하여 운 좋게도 아버님을 단번에 만날 수 있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은 언제나처럼 적중하여 불과 3~4분 만에 나의 의지는 벌써 절반쯤 꺾여가고 있었다.

농약 뿌리는 기계를 짊어지고 가는 아버님과 감히 나란히 걷지는 못하고, 약간 뒤를 졸졸 따라가며 농산물생산비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 나에게 B아버님은 “작년에 왔던 그 사람 통계청에서 나왔다고 하던 디 뭘 하는지 모르겠더만! 올해는 또 사람이 바뀌었네?!”라고 통명스럽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말씀을 시작하셨으니 일단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밝은 표정으로 “농산물생산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현재 어디에 농사를 지으시는지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해요, 논외 주소와 면적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엇보다 농지원부를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아버님께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며,

“농지원부?!! 개인정보 알아다가 세금 매기고, 내 땅에 내가 농사짓는데 해



딱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년마다 왜 나만 걸려서! 내가 만만해 보여?! 재수 없게!”

독기 어린 매서운 눈빛에 울그락불그락 핏대까지 세우며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아버님을 보며 나는 더 이상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의 조사 실력으로 는 더 말씀드려봤자 상황만 나빠질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몇 번 고개를 조아리고 관용차를 타고 옆 마을로 피신하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아직 가슴이 심하게 쿵쿵거림을 느끼며 헨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예민하고 거칠고 신경질적인 사람들.

조사업무에 대한 의욕상실, 통계 응답자였던 시절 밤새 최선을 다해 응답해주었던 나의 모습
 등과 농가 아버님들의 비협조적 태도 사이의 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목표의 상실, 사람
 에 대한 두려움, 눈앞의 검검함... 이것들이 내 괴로움의 이음들이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밤새
 잠을 이기며 공부했던 나의 모습과 도망치는 나의 현재 모습, 공무원이 되었다고 눈물 흘리며 기뻐
 하던 어머니와 장모님의 모습들이 중첩되며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문제로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위로를 바라기에는 모두들 너무 상처가 많거나 혹은 이제는 공감하지 못하거나

◎ 때로는 강하게 길들이는 것이 보약이 된다

한 번 정신적인 타격을 입으니 다른 모든 농가 아버님들이 무섭게만 생각되었다. 앞으로 농가 경제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겨우 운전을 하여 사무실로 돌아왔다. 평상시보다 세 배쯤은



더 짙은 피곤함이 몰려왔다.

어떤 인간에게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에게 망각능력과 원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조금이나마 정신력이 회복되어 사무실의 동료이자 선배인 분에게 애써서 웃음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다. 상황에 대해 듣더니 선배는 ‘농지원부’라는 단어는 때에 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셨다.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의지가 있기 마련인데, 농지원부는 세금과 관련된다고 생각되어서 ‘농지원부’는 가장 민감한 자료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돌이켜 보니 상황에 따른 유연함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농지원부’라는 민감한 단어를 꺼내며 기계처럼 접근한 나를 복기해보니 나아말로 ‘세상 바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나약한 정신력을 선배가 조금이라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를 결코 위로하지 않았다.

“통계청 다니면 그런 일쯤은 비일비재해요!”

“나는 처음에 울기도 여러 번 울었어요!”

이런 일쯤은 비일비재하고, 나는 아직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면 앞으로 또 다른 큰 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인가. 두려움이 생겼지만, 나뉘는 배에 힘을 주고 눈을 부릅뜨며 상황에 맞서 봐야겠다는 오기도 또한 생겼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나와 똑같은 일 또는 전혀 다른 일일 것이야

◎ 선배를 흉내 내지만 때로는 나만의 스타일대로!



딱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운동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흉내내며’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선배에게 ‘바쁘시고 신경 쓸 일도 많으신 줄 알지만 부탁 하건대 선배님께서 농가를 조사하는 모습을 따라다니며 배워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수습을 허락받고 그 날 오전동안 몇 농가에서 선배가 능숙하게 조사하시는 모습에서 상황상황마다 질문과 추임새를 어떻게 하는 지를 관찰하고 최대한 많이 배워보려고 노력하였다. 오후에는 내가 담당하는 농가를 혼자 돌며 마치 선배가 나에게 빙의된 것처럼 신명나게 농가 아버님과 대화하고, 맞장구를 치고 손짓을 하고 감탄사를 내뿜었다. 흥이 나는 판소리인 듯 가슴에 열을 내자 농가경제조사가 신나는 일인 것 같았고, 내가 조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230

다음 날 나는 어제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B아버님 농가를 첫 번째로 찾아갈 계획을 가지고 출근을 하였다. 하지만 예전 어느 강연에서 설득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오전 일찍 보다는 오후에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오후에 B아버님 댁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 오후 2시 쯤 B아버님 댁에 도착하였는데 집에는 어머니만 계셨고, 어머니께서 농사일은 전혀 모르시지만 아버님이 곧 집에 올 것 같다고 알려주셨다. 집 앞 뜰에는 특이하게도 양봉을 하는 상자들이 있어 벌들이 상자를 드나드는 것을 관찰하며 아버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니 많이 지루하지는 않았다.

이윽고 “여말이요! 저기 아까 통계청인가에서 사람이 왔는데 가보쇼!”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렸다.

온몸에 땀에 젖은 B아버님께서 다가오시자 나는 마치 이전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여기 이 벌통 이거 무슨 꿀인가요?”

“벌들이 노란색이 아니고 검은색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꿀 상자 이거 하나에서 꿀이 얼마나 나와요?”

한 마디 대답도 아직 안하신 아버님께 나는 생각나는 대로 궁금한 것들을 빠르게 여쭙보았다.

벌통에 대한 나의 관심 때문인지 의외로 아버님께 서는 순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것이 조선벌들이어서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몇 통 안 나와.”

“벌들이 꿀을 잘 못 내니까 내가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꿀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 꿀인 것이여, 그래도 이 꿀을 먹으면 젊은 사람들 위장병에 효과가 아주 좋아!”

“아버님! 혹시 그 가짜 꿀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한 통 파시면 안 되신가요? 제가 마누라랑 떨어져 사니라고 아침마다 밥을 못 먹어서 위가 많이 아픈디 가짜 꿀 먹고 나오면 좋겠네요!”

벌통과 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아버님께서는 날도 더운데 집으로 들어 오라고 나를 이끄셨다. 갖고 계신 시키면 꿀로 꿀 차도 먹어보라고 타주셨다. 먹어보니 건강한 사람도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독한 쓴 맛이였다.

“아버님! 꿀 맛이 엄청 쓴 것이 진짜 약 되는 꿀인겁네요!”

“그 가짜 꿀 한 통 나한테 좀 파시라니게요!”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털다시피 하여 아버님께 꿀 한 통을 사고, 거실에서 아버님과 매우 독한 꿀차를 마시면서 거실 벽에 걸려 있는 가족사진들을 보며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고 아버님의 통계청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 얘기를 나눠보니 B아버님은 표현만 다소 거칠실 뿐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따



딱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뜻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도 농지원부만은 내주기 어렵다고 한참동안이나 버티셨지만, 일주일 후 결국 H아버님은 내게 농지원부를 건네셨다. 기쁜 마음에 사무실에 돌아와 그 시키면 꿀을 컵에 되도록 많이 부어 엄청 독한 꿀차를 만든 후, 나에게 조사시범을 보여주었던 선배에게 드렸다. 그리고 나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B 아버지 농지원부 내용을 나라통계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정신의 균형이 무너져서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받다.**

◎ **다이어트에는 역시 마음고생이 최고**

느닷없고 기묘한 순간이었다.

국가유공자이신 H아버님, 항상 나라 걱정을 하시고, 통계청 조사에 협조적이셨던 H아버님.

내 17개의 조사 농가 중 기분 좋은 스타트를 위해 내가 항상 가장 먼저 약속하고 찾아뵈던 H아버님. 그 아버님이 방금 나에게

“통계청이고 뭐고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고 외치며 나를 향해 앞발 차기를 하고 계신다.

내 눈에 슬로비디오처럼 보인 아버님의 앞발차기!

나를 밖으로 밀어내는 아버님의 모습에 나는 놀라기 보다는 오히려 약간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초에 수술을 하셔서 예민한 상태가 되셨나? 어찌된 영문인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꼼꼼하고 이해력이 좋으셔서 항상 조사표에 자세한 기록

을 해 주시고 방문 때 추가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시며 허기진 나에게 먹을 간식도 자주 챙겨주시던 아버님께서 벼락처럼 화를 내시니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한 이 ‘국가유공자 아버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험상궂은 표정으로 나를 쫓아내시니 어쩔 수 없이 그 곳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는 아버님의 마지막 외침은 상당한 리얼리티를 띠며 내 귓가에 계속 울리고 있었다. 나는 관용차 ‘모닝’ 안에서 끝없이 침전하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떠보았을 때 나는 여기가 과연 어디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신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 같은 느낌과 그 아버님을 다시는 찾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그 날 밤늦게까지 나는 허름한 선술집에서 차마 서있지 못하고 홀로 쭈그려 앉아 대량의 술을 퍼 마셨다.

아버님의 발차기 사건이 있는 후, 나는 며칠 동안 다른 농가를 방문하는 데에도 극한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75kg를 유지하던 체중이 70kg를 깨고 내려와 68kg까지 내려왔다. 농가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 어떤 두려움 때문인지 거기서 농가원부와 전월의 조사표를 세밀하게 점검하며 20분, 30분씩 농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증세가 생겼다. 따라서 조사가 지체되고 사무실에 저녁 6시가 넘어서 돌아오는 일이 잦게 되었다.



4년 전 까진 저는 정말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 **최고수가 내밀어주는 도움의 손길과 그의 화려한 플레이**

경륜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었다.



딱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말라가고 있는 나를 유심히 보고 있던 선배가 나에게 사무소의 작은 회의실로 오라고 하였다.

“요새 조사가 많이 힘들지요?”

“우리 통계조사원들이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나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자기 일은 되도록 자기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선배의 조언을 받아야 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곧 나는 딱 쥐었던 나의 주먹에 힘을 빼고 나에게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하였다.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4년전 까진 저는 정말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234

이 말씀부터 드리기 시작하여 H아버님 발차기 사건을 겪은 후 농가경제 조사에 있어 여러 모로 힘이 많이 든다고 나는 말씀드렸다. 농가경제조사를 함에 있어 농협 협조 하에 자료를 그대로 전해 받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농가에 편의를 주려고 농가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H아버님의 이해할 수 없는 신경질적인 반응 때문에 모든 농가조사에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의 상황을 설명 드렸다.

자초지종을 들은 선배는 이 문제에 있어 포인트는 ‘농협’ 이라는 단어였다고 맥을 짚어주셨다. 이전까지 나는 ‘농협’ 이라는 금융기관은 농업인을 위한 것이며, 농협은 모든 농업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있어서 ‘농협’ 이라는 말은 농업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다는 것을 선배의 말을 듣고 처음 알 수가 있었다.

선배는 약 열흘 정도 그 농가를 방문하지도 말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말고 대기한 후, 그 이후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자기와 함께 가보자고 제안해 주셨다.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흉터는 남는다. 한 번 상처가 생기고 나면 이것은 인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다. 약을 바르는 것도, 치료를 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일 뿐. 흉터가 잘 생기는 살성을 타고나면 애초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흉터가 난 자리의 민들민들한 살은 감각도 둔하고 만져도 내 살 같지가 않을 때가 있다. 흉터가 생기면 살기에 불편한가? 불편한 것은 없다. 흉터가 새삼 아픈 건 아니니까. 그러나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움츠려드는 나의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모양이다. 닿으면 소스라치게 아픈 상처보다도 내 살이 아닌, 내 살이 아니어야 할 것만 같은 흉터가 때로는 깊은 비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고통의 최고점을 이미 찍은 후 이미 회복중인 상처를 가지고 40살이 넘는 성인이 아프다 아프다 계속하면 이는 엄살일 뿐이겠지. 언젠가 이 흉터는 선배와 같은 오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되었을 때 나의 노련함을 식별시켜줄 표식으로 남을 것이다.

선배와 함께 농가를 가서 아버님을 다시 설득하러 갈 때 나는 친군만마를 얻은 듯 한 느낌이 들었다. 선배가 농가에 이르러 단지 몇 마디를 말하자 아버님은 마법처럼 눈 녹은 듯이 화가 누그러져 이내 엄청 해맑은 미소를 짓고 말았다. 말을 건넌에 있어 선배의 속도조절과 강약조절, 소통의 기술들이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몇 분 만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선배의 모습을 보며 나



딱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는 ‘최고수의 화려한 플레이’라는 어구를 되뇌고 있었다.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유쾌한 대화였다. 약 30분간의 짧은 조사 설득 지원.

그가 통계청을 다니며 얼마나 만만치 않은 세월과 노력으로 실력을 다져왔는지를 금방 눈치
챌 수 있었다. 적재적소에 쓰는 농담과 제스처, 웃음과 위로, 조사에 있어서의 진지함 등은 선배
가 얼마나 뜨겁고 커다란 열정으로 통계청에서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짐작케 했다. 언어들이 살
아있었다.



공무원으로서의 축을 세울 수 있는 조언의 목소리

◎ 그것은 아주 멀리서 또는 가까이서 들렸다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선배님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졌다. 선배님께 감사하
다는 인사로 나는 점심을 한 끼 대접하기로 하였다.

국밥을 먹으며 선배는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에
게 조심스럽게 피력하셨는데 이는 현재의 나의 공무원 생활에 큰 축으로 아지
도 작용하고 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스스로 해 내야 한다.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업무는 철저히 해야 하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이자 도덕이요, 이는 우
리 공무원들이 흔히 거론하는 청렴과도 직결된다.”

사실 나는 이전까지 통계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전국에 그 많은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가 사용한 비료 값이 9,000원이면 어땠고 10,000원이면 어땠가 하는 식의 의문이었다. 그 이전엔 조사 불응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으로 농가 아버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이 비료는 9,500원이지요?”라고 유도하며 물으며 아버님께 답변만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선배는 “통계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자신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대단한 수준의 올트라맨이나 신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실 된 사람을, 자기에게 철저하고 양심을 더욱 정화시키고자 즐기치게 노력하는 올곧고 청명한 인간을 요구할 뿐이다.”라고 말해주었다.



비오는 날 거미가 거미집을 짓듯 매우 치밀하고 단단하게...

◎ 선배에게 받은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언젠가 나도 후배들에게 ‘뜨겁게’ 전하리라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조사원 한 명 한 명이 한 삼씩 정성들여 퍼낸 흙들이 모여 작은 동산을 이룬다. 동산은 오직 조사원들이 땀 흘려 쌓은 집약된 총체로서만 가능하다. 한국 농촌경제의 진실 값을 밝히려는 다른 모든 조사원의 공든 탑이, 단 한 명의 조사원의 순간적인 나태함과 비양심에 의해 무너진다. 안락함을 위한 비겁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약아빠진 정신으로부터도 대한민국 통계값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모든 공무원들의 온전한 양심들에 의해 사수되어야 할 것이다. 선배는 비록 1-2



팍 쥐었던 주먹에 힘을 빼고 주변에 손을 펴자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년 뒤에 없어질지도 모를 이 조사의 조사표들이 갈기갈기 찢어질 지라도 50년, 100년 뒤의 후손들이 2018년 현재 우리의 통계를 신뢰를 가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아주 어쩌면 우리들이 애써 만든 동산이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사라질 뿐이더라도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정신만은 보석처럼 남아 빛날 것이라고까지 그는 말하였다. 통계조사에 있어 생기는 오차는 어쩔 수 없다는 나의 생각은 나의 안일함과 실수를 내 편할 대로만 변호하는 이기적인 것이었다.

선배의 가르침을 받고 나는 그 말에 따라 조사원으로서의 올바른 생활만을 하기로 매일매일 다짐하였다. 선배가 보여주었던 조사기법을 훑내내보고 농가 이동 중에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매 시간 최선을 다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기한 내에 마치려는 노력을 경주하자 아버님들도 열심히 하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나의 업무수행능력도 많이 향상되게 되었다.

이제는 이전처럼 ‘처절함’ 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음향학적인 느낌을 굳이 가지지 않고도 무난하고 여유 있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내가 담당하는 17개의 농가 아버님들과의 유대관계도 어느 때보다도 끈끈하여 더 이상 흔들릴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충실히 생활하며 경험을 쌓고 바르게 생활하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매월 반복되는 조사와 내검과 마감! 요즘 나는 조사와 내검과 마감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통계직 공무원으로서 내가 최소한의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주변 선배들의 관심과 보살핌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사무실에서 만난 인연은

일을 위해 만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간혹 보았지만,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부모자식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다. 언젠가 선배님께서 나에게 내려준 따뜻한 보살핌과 무한한 사랑을, 나는 후배들에게 '형으로서 아버지로서' 더욱 '뜨겁게' 전해줄 것이다. 이 뜨거운 정신의 운반자는 통계청에 계속해서 출현하여 후배에서 후배로, 또 다시 후배에서 후배로 계속해서 전해져 갈 것이다.



장려상

충청지방통계청
심효신

사례,
스물하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100년만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18년 8월 가계지출조사!

그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40분을 달려 조사구를 향해 뛰 어가고, 퇴근 후 밤 10시까지 차에서 기다리며, 벼란다 불이 켜질 때마다 현관 을 두드리며 응답 가구를 만나려 애썼지만, 그 무식한 불량배 같은 아저씨가 나를 두려움의 구렁으로 몰아넣었다.

나쁜 마음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은 가라앉는다.

과거의 추억일수록 미화되는 법칙이 있다. 모든 사람을 때때로 감성에 빠지게 하는 원천 이며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사는 동력이 되기도 하기 때 문이다.



벌써 통계청에 입사 한지 15년이 지났다.

그 중 6개월을 제외한 통계경력의 내 모든 날들은 가계조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2003년 입사하여 한 번 표본으로 설정되면 5년간 가계부를 기록하던 초창기에는 응답가구와 김장을 나누어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고, 그 집 손가락 개수도 알 수 있을 만큼, 문지방이 닳도록 방문을 하고, 커다란 필수품(휴지, 세탁세제, 압력솔 등)을 캐리어에 싣고 단독 주택을 누비던 때도 있었노라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추억팔이처럼 신규직원들에게 호기를 부리기도 한다.

가끔 신규 직원들이 현장조사 노하우 좀 알려 달라고 할 때 나는 쉽게 말하곤 했다. “평정심”,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등등 응답자의 우여곡절에 멘탈이 흔들리지 말 것이며, 응답자가 자신의 영업 이득을 위해 교묘하게 덤벼드는 이를 적절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내 평정심의 근간이라고 말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지내던 즈음 가계지출조사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큰 부담이 나를 휘감았다.

한 달 안에 가계부 10권, 가구 설득률 100%를 꼭 해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1인가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그로 인해 원룸과 오피스텔 조사구 표본수도 늘어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기우였는지 작년에 가계지출조사를 1년에 4회를 조사했는데 고맙게도 무사히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2018년 올해는 1년에 3번의 가계지출조사를 하게 되었다.



초반 1회차 2월 가계지출조사구는 원룸 조사구였으나, 통계 조사에 인식을 갖고 있는 주인가구를 만나 빈 집, 외국인가구 파악도 잘해주고 본인도 4층에 거주하며 가게부를 정성스레 기입해 주는 따뜻한 분이셨기에 어렵지 않게 설득과 기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주인 가구가 좋으니 세입자도 인격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중반 2회차 5월 가계지출조사도 원룸 조사구로 비록 철거와 상업지구로 바뀌는 등 3회의 조사구 대체를 하였지만 이 또한 힘은 들어도 긍정마인드로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마지막 3회차 가계지출조사를 하게 되는 8월이 되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100년만의 폭염이네, 역대 최장기간 폭염기록을 깨고 있다며 연일 화젯거리가 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더위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의 8월 조사구는 아파트조사구로 2번의 원룸 조사구에 비하면 “누워서 떡먹기”라는 생각에 여름의 빛도 참으로 따사로웠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완전한 착각이었다.

13평, 15평의 아산시 외곽에 자리 잡은 이 소형아파트에는 밤 10시가 되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혹여 사람을 만나도 남자들이 우글대는 기숙사, 또는 외국인가구가 대부분이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의 말씀은 빈 집도 없고 일반가구도 많다 했는데 정시에 퇴근을 하고 밤 10시가 되도록 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쉬다가 베란다에 불이 켜지면 달려가길 몇 날 며칠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아~ 이걸 아니다.”

내가 원하는 효율성에 완전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가?

시간낭비, 체력 완전 방전, 의욕 상실까지~ 기분전환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충동이 있다.

다음날 7시에 조사구와 가깝고 경치도 좋고 맛집도 많은 신정호수에서 동료와 저녁을 먹고 같이 동행하기로 결심한다.

정시에 퇴근을 하고 동료와 만난 저녁과 커피를 마시며 힐링과 웃음으로 재충전을 한 후 8시 40분에 조사구에 도착하였다.

소형 대단지 아파트이기에 늦은 시간엔 주차 할 곳도 없었다. 저녁을 사주는 인심으로 친구에게 근처 주차를 부탁하고 (소형 아파트 대단지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늦은 시간에는 주차 할 곳도 없다)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혼자 가구 방문을 시작하였다.

아직도 설득 가구가 많이 남아 있었기에 적극적인 맘으로, 그동안 부재가구 딱지만 붙어 나뒹굴던 집(803호) 앞에 머물렀다.

밖에서 볼 땐 희미하게 전등빛도 보였기에 벨을 눌렀다.

“딩~동 덩~동!”

“계세요~!!”하고 조용히 외치자 집안에서 갑자기 험악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구야?!!!”

시간은 9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복도식 아파트엔 갑자기 적막과 어둠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그래도 통계경력 10년인데 당당히 말해야 한다는 자존감이 꿈틀댄다.

“아 네~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오늘 낮에도 방문 드렸는데 안 계셔서 늦은 시간에 방문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기다리니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과 험악한 소리가 짹짹 울리며
쿵쿵 쿵쿵 문 여닫는 소리도 난다.

“뭘, 뭐라고? 통계청?”

“너 거기 딱 서있어!!(쌍욕)”

오밤중에 시끄럽게 남의 집 두드리는
너 같은 계집애 가만두지 않겠다며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순간 아~ 어찌지? 여기는 803호. 길게
복도를 뛰어가면 막다른 길이고 붙잡히면

그야말로 맞아 죽을 것만 같았다. 난 옆집으로 옆집으로 이동해 갔으나 이
위에 문이 열린 집도 없고, 어두운 복도는 왜이리 고요하고 공포스럽기만 한
지... 아저씨는 드디어 문 밖으로 나와서 나를 뒤쫓는다.

뒤를 돌아보니 긴 장발에 배는 산만하게 나왔고 옷도 걸치지 않은 파자마 바
람에 또 욕설이다.

“야!! xx년 너 이리 안 와?” “좋은 말 할 때 빨리 안 와?!”하며 쫓아오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아저씨는 다리를 절뚝이는 장애가 있는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학창시절 지하철에서 눈만 마주쳐도 묻지마 폭행범이 한창 따라올 때
아무집이나 들어가 자기 집인 것처럼 큰 소리를 내라고 했던 기억이 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옆집 그 옆집도 모두 문은 닫혀 있었고 나는 파랗게 질려 가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나오지도 않았다.

드디어 812호가 마지막 복도 구석 집이었는데 무서움에 떨며 여기까지 왔
는데 이게 웬일인가? 무더운 폭염 때문인지 이 집은 방충망 문만 닫아 놓은 채



현관문이 빠끔히 열려있는 게 아닌가? 난 내 멋대로 문을 열고 뛰어 들어 갔고 주인 분들은 무슨 일이라며 놀라 벌떡 일어 나셨다.

밖에서는 803호 아저씨가 계속 욕설과 폭언으로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나오는 이는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812호에는 다행히 노부부가 살고 계셨고 나를 안아 주시며 따뜻한 물도 내어 주시며 다독여 주셨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 하시며 저 망나니는 우리도 상종을 안 한다며 여기서 잠시 있으면 집으로 들어간다고 기다리라고 하신다. 천천히 안정을 찾아 가고 있었고 마침 그 가구도 가계지출대상 가구였기에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는데 밖에선 계속 시끄러웠다.

812호에는 들어오질 않고 이젠 어디엔가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

“오밤중에 찾아오는 조사가 어디 있냐”며 상대방에게 고래고래 소리도 지른다. 관리사무소일까? 통계청일까? 한참을 목청 높인다.

그 와중에 관리사무소 당직자이면 완전 민폐로 앞으로 조사가 더 어려워질 텐데... 차라리 통계청이었으면 나의 정당한 행위를 대변해 주지 않을까란 생각도 스치는걸 보면 안정이 되어가긴 하나보다. 결국 812호 아저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수 있었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만 늦은 밤에 한집 설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허전함과 두려움은 무엇인지...?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그 어떤 민원도, 전화도 없었다는데 그 아저씨는 대체 어디에 그 밤에 전화를 하신 것일까? 내가 외치던 평정심과 효율성이 바닥으로 나왔었던 어느 날이었다.



지금은 동료들과 웃으며 또는 웃지 못 할 해프닝으로 추억의 책장을 넘기겠지만, 그 순간 난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다시금 평정심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할 듯하다.

내 소신이 흔들릴 때 난 핑계를 댄다.

집착을 버리고 편하게 살자.

알아주는 이 누가 있다고 웬 고집이냐고...

그런데 이번엔 아니다.

편하게 가기 위한 그 어떤 핑계도, 방법도 필요 없었으며 아주 지극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성실과 끈기만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고,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또 하나의 멋진 조사 경험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2018년 무더운 한 여름날의 추억을 내 인생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며 아픈 미소로 책장을 넘겨본다.





자체추천작

경인지방통계청
이 영 속

사례.
스물둘

통계 베테랑의 새로운 시작



경인지방청 성남사무소 이천분소로 발령받다.

가을하늘이 유난히도 파랗다.

노란 들녘을 지나서 드문드문 보이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가을 길을 소녀의 감성으로 아니, 통계인의 감성으로 지나
친다.

“바로 여기가 경기도 이천!”

올해 4월에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이천분
소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는 입사 전 동북청 안동사무소에서 농업
통계 16년차로 만15년을 농가경제
조사를 담당했었다. 나름
농가경제조사는 고





수임을 자부하지만 여기 와서 새롭게 주어진 업무는 축산물생산비조사 2개월, 가축동향조사 2개월, 농업면적조사 2년의 경력이 전부였다.

불과 2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성남에 온 터라 내심 긴장도 되었지만, 반면 “그래도 통계청 밥 먹은 시간이 얼마인데…” 하며 자신감도 있었다. 여기 경기도 이천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발 딛을 때까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20대의 열정으로 부푼 꿈을 안고 무엇이든 잘 해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왔다.



5월 농업면적조사에서 길을 잃다

49개의 농업면적조사 단위구 인수인계는 하루 만에 지난 4월에 이루어졌다. 인수 받는 동안 찾아 가기 쉽게 흔들리는 차 안에서 재빨리 메모를 했다.

출장가는 순서는 전임자 선배님께서 잘 알려 주셨지만, 인수 받는 동안에는 “네!” 하고 대답만 했지, 어디가 어딘지 사실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길치”라는 것이었다.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에 무슨 면이 있고 어떤 동들로 되어있는지 파악이 필요했다. 다음 지도에서 하나하나 위치를 파악해서 요도를 재확인 한 다음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저장해 두었다.

지침서를 보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숙지하고, 5월 조사에서 확정 작물이 맥류(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봄 감자, 과수, 노지봄배추, 무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제 편한 옷차림에 창 넓은 모자를 쓰고, 운동화 끈을 꼭꼭 묶고 관용차를 타고 고고~~!

첫 농업면적조사 출장은 기대 반 설렘 반이었다. 단위구만 잘 찾으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첫 단위구에 도착해보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바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큰 필지는 잘 보였지만 주변 작은 필지를 확인하려면 가까이 가야하는데 내비게이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코앞의 필지를 돌고 돌아 20분 만에 도착했다. 그 곳은 모래더미만 쌓여 있었다.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니 마음이 후련했다. 9월은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제 다음 단위구로 출발!! 첫 단위구에서 힘을 뺏더니 혼자 가는 낯선 길이 꽤나 힘겹게 느껴졌다. 하지만 다음 그다음 단위구는 다행히도 수월하게 지나갔다. 작물식별과 면적 측측은 그래도 농가경제 경험이 있는 터라 그리 어렵지 않았다. 조금 어려운 작물은 “찰칵”해서 사무실에 가서 선배님께 여쭙어보면 되니 걱정이 없었다. 이렇게만 잘 찾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농로를 지나 산을 넘고 넘어 000 단위구에 도착했다. 네 개의 길을 오가며 보아도 나무들이 가려져 있어 전체 단위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치 단위구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조사했지만 웬지 석연치가 않았다. 뭔가 아닌 것 같고, 다른 필지를 조사한 것 같고, 나름 농업통계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헛갈리다니….

그 단위구에서 1시간 30분 이상을 보냈다. 해가 저물어 급하게 마무리하고 사무실에 돌아왔지만 깔끔하게 정리 되지 않았다. 마음도 몸도 지쳤지만 재확인이 필요했다. 며칠 후에 주무관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주무관님, 제가 아무리 봐도 혼란스러워요. 시간되시면 잠시 동행해주세요.”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렸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같이 해주셨다.

혼자 갔을 때는 그렇게 헛갈렸던 것이 역시!!! 농업면적조사 경력 25년 이상인 선배님은 금세 방향을 이리저리 보시고 필지 모양을 좌우로 확인하시더니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다. 속이 후련했다. 그동안 나를 베테랑이라 자만했었나보다. 오랜 경험 속에서 얻는 지혜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언젠가 깊고 다양한 경험의 노하우로 후배님들을 도울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



6월 가축동향조사 첫 총괄

성남사무소(이천) 총 대상처는 388개, 표본 102개, 전수 286개이다. 그중에 담당한 대상처는 조사표 51개에 폐업, 전출이 20개이다. 이천에 오기 전 딱 한 번 조사경험이 있지만 익숙한 지리에 대상처가 3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많은 대상처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가축동향조사는 인수인계과정이 부족해서 더 캄캄했다. 5월말 걱정할 틈도 없이 여주, 이천시 면단위로 다음지도 즐겨찾기를 통해 대상처 위치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옆에 조사구번호·경영주명과 축종을 써넣어 6개의 면·동 조사구 요도를 작성했다. 조사구 요도를 만들고 나니 가야 할 대상처가 한눈에 보였다. “시작이 반이다.” 했던가? 이미 반은 다한 듯 출격의 그날이 내심 기다려졌다.

그런데 팀장님이 미션을 주셨다. 가축동향조사 총괄자니 지침서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휴!! 혼자 지침서를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교육을 한다는 건 몇 배의 심도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익히 알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이천)에 올 때의 마음가짐을 돌이켜 보면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오지 않았던가?

신참이라 여러 가지로 바쁜 나날이었지만 내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이니 잘 해내고 싶었다. 지침서를 보고 또 보았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오래가지 않았다. 지침서 구석구석을 여러 번 보다보니 생소한 용어들이 이해되었다.

드디어 가축동향조사 지침서 교육!! 조금 긴장해서 시작했지만 다행히 준비한대로 사례도 들어가며 잘 전달한 것 같았다.

교육이 끝난 후 팀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했네. 이주무관 고생했어.” 이 한마디에 며칠간의 노력이 뿌듯한 보람으로 다가왔다.

현장조사에서 지침서 숙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침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고, 조사시간도 길어지며, 응답자에게도 응답부담을 더 주게 된다. 무엇보다 통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침서 숙지는 현장조사에서 바른 방향과 지름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과도 같으니 말이다.

이제 요도와 지침서 숙지도 모두 끝났다. 6월에는 조사 필수품도 전달해야 하니 대상처마다 꼭꼭 방문해야하는 부담이 되었다.





드디어 출격의 날~!

출장일정을 잡기 위해 돼지표본농가에 미리 안내 전화를 하고 fax로 자료 받을 양식을 발신하였다. 그리고 방문시기와 자료회신 방법과 조사 필수품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명부와 조사표를 검토해보니 대부분 표본농가는 fax 회신을 선호하지만 몇몇 농가는 직접면담으로 fax 회신이 어려운 대상처도 있는 것 같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조사표와 요도, 명부를 가슴에 꼭 안고 여주시 흥천면부터 시작~~ 돼지 표본농가를 방문했는데 다행히 사장님이 친절히 잘 응답해주시며 “더운데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네.” 하시며 응원의 말씀도 해주신다.

그 다음은 조사표에 “정부불신”이라는 메모한 줄!!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돼지표본농장에 도착! 농장 앞에서 여러 번 전화해도 통화가 어려웠다.

다시 다섯 번째 전화에 사장님이 “여보세요”하며 전화를 받으셨다. 기회다 싶어 “사장님, 저는 성남사무소 이천분소 000주무관입니다. 분기마다 조사하는 가축동향조사로 찾아뵈었습니다. 농장 근처에 와 있는데 잠시 뵈 수 있을까요?”

“.....” 전화가 툭 끊어진다.



“,” 쉽표가 필요했다.

수십 차례에 같은 말과 받지 않는 전화!! 6월이지만 뜨거운 날씨에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노라니 목이 타들어가고, 화장실 갈 여건도 녹녹하지 않은 터에 ‘불응’이라니…. 하지만 이대로 물러 설 수 없었다. 여러 대상처이다 보니 재방문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전화를 시도했다. 6월엔 “조사 필수품”이라는 히든카드가 있지 않은가? 다행히도 사장님은 전화를 받으셨다. 전화 끊을 틈도 주지 않고 “사장님! 이번 달에 답례로 농협상품권이 나와서 꼭 전달해 드리고 가야 해서요.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그냥 농장에 두고 가소.” 하신다.

“사장님 괜찮으시다면 돼지 사육두수도 여쭙봐야 하니 농장입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알았네. 30분은 걸리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시고 오세요.” 하고 전화 통화를 끝냈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불응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모든 대상처를 처음 뵈는 거라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다.

긴 기다림 끝에 사장님이 도착하셨다.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 희망이 보였다. 점심도 못 먹고 오래 기다린 모습에 조금 마음에 걸리셨는지 “얼른 물어보게.” 하신다.

다행히 조사를 무사히 끝내고, 다가오는 9월, 12월 분기마다 방문 조사함을 안내드리고 가축동향조사는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임을 말씀드렸더니 조금은 수그러드신 듯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전화해보고 와. 그래야 안 기다리지.” 하신다.



“네, 꼭 미리 전화 드리고 오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돌아서는데 피식 미소가 지어진다. 사장의 무뚝뚝한 말투에 “다음 조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와~”라고 말씀하시는 듯 애정이 묻어남이 아닐까?

가축동향조사로 산골짜기 골짜기, 동네마다 골목골목을 헤메며 다니고 나니 통계를 통한 배움도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는 것 같다. 이천과 여주시가 눈에 점점 들어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번조사로 이천, 여주 지리공부는 확실한 것 같다.



축산물생산비조사 젓소와의 첫 만남

축산물생산비조사 2개월 차로 분소총괄까지!!! 성남사무소의 분소라지만 이천에 대상처가 44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다. 대상축종으로 한우 번식우, 한우 비육우, 육우, 젓소, 비육돈, 산란계, 육계 7개종 그 중에서도 젓소는 전혀 접해보지 않은 축종이다.

어떤 통계조사든 처음이 있지 않은가? 두려워할 시간에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법!!

인수를 받던 날 표본농가에 고백 아닌 고백을 했다.

“사장님! 사모님! 사실은 제가 농업관련 통계 경험은 많지만, 축산관련 통계는 왕초보입니다. 특히 제가 젓소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더라도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하며 소개를 했다. 저 멀리서 경북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농가 중 ‘경북 의성’이 고향이라고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축산물생산비조사에서는 농가경제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용어들의 의미를 알아가는 싸움이 필요했다. 항상 모든 조사가 그렇듯 ‘지침서’ 라는 길잡이가 있고, 옆자리에는 든든한 경험 많은 팀장님과 경험 많은 팀원들이 있지 않은가? 2개월의 경험이 있어 아주 낯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새로운 통계조사를 접하는 건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다. 지침서, 사례집, 조사표, 원부를 펼쳐놓고 “실천하면서 익혀가리라.” 다짐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젖소 4농가를 소개할까 한다.

홍천면에 000농가! 사장님도 친절하시지만 특히 사모님께서 다른 용도(축협)로 축산일지를 쓰고 계셔서, 초보라서 귀찮게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질문해도 답변을 꼼꼼히 해 주시고, 잊지 않고 꼭 간식도 챙겨주시는 센스까지 지니신 분이다. 서투른 내게 가르침을 너무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홍천면에 000농가! 사장님은 연로하시고 소규모 젖소농가지만 항상 바쁘시다. 전 담당자 말에 의하면 시간을 좀처럼 안 내주신다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약속을 하고 가면 틀림없이 기다려 주시고, 가끔 멀리 와 고생한다면 칼국수도 사주신다. 유대전표는 잘 챙겨 주시지만 아직 영수증 챙기기 등 구체





적 답변을 조금 귀찮아 하시지만 그래도 처음보다 훨씬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정확한 통계의 희망을 가져본다.

능서면 000농가 젓소농가는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맞아 주신다. 사모님은 “이주무관은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말씀하시지만 항상 내 대답은 같다. “자주 뵙고 싶고 자주 뵈어야 통계가 정확해지니까요.” 하고 애교를 좀 섞어서 말씀드린다.

능서면 000농가의 사장님은 젓소사육의 박사님이라 할까? 굉장히 농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젓소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시고 실제로도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하시고 사양관리도 아주 철저하시다. 많이 바쁘셔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약속한 날에는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2시간도 내어 줄 만큼 열정이 있으시다. 객관적이고 정확하셔서 대규모 농장이지만 마음이 놓이는 농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농장 구석구석도 견학시켜주시면서 자랑하심이 열정으로 느껴져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사장님이시다.

얼마 전 위의 농가 중 한 농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표본농가 경영주께서 조사표 작성하느라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혹시, 통계를 전공했어요?” 하신다.

“아니요.”

“그런데 전공한 사람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서요.”

“그래요? 통계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통계업무를 오랫동안 해서 그렇게 보이시나 보네요.” 하고 말씀드렸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장님 말씀을 생각하니 왠지 뿌듯함이 느껴졌다. 과거 5개월 전에 “왕초보”라고 자진신고 했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초보임을 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변의 선배님들이 그러하시듯 오랜 세월동안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실패의 경험은 겸손을... 이 모두가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느껴보는 하루였다.

통계조사를 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있다면 통계인으로서 성숙함도 있지만 그 보다 큰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우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무에 얹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통계현장조사에서 통계인은 “불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통계현장조사에서 “설득”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기 때문이다.”



자체추천작

동북지방통계청
조은정

사례,
스물셋



조금 느려도 괜찮아

생후 302개월(26살) 된 내가 사회업무를 맡은 지는 이제 11개월...

258

개월 수로는 내 인생에서 약 3.6%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체감상으로
70~80% 정도?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좌절, 분노, 감동 등등 감정의 롤
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가뜩이나 낯선 동네에서 하는 것마다 처음이며, 낯선 사람들, 너무나 거 아
닌가 싶게 불친절한 사람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있나 싶
을 정도로 정이 넘치는 사람들...,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을 만
났던 11여 개월이 임팩트가 커서 그런가?

‘처음이니 느려도 괜찮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지난 11개월을 떠올리
면서 나에겐 특별했던 이야
기들을 시작해 보려 한
다.





생애 첫 번째 원귀와 귀인

경험해 본 적 없는 ‘연동’의 세계는 49일간 7번의 지옥 재판을 무사히 거치기 위해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내용의 영화 “신과 함께”와 비슷했다.

연동조사를 하는 4개월 동안 20가구를 만나면서 응답자의 반응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태위태한 나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느껴졌달까….

불응인(人) : 통계청이고 나발이고 삐~~OOOOOXXXXXXXX~::~!

나 : 아…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월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는데요 언제 시간…

불응인(人) : 이런 XX!, 네가 뭐데 내 정보를 꼬치꼬치! OOOOXX!!! 너

XX! 다시 전화하면! 삐~~OOOOOXXXXXXXX~::~ 알아!!!!”

이런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욕설과 폭언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간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직 만나야 할 가구들이 많음을 깨닫고 애써 울음을 그치고 거울을 보니 내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안타깝게 보이던지 또다시 감정이 북받쳐서 또다시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처음 조사하던 날, 악함으로 무장한 원귀 같게만 느껴지던 응답자로 인해 난 그날 내가 태어난 날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다. 한참을 울다가 다음 대상가구를 만나기 위해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대상가구의 벨을 눌렀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누구세요~~?” 그 네 글자에서 느껴지는 상냥함



에 다시 울컥…!

추운데 들어오라며 초면에 너무 따뜻한 인정을 베풀어주셔서 몸도 녹이고, 마음도 녹이며 부산에 있는 딸 이야기, 딸이랑 곧 갈 콘서트 이야기 등등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다음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문을 나서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 : 제가 조사업무는 처음인데요. 사실 아까 욕먹고 다음 분도 또 그러시면

어쩌나 무서웠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귀인(人) : 아이고오~ 앞으로 여기 아파트 돌아다니다가 추우면 어려워 말고 언제든지 우리집 벨 눌러요. ^^

이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간식까지 싸주신 너무 감사한 내 마음의 평온을 찾아 준 첫 번째 ‘귀인’ 같은 응답자!



처음으로 경찰연동조사를 해보았던 이날, 한 시간 남짓 정도의 시간 동안 지옥과 천국을 맛보았다.

‘아, 이래서 연동, 연동, 하는구나!’



두고 가지 말자, 당당함!

얼굴도 못 보고 욕먹었을 땐, 서러워하며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 아저씨를 탓할 수 있었지만 반면에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명백한 ‘내’ 탓에 더 후회되고 아직도 후회 중인 의기소침한 나의 태도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린 일이 있었다.

조사대상 가구와 통화도 되고, 약속도 잡고 벌써 다 성공한 기분이었다.

아줌마 :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안하면 과태료라도 내요?

나 : 네 여기 통계법에도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긴 한데… 보통 가구에는 잘 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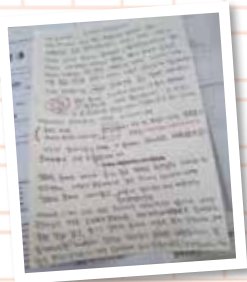
아줌마 : 뭐야, 그럼 의무 아니네. 감시당하는 기분일 것 같아서 하기 싫은 데… 우리 남편도 분명히 싫다고 할 거예요.

나 : 그렇다고 의무가 아닌 게 아니고, 이 가구를 조사 못하면 570가구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사장님 직접 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줌마 : 주말에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은 일단 가보세요.

다른 불응가구처럼 아주 완강해 보이지도 않고 또 이미 의무가 아니라는 말에 말문이 막혀버려서 일단 한 발 후퇴하기로 했다. '다음번 방문 드릴 땐 꼭 당당하게 설명해야지!' 다음 만남을 기다렸지만 다음 기회는 없었다. 말로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응답 협조의 말들을 직접 써서 편지와 함께 미리 뽑아간 통계청 고용동향과 여러 기사들을 두고 왔다.

혹시 납득하셨을까? 아니면 안쓰러워서라도 해주실까? 기대하며 다음날 찾아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전하고픈 말을 꼼쩍 않는 문 앞에서 열심히 적었다.



이 집을 볼 때마다 ‘처음 그날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의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설명했더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이때 후회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운 만큼 이제는 당당하게 말한다.

“왜 꼭 해주셔야 되냐면요~. 통계법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설득하러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당당함”이 아닌가 싶다.



기다림의 한 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불응의 쓴맛을 크게 보았던 나는 이제 어렵פות이나마 응답자에게서 풍기는 불응의 불길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 집이 걱정이다 걱정이야!’ 하며 팀장님과 상반기 가계부를 회수하러 가던 날, 김장철이라 동네 주민들이 자식들에게 김장김치 보내느라 응답자의 가게 앞에는 택배 상자가 잔뜩 쌓여있었다.

바쁜 상황이라 말을 걸 수도 없고, 쭈뼛쭈뼛 서 있기를 수십 분, 마냥 기다리는 것도 신경 쓰이니 다음에 오라고(다음에도 바쁠게 뻔하다)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찰나,

사장님 :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팀장님 : 바쁘신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 어이구 됐어요, 그냥 일 보세요.

팀장님 : 저희가 벌써 다 들고 왔거든요! 그냥 서 있으면 뭐 하나요? 이거

하면서 천천히 기다릴게요^^ 여기 적힌 주소로 쓰면 되나용~?^^

사장님 : 아니 그래도, 추운데... 죄송하게...

팀장님 : 겨울에 추운데 혼자 다 쓰시려면 이것도 엄청 일이죠~ 저희 둘이니까 금방 쓰는데요. 뭘~ ^^

덕분에 택배 송장 작성방법을 설명하시던 중 지으시던 사장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고, 가게부는 내 손안에!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방금 한 거라며 주신 김장김치와 수육으로 늦었지만 따뜻한 저녁과 이후에도 가게부 잘 써주시는 사장님이 되어주신 1타 4피의 “기다림”이었다.

상황마다, 응답자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가 있는 것 같다.



척하면 척

결정적인 한 수를 놓는 것과 별개로 ‘많은 경험에서 쌓인 내공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던 일이 있었다.

장애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기 힘든 아저씨를 뵈러 갔을 때였다.

팀장님 : 아저씨~ 저번 주에 뭐 산 거 없어요~?

아저씨 :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어읍허~ 어업어~

팀장님 : 그럼 계~~속 집에만 계셨던 거예요?!

아저씨 : 아호아히.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자..자..자ㅎㅇ나

팀장님 : 아~~5일장 다녀오셨구나~ 언제 다녀왔어요?~ 맛있는 거 사드셨겠네요?!

아저씨 : 마마마..ㄴ...!!



팀장님 : 만뚝국 드셨구나~^^ 으음~ 맛있었겠다!!! 얼마주고 사드셨어요?

아저씨 : (손가락 7개) 티..티틸티어~

팀장님 : (아저씨 말 끝나기 전에) 7000원~ 생각보다 비싸네?! 그리고 또 산 거는! 없으세요~^^?

나 : (눈만 떴을때).. ◎.◎

네. 이 대화 중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만 팀장님이 척하면 척! 하고 알아듣고 대화를 이어가니 아저씨가 어찌나 신나서 침까지 튀기며 말씀하시던지! 중간에서 나는 아저씨 한 번 보고 ‘응?’ 팀장님 한 번 보고 ‘아~’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눈만 떴을때 굴리다 온 것 같다.

아저씨의 생활패턴은 알게 되었으니 당당하게 혼자 기입지도를 갔을 때 팀장님처럼

“어?! 이 옷 예쁜데?!!! 새로 사신 거예요?!!!”, “지난주에 11일이었는데 장날엔 안... 가셨어요?!!” 몇 가지 알아내고 뿌듯함도 잠시, 흥내 내는 걸로 한계는 너무 빨리 왔다.

아저씨 : 에가~ 그..그엇#@^%%???

나 : 아...음... 네? 다, 다시... 한 번만.. , 네? 못 알아들었... (x 4번)

아저씨 : 아이~!!!! %&\$+**... !!!!

그 착하던 아저씨가 짜증을 내셨지만 그마저도 난 못 알아들었다. πππ 화제를 전환해서

나 : 아저씨, 저랑 같이 왔던 분 보고 싶으시죠~?! ^^

아저씨 : (끄덕!!) 어!!!^^

나 : 다음 주엔 꼭 같이 올게요~!!! 피곤하실 텐데 꼭 쉬세요!!!!

그제서야 씨익 웃으시는 아저씨.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아저씨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팀장님이 어찌나 존경스럽던지! ‘나도 경험을 많이 쌓으면 가능한 건가...’ 싶었다.

나도 언젠가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오려나?!!!



1+1, 신통방통한 연탄이(犬)

응답자와 가까워지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1+1이 있다.

작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가구의 미용실에는 항상 ‘딸기’와 ‘연탄이’가 있다. 그 중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귀신같이 알고 짓지 않는 놀라운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연탄이’

연탄이 : 으르렁~ 웅웅웅!!!!!!!

사장님 : 애가 손님 아닌 거 알고 얼른 나가라고 이렇게 짓는다니까, 괜찮아 안 물어~.

나 : 우와~~ 완전 똑똑한데요?! 연탄이 무서워서 가야겠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손님이 있을 땐 이것저것 못 물어보고 좀 앉아서 기다리려면 애가 날 쫓아내니 예상치 못한 난관이었다.

(어느 날 머리를 하러 갔었는데, 세상 고요한 연탄이)

나 : 오? 애 오늘은 조용한데요?!!!

사장님 : 손님으로 왔잖아. 우리 연탄이 손님한테 안 짓어. 그치? 우리 연탄 이잉~~.

하지만 이랬던 연탄이도 자주 봐서인지 이제는 날 반겨준다.



사장님 : 연탄아~ 언니 왔다~ ^^애가 아가씨 오는 줄 알고 문 앞에서 난리였네.

매번 미용실로 방문하다 보니 애도 나랑 정들었나 보다. 그리고 한 번은 연탄이가 내 옆으로 와서 '먹고 싶은 건가?' 해서 계란노른자를 주려니

사장님 : 연탄인 계란노른자 안 먹어. 커피랑 고기 좋아해.

연탄이 : (내 손에 있는 계란노른자 났름 났름~)

사장님 : 오메메, 애 좀 봐라! 차amna~ 너 웃긴다?

웬지 모를 승리감! ^^ 연탄이가 통계조사에 응답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응답자네 반려견과 친해지니

[연탄이는 나를 신뢰한다, 연탄이(반려견) = 응답자의 분신 ≙ 응답자 ∴ 응답자는 나를 신뢰한다.] 이런 나만의 억지 삼단논법으로 응답자가 나를 신뢰한다고 결론짓고 괜스레 뿌듯해한다.



연탄이



저 남자친구 있어요!

거절하는 건 불편하고 힘들다. 응답자의 난감한 부탁을 거절하는 건 더 힘들다. 조사가 끝나는 조사구에 우리 아들 소개받으라고 볼 때마다 애교 섞인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 평소에도 애교 많고 장난기가 많아서 그저 농담으로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그 구역이 아예 빠지고 난 뒤에도 연락이 왔었다.

아주머니 : 아가씨, 이번 주에도 어디 가?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왕. 흥흥 흥흥~~!

나 : 네네! 괜찮아요! 그럼 그때 뵈게요~. (아, 아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은데ㅠㅠ)

몇 번이나 왔었던 연락에다가 조사 끝났다고 바로 피하는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더 거절 못 하고 결국 약속을 하고 나갔을 때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아들 : 아하하 안녕하세요? ^^

아주머니 : 올 아들이 어제 새벽에 갑자기 와서 나도 놀랐지 뭐야~ 같이 먹자~. ^^

어색한 분위기와 부담감이 계속되며 아주머니가 바라는 러브스토리는 역시나 일어나지 않았고 매우 불편하게 끝이 났다. 남은 구역 조사하러 그 아파트에 갈 때 그 아들 소개해준 어머니를 마주칠까 봐 어찌나 노심초사했는지!

나는 이 일을 계기로 불편한 일의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남자친구 있다고 대답하게 되었다.



든든한 멘토, 든든한 지원군

지난 11개월간 처음 하는 사회생활, 처음 하는 조사업무에 힘이 들 때면 우리 팀 선배님들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로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 눈물 젖은 추어탕

어? 왜 이 집은 이거 밖에 없지?! 조사 2달째 몇 가구 조사가 덜 된 걸 발견했다. 다섯 가구를 거의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만나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조급하고, 내가 너무 한심했다.



부랴부랴 상기된 얼굴로 조사구를 갖는데, 너무 너무 죄송하게도 아가씨가 혼자 밤에 위험하다며 우리팀 두 분이 도와주시러 오셨다.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너무 죄송하고 내가 내일을 잘 소화하지 못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

저녁으로 추어탕을 먹으면서 “우리가 옆에서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해서 맛있는 저녁 사주려고 왔지~ 먹고 하면 되니까 괜찮아!” 하시며 오히려 미안하셨다는 말씀에 이번엔 자책하던 맘보단 감사한 마음에 감동의 눈물이 났다.



나중에 내가 선배가 되었을 때, 허둥지둥하는 후배를 본다면 이 눈물 젖은 추어탕이 떠올라 꼭 도와주게 되지 않을까.

◎ 조금해 말기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뿐이지,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조금해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내가 너무 더딘 것 같고 답답하게 느끼던 때라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아직도 나를 위로해주고 있는 명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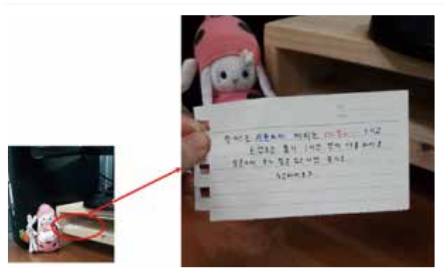
이렇게 든든한 멘토와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있으니 힘들게 하는 응답자를 만난다 한들 뭐가 무서울까!♡



나만의 힐링법

짜잔. 모니터를 보면서 입력할 때나, 조사표를 입력할 때나, 지금 체험사례를 쓰면서도 보고 있는 내 자리의 모습이다.

자랑하자면 저 양말 인형은 106호 응답자의 친한 언니가 한 땀 한 땀 만들어주신 거고 저 쪽지는 싫다고, 싫다고, 가라고, 가라고,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1772'번호 외웠으니 안 받을 거라고 부정적인 말만 하던 208호 응답자가 쓴 것이다.



책상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응답자의 쪽지, 양말인형

이 쪽지에는 “박카스는 시원하게, 제티는 따뜻하게 드시고 온난로는 춥기 1시간 전에 개봉하세요. 설문지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 수고하세요!”라고 따뜻하게 쓰여 있다.

그렇다. 이 이상한 쪽지는 작년 겨울부터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

아무래도 나를 쫓아내기에 바빴던 208호 응답자가 나에게 처음으로 베풀어 준 마음이기에 더 감동이었고, ‘우와~ 마음이 변할 수 있구나!!’ 처음 느껴본 순간을 떠올려 주기 때문에 이 메모는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나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선 ‘난 착하게 잘 살아온 거 같은데?!! 누구 할부로 대한 적이 없는데 난 왜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지?!!’

서러움 → 억울함 → 분노 3단계 감정 변화가 온다. 하지만 속상했던 그때를 계속 생각해서 그렇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보단 나에게 힘을 준 고마운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다.

추우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서 몸 녹이고 가라던 206호, 첫 방문 때 우리 손자도 닭뎃데 손자 생각난다며 밥은 먹고 다니라고 저녁 차려주신 104호 할머니, “이거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아가씨 더운데 다니기 힘들잖아~.”라고 귀



엽게 불응하시는 207호 할아버지, 문 그렇게 소심하게 두드리면 사이비 그런 데서 온 사람 같으니까 당당하게!! 하라며 나와서 얘기해주신 집세가구...

이렇게 한 집 한 집 떠올려보면 ‘와~ 나 진짜 복이 많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힐링이 된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이제 나도 통계청에 들어온 지 1년 2개월이 되었고, 11번의 경찰조사를 완료했다. 여전히 초보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은 떨리고 두렵기만 하다.

다만, 1년 전과 지금의 나와 다른 점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많고, 마음은 언제나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든든한 나의 지원군들이 있기에 1년 전보다 조금 덜 두렵다는 것이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에 절망하고 자책할 때도 있지만, 성큼성큼 걷기 전 한 발짝, 두 발짝 떼고 있는 과정이기에 지금의 난 조금 느려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즐겁게 시작하자!”



자체추천작

호남지방통계청
고 병 주

사례,
스물넷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나아간다!!!



에필로그

최근 5년 이상 지방청 본부(과) 및 사무소에서 지역통계업무, 경제통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 지난해 2월, ○○사무소로 발령받았다.

2017년 농업생산 업무 및 담당팀장을 맡아 현장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업무량 측정은 오히려 현장업무를 가중시켰고, 인력은 부족현상을 보이는 등 현장 업무는 날로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을 넘어선 그야말로 아저씨가 되어서였을까 농업생산 업무는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농업생산 업무를 담당한지 1년여 된 지난 1월, 업무분장을 새로 하였으며, 그 말로만 듣던, ‘남자가 하는 가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 농가경제와 농산물생산비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25년 경력에도 전혀 담당해보지 않았던 농가경제, 농산물생산비,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하게 되었으며 “농가사회팀” 팀장으로 한 해를 보내야 했으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올해, 인력분배 차원에서 팀을 새로 정비하고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 주로 농어업 위주의 지역이라 어업 한 팀, 농업생산과 경제업무가 한 팀, 그리고 농가경제, 농산물생산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담당하는 ‘농가사회’팀으로 재편하였다.

새로 만든 우리팀은 여직원이 7명이고 남직원은 팀장을 맡은 나뿐이다. 업무도 업무지만 남직원은 혼자인데,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말 못할 사연이 발생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혼잣말로) 무척 난감한 일이야...’

우리 농가사회팀의 미팅시간에 팀원에게 이렇게 팀을 소개한 적이 있다. ‘외인구단 팀’이라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서로 다른 업무인 농가경제와 농산물생산비, 그리고 사회분야(경찰 등) 팀을 한 팀으로 구성했으니 말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업무 인계인수)

◎ 농가경제조사

이전에 담당하던 여직원이 농가를 방문하면서 표본농가 경영주를 보면서 이렇게 나를 소개한다. 이제부터는 담당이 변경되어서 우리 농가사회팀장이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협조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석별의 인사를 하고 앞으로도 조사에 대해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전임 담당이 친절하게

잘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아쉽다고 하신다.

옆에서 듣는 후임으로서 무척이나 부담도 가고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를 지경이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하고 악수를 하고 다음 농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다.

◎ 농산물생산비조사

아직 생산비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던 논벼 농가, 고추 농가 등 여러 농가들은 아직도 표본확정이 덜 된 상태여서 설득도 해야 되고,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조사표 기입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있어서 여간 심란하지 않다

표본농가로 한 1년이나 했었더라면, 후임자(나)가 조사하는데 좀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조사를 시작한지 몇 달이 채 안된 상태인지라 조사추진도 어려웠고, 경영주를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다.

농산물생산비조사는 조사항목별 투입물량, 노동시간, 노동력에 대한 투자금액, 비료비, 농약비, 위탁사용면적, 금액 등 조사용어도 생소하였다.

표본농가 대상으로 일일이 작업량에 따른 노동투입시간을 일별, 월별로 체크를 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했고,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농가도 일부 있어 해야 할 일들은 첩첩산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 조사구는 아파트라 맘에 들었다.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는 대상처가 푹 푹 떨어져 있었는데 스무 집이 딱 붙어있으니 좋았다. 하지만 인계 인수날, 스무 가구 중 그날 만난 집은 서너집에 불과했다.

‘괜히 한다고 했어, 괜히 답했어.’



농가사회팀장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미치도록 그러고 싶었다. 눈앞이 멍해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다. 게다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부가조사가 틈틈이 있다니 여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그렇다 해서 이제 와서 못한다고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맡은 지역은 임대아파트 주거지로 낮에는 나이 많은 어머니 몇 분만 만나고 늦은 오후 시간 또는 저녁을 먹는 저녁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또 몇분을 만나 조사를 하고 더러는 야간근무(교대)로 이마저도 조사가 쉽지 않은 조사구 특성이 있어서 조사조차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



만남과 기다림?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고 덤벼라!”

며칠 후, 인계받은 농가를 첫 방문하게 되었다. 물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달렸다. 그러나 앞마당을 가로질러 문 앞에 당도해서는 망설였다. 가만, 뭐라고 불러야 할까?

‘여보세요? 아저씨? 사장님? 아니면 아버님?’

긴 숨을 내쉬고는, 목 놓아 “아버님, 어머님 계세요? 안에 계세요?”라고 외쳤다. 장인어른, 장모님 말고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는 순간이다.

안에서는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내 문을 노크한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휴... 한숨만 나온다.

아무도 없으시네. 어디 가셨지...? 만나야 뭘 물어보지, 만나야 얘기해서 친해지지...

어쩔 수없이 메모장을 꺼내놓고선 “통계청 ○○사무소 ○○○입니다.”

방문한 목적, 부재중이어서 다음에 오겠다고 쓴 메모를 적당한 위치에 붙여 놓고 후다닥 자리를 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은 오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데 “즐거라”는 말은 너무 가혹했다.

하지만 ‘그냥 확 덤비고, 돌진해서 전진하는 게 훨씬 낫지’ 하며 용기를 내봤다. ‘처음 매듭이 원할치 않으니, 계속 꼬이면 어찌나’ 하고 그새 소심해 졌다.

히격~ 두 번째 농가도 문을 닫고 출타 중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다. 긴 연결음 끝에 다행히 받으신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조사 나온 ○○○입니다. 저 아시겠죠? 며칠 전에 방문해서 인사드렸던...”

다행히도 ‘아! 통계청에서 왔구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에 없고 읍내에서 은행일도 보고 출타 중이니 다음에 오라신다.

그래도 통화라도 해서 다행이다. 내친김에 첫 번째로 방문했던 농가에게도 다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다. 그 농가는 한참을 얘기한 후에야 목소리를 알아보았지만, 바쁜일로 인하여 다음에 오라하면서 웃으셨다.

‘아, 출장 전에 방문 안내 문자를 드렸어야 했나? 사업체조사랑 다르네, 적어도 가면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날 연락드렸으면 기다리셨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도 이 농가는 같은 성씨라 웬지 부담이 덜 되었다. 이번에는 꼭 만나고 싶었다. ‘잘 풀려야 할 텐데...’ 연신 중얼거리면서 문 앞에서 외쳤다.

“계세요? 통계청에서 조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아무도 없나 보다 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섰다. 순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머리가 꺾듯이 서는 듯 했고, 그만 놀라 자빠질 뻔했다. 간신히 문을 여신 어머니는 말 못할 상태(?)인 어머니인 것이다. 아저씨는 회관에 일이 있어서 마을 일을 보러 가셨다고 하신다.

나는 급하게 인사를 마치고, 회관을 찾아갔다.

“통계청에서 온 ○○○입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 보았던...?”

조금이라도 물어보고, 빨리 조사를 해야겠다 싶어 내 자동차로 경영주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가 봐요?”

“응. 그리 뻘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네...”

뒤라고 위로를 드리면 좋을까? 다행히 준비해 간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살짝 밀어 넣었다. 무어나고 묻기도 바쁘게, “조사 잘 해주시라고 몇 개 사 왔으니 맛있게 드세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뒤에 “다음에 오겠습니다. 조사협조 잘해주세요.” 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생산비조사 표본 확정 및 대체를 위해서 농가를 찾으면, 우리 농가들은 대부분 나이가 70세를 넘어선 분들이고 시간만 되면 진료를 위해서 읍내로 출타를 하신다. 우리 논벼 생산비조사 대상처는 팔순이 넘은 홀로 된 어머니도 있다. 그 고단한 삶을 감히 상상해 본다.

고추생산비조사 대상처는 확정이 더 쉽지 않다.

작년 수확기 600g에 1만원에 시작된 고추 가격이 2만원까지 폭등하였다. 예전 같으면 다음해 재배량 증가가 확실하다.

하지만 그 예상은 이제는 빗나간다. 모집단은 벌써 과거 이야기다. 한두 해

사이 급격히 고령화 되고, 건강에도 자신이 없어졌다.

뜨거운 여름 날, 고추를 따고 옮기고, 말리고, 또 농약하고, 어느 작물보다 손이 많이 가는 고추 농사를 농가들은 고추 두둑을 만들 때 규모를 줄여서 아쉽게 규모 이하가 되고 만다.

200평, 그 한마지기를 짓는 농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제야 대체 또 대체를 했다. 이게 바로 우리 농촌의 현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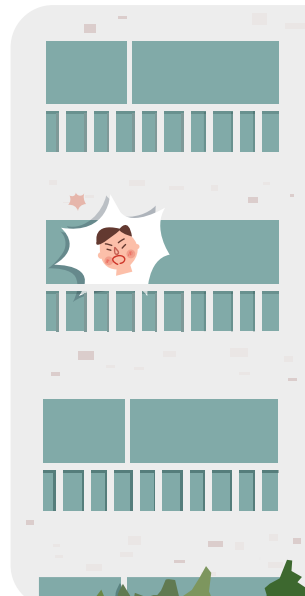
쓸쓸한 너의 아파트!!!

어렵사리 농가경제조사 내검을 마무리하다보면 어느새 ‘경활타임’이 온다. 내가 맡은 경활조사구는 00평의 임대아파트, 그랬다. 4인 가족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었다. 주간에 만나기도 어렵지만, 방문해서 면담하는데도 여간 어렵다. 협조적인 가구도 있지만, 문을 열어놓고도 응답을 쉽게 해주지 않은 가구도 있고, 문을 열다가도 바로 문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한 번은 우리팀의 여직원과 같이 동행해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직원이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문을 닫으려고 힘을 쓰기에 서로 문을 열려고 힘겨루기를 하였다. 순간 발을 출입문 사이에 넣고 버틴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다니, 나도 참 속이 없다. 이렇게 조사는 만만치 않구나...’

작은 평형의 임대아파트는 말 못할 사연, 대상을 알 수 없는 불만과 분노, 복잡한 삶과 함께 거의 연동 수준





의 잦은 전·출입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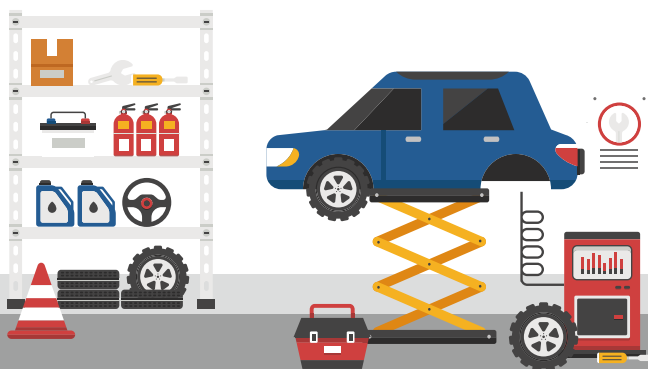
또 가구 전출이다. 어렵사리(○○관리실을 통했든지, 노모를 설득했든지…) 연락이 되어 사업장으로 갔다. 「○○카센타」였다. 같은 남자가 봐도 인상이 매우 험상궂었다. 카센타면 서비스업인데….

말을 붙여보기도 부담이 되었다. 그래도 자동차 수리 중이니 쉬엄쉬엄 말을 붙여보려 했는데,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

인사를 하고 한참을 곁에 서 있었는데 “뭘요? 어디서 왔소? 바쁘니 다음에 오시오.” 혼자서 말을 거칠게 내뱉는다.

또다시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됐소, 바쁘니 나중에 오던지, 다른데 가서 조사하란 말이오!”하고 소리를 욱 박지른다.

어이가 없고, ‘무슨 말을 던져서 응답하게 할까?’ 하다가 또 몇 분을 기다리다가 “잠깐 아니, 2분만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하고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왔고, 조사하는 목적 등 조사에 대한 사항을 속사포로 설명하고, 나이가 어떻게? 아니 무슨 띠?? 하면서 살짝 반응을 보았다.





경찰조사 자료 및 홍보안내문
설명 장면



경찰조사 대상처 사업장 장면



복잡하지 않다며 재빠르게 체크하고 메모했다. 그런데 표정이 더욱 좋지가 않다. “네~ 일하고 계시니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은 잠시 후퇴하기로 했다.

다음에 다시 방문을 했다. 드링크 한 박스를 들고 가서 한 병을 휙 둘러서 뚜껑을 열고, 우선 더운데 드시고 하시라면서 지나가다 들렀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끔 들르게요” 하고는 또 나왔다. ‘역시 들어올 수는 있어서 집보다는 낫구 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부가가 있기는 하지만... 주간의 일한 시간 그 몇 가지를 이렇게 답해주기 어렵나, 서운하기도 했지만, 몇 번을 더 지나가는 척 둘러서, 결국 체념을 하고 응답을 해 주었다.

역시나 소규모 외곽에서 하는 카센타로 손님은 거의 아니, 별로 없어서 겨우 생활비만 버는 수준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회순○○병원에 자주 간다는 얘지며,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못가고 홀로 부모님 병치레를 수발한다고 사정 아닌 넋두리를 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좀 친해져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답해주기 싫더니 하고 물으며 “내가 만일 국세청, 검찰 즉 ‘힘과 권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나왔어도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 “아니죠. 당장 협조했겠죠…” 한다.

통계조사는 정확성이다.

하지만 더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우리 통계청 직원들은 현장의 어려운 현실과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오늘도 조사를 위해 몸을 던진다.

누구나 신뢰하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오늘도 나는 노를 저어 현장 속으로 힘차게 달려간다.





자체추천작

동남지방통계청
곽민정

사례,
스물다섯

만남 : 우연에서 필연을 거쳐 인연이 되기까지

세계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나 역시 길을 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면 항상 떠오르는 아이가 한 명 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한 아이가.

281



우연 :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이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때 있었던 일이다.

지금이야 서로 다른 문화가 가지는 특색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 '비정상회담'이란 예능을 통해 다문화 사회가 친숙해졌지만, 3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아직
다문화라는 의미





가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던 시절, 나는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라는 대행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사지도의 핑계로 우연히 한 다문화가정을 방문했다.

어느 조사나 마찬가지로 낯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외국출신의 대상자만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땐,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고민부터 앞선다. 설상가상으로 그 가구가 불응가구일 경우엔 어떠하랴.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런 가구를 나는 직접 만나게 되었다.

내가 찾아가는 가구는 한국인 남편은 외국으로 장기 출타중이고, 모로코인 대상자와 한눈에 봐도 외양이 다른 10살 아동이 있는 집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러다보니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이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조사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아이의 엄마는 내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한 걸로 알았는지, 이웃집 젊은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집 분들 도움으로 조사 취지는 설명했지만, 아이의 엄마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 조사를 내가 왜 해야 하나며, 다문화라는 어감에서부터 불만 가득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에 대해 통계청이라는 기관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이웃집 부부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설득해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마침 10살 아동이 학교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청소년 자녀 조사표를 던지시 건네며, 아이에게 작성을

부탁했다. 다행히 한국어를 잘 아는 그 아이는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레 읽으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나갔다.

그러다가 학교에서의 차별과 편견에 관한 조사문항에 아이는 잠시 멈칫하던니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답을 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의 엄마가 학교에서 일어난 얘기를 자세히 묻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집에 오면 늘 밝은 모습이어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걸 전혀 몰랐다고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켜보던 나도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이에게 “니 진짜 눈이 너무 예쁘다. 눈썹도 멋지고~ 애들이 너의 멋진 모습이 부러워서 놀리는 거다. 지금 아이돌 스타들 보라. 외국출신이 얼마나 많노. 넌 반드시 멋지게 자랄까다. 기 죽지 마래이~”

하면서 사투리 가득 담긴 말투로 용기를 주었다.

아이의 엄마는 처음 조사표를 받았을 때의 시큰둥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내가 찾아온 덕분에 아이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불응가구부터해서 현장에서 겪은 사연들이 하나둘씩은 있기 마련이다. 나 역시 적지 않은 경험 속에 눈물 흘린 적도 많다. 하지만 이처럼 응답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한 적은 처음이다.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픈 마음이 컸다.

그렇게 그 아이와 아이의 엄마는 3년이 지난 지금도 다문화라는 말만 들으면 생각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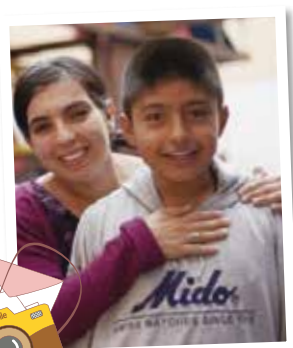


필연 :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연히 3년 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말이다. 업무분장으로 표본가 구 명부를 살펴보던 중 눈에 익은 이름이 먼저 들어왔다.

3년 전에 조사했던 바로 그 가구였다. 반가운 마음과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 지 궁금했던 나는 실사지도 명목으로 그 가구를 방문하기로 했다. 혹시나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오랜 지기를 만나는 것처럼 기대감이 더 컸다.

그런 설렘을 안고 방문한 그날. 다행히 아이엄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과 함께 아들에 대해 물어보는데, 방에서 키가 훗칠하게 큰 남자애가 나왔다.



내가 아는 아이는 올해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나온 아이는 고등학생쯤으로 보여서 혹시 다른 아드님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며 그때 그 아이가 맞단다.

그 아이 역시 나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나를 보자마자 인사를 했다. 너무나 잘 키준 아이를 보니 내가 괜스레 고마운 마음이 생겼다.

이야기인즉 아이의 엄마가 3년 전 아이의 조사표를 보고 큰 결심을 했단다. 두문불출했던 바깥출입도 하며, 학교 선생님과도 상담을 많이 했다고...

그 뒤 아이와도 많은 대화를 가지며, 아이의 교육과 학교생활에도 신경을 썼



다고 했다. 아이가 하교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내가 다녀간 후 아이 엄마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아이는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었다고. 내가 그때 아이에게 한 말이 도움이 되었는데 이국적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없다고 했다.

아이의 엄마는 아들이 본인이 잘생긴 걸 안다며, 따르는 여자친구들도 많다고 아들 자랑을 하며 3년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미소를 내내 짓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이 얘기를 접하자마자 내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영상통화너머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먼저 인사를 하신다.

“우연히 또 가정에 방문하게 됐는데,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 했더니 아버지를 닮았네요.”라고 하니 아빠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형편상 이 곳 저 곳 다니다 보니 가정을 돌 볼 시간이 없어 미안했는데, 내가 다녀간 얘기와 달라진 사정을 듣고 너무 고마웠다고 했다.

조사표를 작성하는 한 시간여 동안 전화비는 걱정하지 말라며, 계속 영상으로 지켜보시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모든 조사가 끝나고

“조사원님 고맙습니다.”





진심어린 이 한 마디에 나는 또 눈시울이 붉어졌다.

조사를 끝내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멀리 전화기 너머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라는 행복한 목소리가 나를 배웅한다.



인연 : 앞으로 우리 사이

통계조사를 하다보면 우리는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만남을 이어간다. 물론 그 시작이 좋을 수도 있고, 생각한 것처럼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 이 그렇다고 끝이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내가 겪은 상황처럼 나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연처럼 스쳐지나갈 것인지, 필연처럼 인연으로 남을 것인지는 모두 자기 하기 나름이다. 오늘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지길 바라본다.





자체추천작

충청지방통계청
최은호

사례,
스물여섯

전통시장의 어느 멋진 날



Prologue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거리를 걷고 있다. 민트색 셔츠의 소매를 반쯤 걷어 올리고 검은색 슬랙스 바지를 입고 있는 그 남자의 목에는 공무원증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기엔 ‘통계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남자의 행선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총각, 이거 한 번 잡쉴 봐.”

대로를 걷던 남자가 방향을 틀어 근처 전통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건어물 가게 앞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그에게 생선포 조각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얼떨결에 인





사를 하며 생선포를 받기 위해 손을 올리자 ‘서비스업동향조사’라고 적혀있는 기록부가 나타났다.



Chapt. 1

남자의 직업은 통계청 공무원이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 발령받은 지 1년 남짓 된 새내기 공무원이었다. 소속 사무소에서 사업체 조사의 총괄을 맡은 그는 현재 서비스업동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내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이다.

그 전통시장에는 남자에게 배정된 10여개의 통계조사 대상 사업체가 있었고, 매달 매출액과 영업일수, 종사자수 등을 조사하고 있었다.

싱싱한 생선들을 파는 가게를 지난 남자가 골목 안의 채소가게로 들어서자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한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예쁜 삼촌 왔네. 커피 한 잔 타줄까?”

“아뇨. 저 커피 잘 안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남자가 너스레를 떨며 커피를 사양하자 아주머니는 이내 비타민 음료 한 병을 건넸다.

“잘 마실게요. 그런데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잠깐 배달하러 나갔지. 멀리 안 나갔으니까 금방 올 거야. 아, 저기 오네.”

뒤를 돌아보니 채소 바구니를 배달은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토바이가 멈추자 구릿빛 피부의 아저씨 한 분이 내리며 남자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갔나보네. 많이 돌아다니고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가 첫 집이에요.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남자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기록부를 펼친다.

“지난달은 좀 어떠세요?”

“항상 비슷하지 뭐. 그래도 그전 달보다는 조금 낫긴 한데.”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뜩이나 요새 주위 분들 보면 다들 장사 안 된다고 난리시더라고요.”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야 말이지. 어디보자 얼마 정도 나왔더라...”

오고가는 대화와 함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부에 매출액과 재고액 등을 적어 나갔다. 필요한 모든 자료를 기입한 그는 기록부를 덮으며 다음 가게로 갈 준비를 한다.

“오늘도 말씀 감사해요. 이제 다음 가게 가봐야겠어요.”

“그래 수고하고... 참,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봐.”



발걸음을 돌리려던 남자를 붙잡은 아저씨는 검은 비닐 봉투에 주섬주섬 감자를 담기 시작한다.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주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혼자 산다며,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 거라도 가져가서 먹어. 혼자 해먹기 곤란하면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러면 알아서 요리해주시겠지.”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남자는 기분이 좋아져 비닐 봉투를 흔들며 다음 조사 대상 사업체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이 전통시장에 조사 나오는 날을 좋아했다. 격식을 차린 채로 딱딱한 업무 얘기가 주를 이루는 제조업 공장 조사와 달리 인정이 넘치고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며 여유 있게 조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이 날이 바쁜 업무 중간의 쉬어가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물론 처음부터 이 일이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다. 작년 발령 직후 첫 조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부딪히고는 했었다.



Chapt. 2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의 어느 여름날 오후, 남자는 미세하게 굳은 표정으로 전통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는 주위의 간판들을 두리번거리며 연신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분명 이 근처 같은데...’

한동안 상가 주변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찾던 남자는 한 간판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조금 전보다 무거워보이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느 식료품점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동안 들어가기를 주저하다가 이내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가게의 미닫이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가게 안의 널찍한 테이블에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대파를 손질하며 앉아있었다.

“뒤여, 또 바뀌었어?”

아저씨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았고 곧이어 불만 가득한 말들을 쏟아내었다.



“여직원이 오다가 몇 달 전에 남자로 바뀌더니 이번에 또 새로 온겨? 통계청은 사람이 그리 자주 바뀌나?”

“아, 이번에 어찌다보니 인사발령이 나서요. 전임자 분은 다른 지역으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를 받다보니...”

“뭐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니고, 이제 그만 나 좀 빼주지 그러? 벌써 몇 년째 이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잊을만하면 매달 찾아와서 귀찮아 죽었어.”

남자는 당황스러웠다. 며칠 전 인사이동을 한 전임자와 함께 여러 사업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인계인수를 받았지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모든 곳을 돌지는 못했는데, 이 식료품점도 방문하지 못한 사업체 중의 하나였다.

그때 찾아가지 못한 사업체들 중에 근처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곳을 위주로 조사 겸 인사차 방문을 시작하였고, 전임자와 동행하여 방문했을 때 우호적 반응을 보인 사업체가 많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처음 들어간 가게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종종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얘기로 전해 듣기만 하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요. 일단 표본으로 선정되면 5년간 조사를 지속해야 합니다.”

“아 글썄, 몇 년이 되었건 간에 나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서로 귀찮고 불편하니깐 다른 곳으로 바꿔 보슈.”

남자는 몇 분 동안 가게 주인을 설득했지만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얇은 지식으로는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결국 다음에 다시 오기로 마음먹은 채 가게를 나오게 되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조사업무가 걱정되기 시작한 남자였다.



Chapt. 3

그 후 남자는 며칠 전 전임자와 함께 방문하였던 채소가게와 정육점 등을 포함하여 몇 군데의 사업체를 방문하였고, 다행히 그곳들은 친절한 사장님 덕분에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오늘은 한 군데만 더 들러보고 그만 복귀할까?’

전통시장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나온 그가 향한 곳은 시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지물포였다. 그곳은 얼마 전 방문하였으나 주인을 만나지 못해 전화로만 담당자 변경을 알린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통계청에서 나왔어요. 저번에 전화만 드리고 직접 뵙는 건 처음이네요.”

“어서 오슈. 이번엔 젊은 사람이 왔구먼. 그런데 담당자도 바뀐 마당에 우리 집도 좀 다른 데로 바꾸면 안 될까? 저쪽에 가면 장사 더 잘되는 가게들도 많은데 하필 나만 걸려가지고 이러는 건지 원.”

“음... 표본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서요. 복잡한 것을 여쭙보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동안 잘 해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통계조사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런 조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난 잘 믿지 않아. 장사 안돼서 별 차이 없으니깐 그냥 항상 비슷하게 알아서 해주슈.”

“사장님 같은 분들이 응답을 잘 해주셔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항상 잘되는 가게들만 조사하면 나라 경기가 좋은 것처럼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힘들 거든요.”

“사정은 대충 알겠는데 나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서...”

결국 어느 정도 타협하고 대략적인 매출액을 조사하였지만 남자는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다. 조사를 완강히 거부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비협조적인 사업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겨나 머릿속이 복잡해진 남자는 출장을 나오며 타고 왔던 자동차가 주차된 곳을 향해 힘없이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Chapt. 4

단독 조사업무를 나간 첫날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자 남자는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오차를 최소화해야 하는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무실로 복귀한 남자는 일단 다음 조사를 나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나부터가 통계조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응답자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책장에 꽂혀있던 지침서를 꺼내들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





도 살펴보긴 했지만 막상 응답자를 대면하고 나니 지침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헛갈리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첫 조사를 수행해본 결과 응답자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 하고 어느 부분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지적하는지 알게 되었으므로, 처음 지침서를 살펴봤을 때보다 내용이 더 눈에 잘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그 후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주위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 기존에 배부되었던 서비스업동향조사 협조공문을 몇 부 출력하였고, 다음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남자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더위가 느껴지는 날씨 속에 남자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시장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전날 방문하였던 식료품점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번에는 잘 해봐야지!’

굳은 결심을 한 그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미담이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뭐여. 또 왔구먼? 오늘은 무슨 일인가?”

남자는 걱정했었던 것보단 가게 주인의 표정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왔어요.

오늘은 잘 해보려고요. 해해~.”

그는 멧쩍은 웃음을 지으며 기록부에 꽂혀 있던 협조공문을 천천히 꺼내들었다.

“이게 뭐여?”

“아무래도 정식으로 저희 조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신뢰감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남자는 통계조사의 법적 근거, 중요성 및 조사 자료 활용 상황 등을 준비했던 대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가게 주인이 입을 열었다.

“뭐 이런 것까지 갖고 왔어. 내가 어제 안 한다고 해서 그런 거?”

“음… 아무래도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어젠 나도 좀 미안하게 됐네 그러. 요새 맨날 파리만 날려서 괜히 안 좋게 말한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을 납득시킬 만큼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크죠. 전에 답변해주시던 대로만 하면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 뭐부터 말해주면 되나?”

남자는 매출액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후 가게 주인의 여러 푸념 비슷한 말을 들어주고 시장에 관한 몇몇 대화를 나누다, 앞으로도 잘 협조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왔다.

‘생각보다 잘 풀렸네…. 다행이다.’

첫 번째 불용 사업체의 설득을 통해 용기를 얻은 남자는 곧바로 그 다음 목표로 잡은 지물포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표본의 선정방법이나 응답의 중요성 등, 전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면 지침서를 찾아가며 최대한 응답자를 이해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남자의 우려와 달리 이번 사업체는 불응 정도가 심하지 않아 설득하는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다보니 응답자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마 조사자의 변경으로 응답자가 잠시 변덕을 부린 것이 아닐까?’

그는 응답자들과 유대관계 형성이 앞으로의 조사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느끼며 거리로 나왔다.

남자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이틀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사람마다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응답자들의 성향은 다양각색이라 그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과의 신뢰감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무엇보다 조사업무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를 하여 정확한 국가통계 생산에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주차장에 도착한 남자의 눈은 여러 생각들이 정리된 듯 자신감과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Epilogue

시원한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 오후,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로 시끌벅적한 전통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식료품점의 미닫이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 날씨 무지 좋은데요.”

그의 손에는 ‘서비스업동향조사’라 적혀있는 기록부 한 부가 들려있었고, 익숙한 듯이 가게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구먼. 뭔가 기분 좋아 보이네?”

“아, 한동안 바쁘게 괴롭히던 일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 되었거든요.”

“조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데요 뭐. 그게 통계청이 하는 일이잖아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보였다.



PART 3



• 2018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

응답자 부문 특별상

이웃사촌처럼, 가족처럼

언제부터인지 매월 어김없이 찾아주는 통계조사 담당자가 어쩐지 기다려진다. 어찌 보면 이웃사촌처럼, 가깝게는 가족처럼 어느새 친근하게 가까워졌다. 말씨가 온순하고 거부감이 없어 작은 일에서부터 치근치근히 질문할 때 나의 사생활이 몽땅 노출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질문에 빨려 들어가 대답을 하고 있었다. 이는 거부감이 없고 예절 바르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일까!!

- 응답자 특별상 「기다림」 중에서 -

특별상

사례,
스물일곱

응답자
정순옥



통계청,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다.



통계와 첫 만남

300

몇 년 전이지만 가끔 친정에 들르면 어머니께서 달력에 무언가를 적어놓으시고 조사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 달력을 보여드리곤 하셨다. 직원이 내일 방문한다고 전화가 오면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부랴부랴 챙기고 농사 시간 같은 것을 바쁘게 주욱 적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때, 나는 통계청을 처음 알게 되었다.



통계에 입문

전에 살던 사람이 통계청에 조사를 해주고 있었나보다.

2018년 4월 초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 사무



실로 통계청 직원이 찾아와 두 번째로 통계청을 접하게 되었다. 낯설면서도 어머니를 통해 접했던 통계청이 이번엔 직접 나에게 찾아오니 어찌면 인연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소득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알았다고 해버렸다. 직원이 어떻게 그렇게 선뜻 해주시냐고 물었다. 보통 의심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말에 친정어머

니 애길 해드렸다.

예전에 친정어머니께서 통계조사를 하실 때 엄청 힘들어 하셔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통계청 직원이 우리는 자영업이라서 어렵지 않다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다. 또 묻는 내용도 달라 간단하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통계청 직원에게 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소득조사는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다. 처음 들어본 질문은 당연히 낯설었고 생각보다 문항도 길었다. 이런 조사 하나도 쉬운 건 없다는 것을 살짝 느꼈다.

거기에 추가로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고, 몇 년도에 졸업했는지, 언제부터 남편과 내가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묻는 질문에 내 것은 알겠는데 남편 것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잘 모르겠어서 택배 픽업 나간 남편에게 물어서 알려주곤 했다.

여러 가지 문항들을 작성해가는 중에 '사업소득'은 매달 가계부를 적고 있어



쉽게 적을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영수증을 분명 여기서 본 듯한데 못 찾아서 다음에 알려준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았다. 통장정리하면 나중에라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편리한 마음에 국민연금도 자동이체 신청을 하려했지만 남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자동이체를 하지 못해 가끔 기한을 넘겨 납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통계조사가 내 삶의 소소한 부분이지만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구나 생각했다.



나는 조사표 작성을 할 때, 처음에는 몇 번 보조조사표에 적어 주었는데 젊으시니 모바일로 입력 좀 부탁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오히려 번거롭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

게 택배 일을 하는데 가끔 사무실을 비울 때도 있고, 바쁠 때는 통계청 직원이 방문해도 바로 대답을 못 해 출때가 많았기 때문에 직접 모바일로 입력하게 되니 마음이 더 편했다.

사실 일이 바빠서 입력을 못하고 있으면 입력 부탁한다는 문자에 미루다가 입력을 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이 예전에 친정어머니께서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대신 달력에 적어서 조사하시는 분이 오시면 달력을 보여드리곤 하셨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

들이 익숙하게 쓰는 핸드폰을 통해서 모바일 조사를 하니 많이 편하고 세월이 좋아진 것 같다.

모든 시작이 그렇듯 익숙하지 않아 모바일 조사가 조금 힘들었지만 하다 보니 편하고 나처럼 바쁜 사람들은 모바일로 입력하면 엄청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소득을 하면서 선물도 많이 받고 조사하기로 오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시고 좋다. 또 다른 말동무가 생긴 것 같아 방문한다는 전화가 오는 날이면 괜스레 기다려지기도 하고 이제는 뉴스나 라디오에 '통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한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상

응답자
문 상 진

사례,
스물여덟



“최형”이라고 불리는 조사관

내가 처음 000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담당자를 만난 것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7년 10월쯤 일 것이다.

첫인상은 단정한 모습에 얼굴에 미소 가득한 좋은 인상이었지만 들어서며 하는 이야기는 황당했다.

“000씨 택 맞나요?”라고 하길래 “네~맞아요.”

했더니, 통계청에서 농가경제조사 표본을 재선정하는데 내가 뽑혔다고 한다.



건강도 좋지 않고, 소농가인 우리 가구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이야기라 딱 잘라 말했지만, 담당자는 표본 농가 중에는 대농도 있고 나와 같이 소농인 농가도 포함되어야 전체 농가를 대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



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에 110만 농가 중에서 통계청 표본 4,600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가의 수입, 지출, 자산 등 조사가 잘 되어야만 올바른 농업정책을 세울 수 있다며 농업경영 개선 등에 꼭 필요한 조사이고 한 농가가 360 농가를 대표하게 되니까 바쁘시고 어렵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에 관련된 부분만 작성하면 된다고 재 설득하는 것이 아닌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리 떨어진 한림면에 밭을 경작하면서 농사를 지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최근에 그 땅을 처분하고 집 인근에 있는 차용지만 농사를 조금 짓고 있다. 여러 작물을 심어 수확물을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들네 가까운 친척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전부인 소작농인데, 농가경제 대상이 되었다니 웃기는 이야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000 담당자의 말은 어찌되었든 현장에 가서 보아야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겠다고 정중하게 현장 확인을 부탁했다.

‘그래!! 오늘 고생 좀 해봐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데리고 밭으로 갔다.

사실 내가 경작하는 밭은 집에서 직선거리로 150m쯤 상회하는 앞산 중턱에 위치한다. 길이 없어 농기계는 생각 할 수도 없는 모든 일이 기계 도움 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경작이 가능한 곳이다. 그곳을 가려면 집 앞 크고 넓은 하천을 건너야 하며 나머지 길은 경사도가 50~60도 정도 되는 비탈길이다 보니 나이 든 노인이나 여성분들에게는 힘든 길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생각과는 달리 000 담당자는 거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밭까지 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체력이 보기보다 대단하구나 싶었다. 이리 저리 둘러보더니 경작면적이 300평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하면서 일단은 집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조사표를 내놓고 수입과 지출, 심은 작물과 투입인력, 수확한 작물



등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고 하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농협 상품권까지 준다며 진심어린 설득을 하기에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경작면적이 적다보니 크게 기록할 것도 없겠다 싶어 그냥 허락하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결정은 정말 잘 했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두 세번 그녀를 만나다보니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

대화 속에 녹아들어 시간 개념을 잊게 하는 뛰어난 언변과 많은 지식들... 축산농가에서 있었던 이야기, 시설재배하는 하우스 농가의 이야기와 그분들의 일상들 그리고 말 못할 고충과 해결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등 사료값 상승에 구제역 발병으로 소 값 폭락, 과잉생산으로 각종 채소류 값 상승 등 많은 이야기를 그녀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면서도 고통스러운 많은 일들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여 다시 일어서는 이 땅의 많은 축산농가와 시설재배 농가분들에게 기운 잃지 마시고, 용기 내시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했었다.

사실 농가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적절한 지원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



농작물이란 하나하나 생명체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항상 관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이라 하여 부모님들이 농사지는 작물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종자파종부터 수확 할 때까지의 과정을 안다면 비록 금전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는 맘으로 먹어야 할 것이다.

담당자인 00씨를 만나는 횟수가 늘수록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호칭 문제인데 나이가 나보다 적다고 함부로 말을 놓을 수도 없었고, 고민 끝에 나온 것이 그녀의 이름이 최00이니 성씨 뒤에다가 형자를 붙혀 “최형” 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나이 어린 사람에게 더군다나 여성인데 최형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할지 몰라도, 한자로 형은 형(兄)자가 아니라, 등불형에 형(螢) 자를 인용하여 최형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녀의 환한 미소처럼 어둠속에서도 환히 밝히는 등불처럼 되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여 지은 이름이다. 최형이란 말에 최00씨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았다.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생각이었지만, 이 글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힌다.

나는 올 들어 벌써 3번이나 병원 신세를 졌다. 원래부터 몸도 약했지만, 사실 10년 전 부터 고질병을 짊어지고 있다.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병이다. 처음 손목이 붓고 아팠을 때 큰 병원에 갔었다면 치료가 가능했을텐데 만만하게 생각하고 전문 치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것이 후회스럽다.

올해 첫 번째 입원은 고추 식부 때 진드기에게 물려 입원치료를 2주정도 받았고 두 번째 입원을 급성폐렴으로 10일 정도 입원했었다. 세 번째 입원을 할 때는 몸 상태가 심각했었다. 근 15일간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으니... 처음 입안이 험어 아팠을 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약을 지어 먹어도 차



도가 없고 누군가 토종벌꿀을 먹으면 좋아진다 하여 구해서 먹어봤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야, 이러다 죽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다.

진작 갔어야 했는데, 나도 정말 무지하고 둔하다고 생각했다. 근 보름동안 음식이란 미음도 물도 삼킬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병원서 각종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혈관 수치가 위험단계를 넘을 만큼 떨어지고 백혈구, 적혈구 수치도 떨어져 몸에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빈혈수치도 떨어지고 간수치는 올라가고 의사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삼일 내로 수치가 회복되는 기미가 없다면,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가족들과 상의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입원 4일차 혈액검사 결과는 미미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처럼 그때부터 하루하루 몸이 회복되어 갔다. 입원 7일째 신기하게도 입안의 상처도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었으며, 오전 회진을 온 진료 과장님도 빨리 회복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으며 이런 일은 자기도 처음이라면서 이제 밥을 먹어도 되겠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입원 12일차에 통계청 최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방문할건데 만날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지금 멀리 나와 있어 내일 최형을 만날 수 없으니, 집에 아내에게 전화해서 조사표를 두고 가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고 혹시 병원이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멀리 있는 병원이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집에 왔다갔겠지 하며 잊고 있었는데 8월 1일 오후 2시 반쯤 침대에 기대어 책을 보고 있는데 사장님~~~하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머리를 들어보니 최형이었다. 상동면에 있는 농가에 들러 일을 마치고,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들렀다는 것이다.



반가운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최형 왈,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조사관을 할 수 있겠어요? ^^” 하며 활짝 웃었다. 뜻밖이었고 너무 고맙았다.

사들고 온 두유를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루빨리 회복해서 건강하시라며 인사를 나누는 게 최형은 마치 천사 같았다. 내게도 빨리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만나야 되지 않겠냐며 위로하고 떠났다.

그때 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날따라 무척이나 더웠는데도 찾아와서 위로하고 간 최형에게 이 글을 통해서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전한다.

입원할 때마다 아들 내외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지만, 어찌 알고 근무시간을 쪼개어 지나는 길에 왔다고 했지만, 병원까지 최형이 왔을까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자꾸만 어느 병원인지 물어서 병원 이름만 알려 주었다.

어찌되었든 최형의 방문 덕분인지 그 다음날 오전 회진때 담당과장님이 혈액 검사 분석결과를 보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퇴원해도 된다고, 자기도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을 몰랐다면 깜짝 놀랐단다.





그 다음날 퇴원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 최형과는 통계청 담당자와 농가 응답자로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사실 예전부터 우리 마을은 주촌면과 관할에서 가구수가 백호를 넘는 가장 큰 마을이었지만, 거기에 비해 농지는 타 부락 보다 턱없이 적었다. 마을자체가 양옆으로 산을 끼고 있다 보니, 주로 농지가 소농가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도 그때는 이웃간에 인정이 있었고, 가정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정마다 제사와 부모님들 생신 때에는 이웃사람을 청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농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공장이 주를 이룬다.

한 20년 전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마을 농지가 이곳저곳 준공업 지대로 지정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농지를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지만, 직접 농지에 공장을 지어 임대업을 하는 농가도 많아졌다. 나 역시도 우리 집 옆 농지에 작은 공장을 지어 지금까지 임대를 놓고 있다. 마을 뒤쪽까지 준공업 지대로 지정되면서 마치 홍수로 독이 터지듯이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첫째 문제는 농지 값이 7~8배나 폭등했다는 것,

둘째는 잘 지내던 이웃간에 땅 경계문제로 분란이 많아졌다는 것,

셋째는 화목했던 가정들이 땅값 상승으로 우애 있게 잘 지내던 형제간에 상속, 재산 문제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까지 번졌다는 것.

농지에 공장들이 하나둘씩 들어설 때마다 매일매일 대형차들이 경운기가 다녀야할 좁은 농로를 점령하다시피 하니 소음과 흙먼지로 주민과 업자 간에 땅이 있어 공장을 짓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의 갈등으로 마을이 매일 들끓었다.

무엇 때문인지 순수하고 순진한 마을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욕하며, 사나



워졌는지 이웃간의 인정도 형제간의
우애도 모두 삼키고 말았다고 믿는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공장에서 나는 소음과 환경

오염문제로 마을주민들과 공장업자들 간에 고소 고발 분쟁으로 마을이 시끄럽다. 마을 곳곳 농로를 확장하였지만, 경운기가 다녀야 할 농로에 오늘도 대형 트럭들이 줄을 이룬다. 서로 형제같이 지내던 마을 형들과 친구들, 동생들이 줄줄이 미련 없이 고향을 등졌다. 나 역시도 그때 떠나고 싶었지만 차마 떠날 수 없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난 마을에는 대다수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언덕 비탈 층층이 내려선 손바닥만한 작은 밭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 얻어지는 수확물은 식탁에 조금 보탬이 될 뿐 소득에 대한 수입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을에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럴 때 만난 사람이 000 통계청 농가경제 조사 담당자다. 이제 횡수로는 2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담당자라기보다 이제는 친구이자 동생 같은 존재이다. 매달 시작과 중순, 끝머리엔 최형을 만난다는 기대에 마치 소풍가는 날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이도 무색하게 연락 오길 기다린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 최형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한가위 잘 보내고 월말에 환히 웃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원한다. 그리고 작은 평수지만 나의 조그마한 기록이 해마다 기상악화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록부를 써내려간다.

특별상

사례.
스물아홉

응답자
서우선

기다림

오늘이 시월 팔일인데 모처럼 시골에 살면서도 들녁에 한참 만에 나갔다.

사방이 온통 벼들이 다랑 다랑 영글어 황금들판이라는 말이 한 치도 틀린 말이 아닌듯 하다.

누렇게 익은 곡식은 풍요를 자랑이라도 하듯, 자기 주인 오기를 고개 숙여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나이든 사람도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듯이 장날 시장에 가신 어머니를 망부석이 되어 기다리는 시절로 돌아가 잠시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언제부터인지 매일 어김없이 찾아주는 통계조사 담당자가 어쩐지 기다려진다.

어찌 보면 이웃사촌처럼, 가깝게는 가족처럼 어느새 친근하게 가까워졌다.

말씨가 온순하고 거부감이 없어 작은 일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질문

할 때 나의 사생활이 몽땅 노출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질문에 빨리 들어가 대답을 하고 있었다. 이는 거부감이 없고 예절 바르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일까!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죠?!”라며 인사말을 꺼내며 “지난번보다 밝은 모습이네요. 처음 뵈는 때 보다 젊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인사말이라는 것을 아는 듯하다. 나도 삼십여 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분들의 가르침이 있었겠지만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년 기간 중 벌써 2년이 지났단다. 나와 의 인연도 1년 남짓 남은 것 같다. 옛그제 만난 듯 한데 어느덧 세월이 이리도 빨리 지났단 말인가. 내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의 이십여 집을 한 집도 거르지 않고 찾아주시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들녁에 나가거나 더러는 직장에 나가다 보면 아침 일찍 나갔다 오후 늦게야 집에 오게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을 놓칠 세라 찾아다니며 근본을 잊지 않고 대상 가구들에게 공손하고 정직한 말씨로 늦으면 늦는 대로 일일이 찾아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는 젊은 사람이 흔치 않기에 못 쓰는 글로 몇 자 적어서 감사의 뜻을 포함한다.





2018년 통계조사 현장체험 사례집

두드리
심, 응답자의 마음을 여는

생면부지의 낯선 현장! 많은 만남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록 시작이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특히나 통계청에서야말로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생면부지의 낯선 현장에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응답자의 반응이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 대상작 「고민을 해결해드려요」 중에서 -

